

# 「대가야 고령」 고도(古都) 지정 신청서



2024.04.



## <목차>

「대가야 고령」고도(古都) 지정 신청서 .....	1
<b>I. 대가야 고령의 고도 지정 가치 .....</b>	<b>3</b>
1. 관련 문헌자료에서의 대가야 고령 .....	3
1.1 고문헌 .....	3
1.2 조사문서에서의 고령 .....	8
1.3 설화로 본 고령 .....	11
2. 고령의 문화재 현황 .....	13
2.1 고령의 문화재 분포 현황 .....	13
2.2 대가야 핵심유적 .....	14
2.3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	27
2.4 고령 대가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구성요소 분포 현황 .....	28
3. 대가야 관련 출토유물 .....	38
3.1 대가야식 토기 .....	38
3.2 대가야식 금공품 .....	40
4. 대가야 '고도(古都)' 고령의 역사적·학술적 중요성 .....	42
4.1 역사적 측면 .....	42
4.2 문화적·예술적 측면 .....	44
4.3 경관(공간)적 측면 .....	46
<b>II. 대가야 고령의 고도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필요성 .....</b>	<b>48</b>
1. 지질,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	48
1.1 고령의 지질 및 지형환경 .....	48
1.2 고령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 .....	49
2. 문화재 및 문화재 분포 예상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	51

3.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의 현황·계획 .....	56
3.1 기반시설 현황 .....	56
3.2 기반시설 조성계획 .....	56
4. 대가야 고령 고도 보존의 의의 .....	59
4.1 지도자료를 통한 대가야 고도의 역사적 골격 지속 확인 .....	59
4.2 고령의 도시변화과정 고찰을 통한 도시기능 검토 .....	60
4.3 대가야 고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필요성 종합 .....	61
<b>Ⅲ. 고령의 고도지정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b>	<b>69</b>
1. 주민 설명회 개최 .....	69
1.1 주민설명회 개요 .....	69
1.2 주민설명회 개최 및 운영결과 .....	70
2. 적극적 참여 및 추진 의사 확인 .....	76
2.1 2024년 고령 대가야 축제 고도지정 추진 홍보부스 운영 개요 .....	76
2.2 주민설명회 개최 및 운영결과 .....	77
3. 고령군의 역사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 .....	79
3.1 대가야 고령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 노력(발굴조사 등) .....	79
3.2 대가야 고령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 노력 .....	79
3.3 대가야 고령의 역사적 정체성 회복 노력 .....	80
<b>Ⅳ. 보존육성사항의 타당성·효과성·충실성 .....</b>	<b>81</b>
1. 대가야 고령, 고도 지정의 당위성 검토결과 .....	81
2. 대가야 고령, 고도 지정이 주변 지역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	83
2.1 경제가치 분석 .....	83
2.2 정책적·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84



# 「대가야 고령」 고도(古都) 지정 신청서

<요약문>

## 1. 신청개관

- 신청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행정구역 면적 384.1km<sup>2</sup>, 2022.12.31 기준)
- 신청근거 : 고도육성법 제2조(정의)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고도의 지정 기준 등)
  - 고도 :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고도의 지정기준 :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의 중심지, 해당 지역에 고도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을 것**
- 주요경과 :
  - 2024.03.28~03.31 고도지정 서명운동(1,400여명) ⇒ 적극적 참여의사 확인(본문참조(p.76))
  - 2023.07.14 고도지정 추진 주민설명회(100여명) ⇒ 공감대 형성 및 참여의지 확인(본문참조(p.70))
  - 2023.03.06~2024.01.02 고도지정 타당성 조사용역(고령군청) ⇒ 지정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 2. 고도 지정의 당위성(고도육성법 지정기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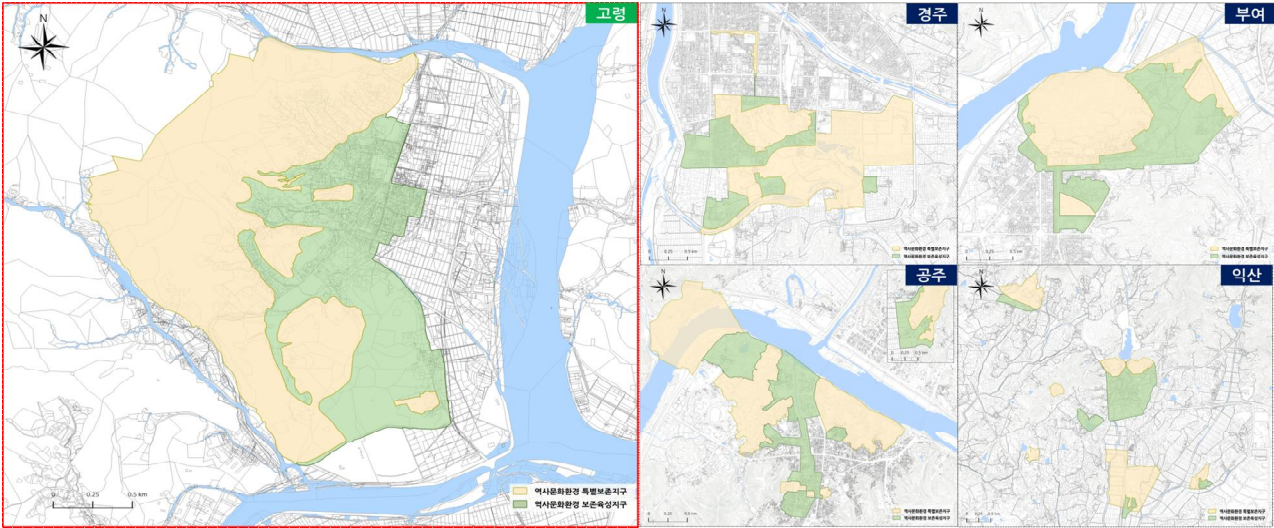
- 지정 필요성 : 대가야 핵심유적 가치보호 및 가야연맹체의 맹주로서 고령군의 도시적 위상 제고 필요, 급격한 인구감소 및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한 **‘지역의 소멸위기 봉착’** →**찬란하고 유구한 대가야 역사문화환경의 지속가능성 저하 및 역사적 골격 소멸 우려**
  - 역사문화적 측면 ⇒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인식 부족 및 훼손 우려**
  - 사회경제적 측면 ⇒ **인구 감소 및 경기 침체**
- 지정 가치 : 대가야의 역사적 의의와 고령의 도시적 위상 강화
  - 역사적 가치 : 고대국가 **대가야의 도읍지, 궁성지 및 산성, 고분 등 관련 유적 다수 분포** ⇒ 본문 참조(pp.13-37; pp.42-43)
  - 문화적·예술적 가치 : ‘대가야식’ 묘제, 토기, 금제이식 등 대가야의 지역 특성이 드러나는 독자적 문화 구축, **관련 유물 다수 출토** ⇒ 본문참조(pp.38-41; pp.44-45.)
  - 경관적 가치 : 평지궁성지-배후산성의 고대 도성체계 갖추, **도심 내 핵심유적 밀집, 대표적 핵심유적(지산동 고분군(세계유산)) 랜드마크 형성** ⇒ 본문참조(p.46)

## 3.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구성요소

- 문화재현황 : 총 41개(2023.09.01. 기준) ⇒ 본문참조(pp.13-14)
  - 국가지정문화재(12개) : 보물5/사적4/국가민속1/국가등록2
  - 도지정문화재(29개) : 유형9/무형2/기념3/민속1/문화재자료14
  - 비지정문화재(548개) : 통치행정/기반시설/주거생산/사회종교/사건장소/생태환경/고분/기타
  - 대가야 관련 핵심유적(4개) : (전)대가야 궁성지(현, 고령향교(문화재자료) 터)/지산동고분군(사적/세계유산)/주산성(사적)/고아리벽화고분(사적) ⇒ 본문참조(pp.14-26)
- 문화재 분포 예상지역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27.1km<sup>2</sup> ⇒ 본문참조(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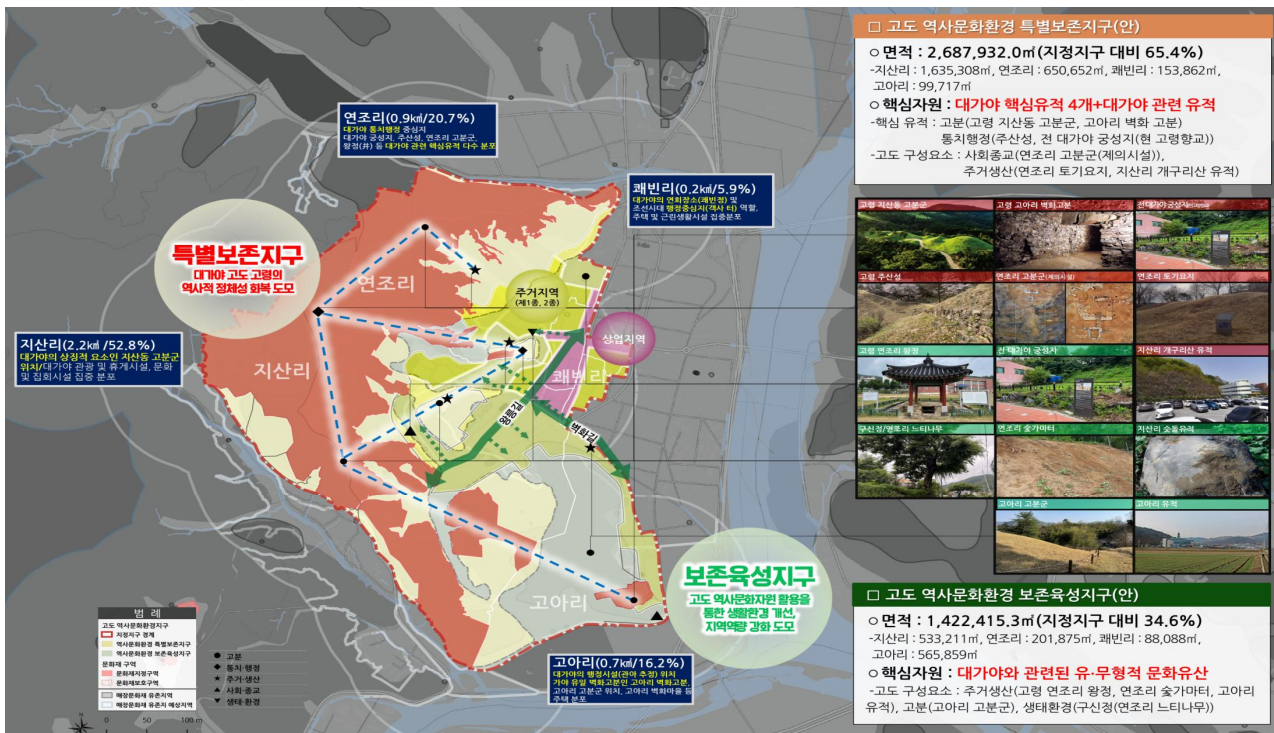
### ▼고령군과 기존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의 주요 특성 비교

-자료 : (재)역사문화환경정책연구원(2022),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연구」, 문화재청, pp.115~133.



구분	고령	경주	부여	공주	익산	
고도지구 지정면적 (전체 대비 행정구역 면적)	4,110,347.3㎡ (1.1%)	3,606,665.0㎡ (0.3%)	2,803,169.0㎡ (0.4%)	4,238,869.6㎡ (0.5%)	3,084,735.0㎡ (0.6%)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2,687,932.0㎡ (65.4%)	2,553,367.0㎡ (70.8%)	1,550,440.0㎡ (55.3%)	2,675,499.6㎡ (63.1%)	1,795,589.0㎡ (58.2%)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1,422,415.3㎡ (34.6%)	1,053,298.0㎡ (29.2%)	1,252,729.0㎡ (44.7%)	1,563,370.0㎡ (36.9%)	1,289,146.0㎡ (41.8%)	
지구 지정형태(지정공간)	집중(도심)	집중(도심)	집중(도심)	분산/집중(도심)	분산/외곽	
고도지구 내 핵심자원	4개(대가야)	15개(신라)	13개(백제)	6개(백제)	8개(백제)	
지정문화재	25개 (국가10/시도15)	79개 (국가71/시도8)	15개 (국가7/시도8)	35개 (국가22/시도13)	13개 (국가9/시도4)	
세계유산	가야고분군(1)	경주역사 유적지구(24)	백제역사 유적지구(5)	백제역사 유적지구(2)	백제역사 유적지구(2)	
도시 특성	면적	384.1㎢	1,324.53㎢	624.50㎢	864.29㎢	507.06㎢
	인구	3만 여명	26만 7천여명	6만 6천여명	10만 6천여명	28만 7천여명
	재정자립도/자주도	10.7%/54.3%	28.2%/65.6%	9.2%/52.0%	13.9%/61.6%	14.5%/55.1%

### ▼고령군의 대가야 핵심유적 분포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지정지구 계획안



# I. 대가야 고령의 고도 지정 가치

## 1. 관련 문헌자료에서의 대가야 고령

### 1.1 고문헌

- 대가야의 역사를 기록한 국내 고문헌은 고려시대 기록인 『삼국유사』, 『삼국사기』, 조선시대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 『삼국사절요』, 『강역고』 등이 있음. 해외의 고문헌으로는 중국의 『남제서』, 『삼국지』 등과 일본의 『일본서기』 등이 가야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대표적인 문헌자료로 확인됨.

#### □ 『남제서』(537년)

- 중국 『남제서』(537년)는 가야의 기록 전체에서 중국과 직접 교류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유일한 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 『남제서』에는 ‘가라국왕 하지(荷知)가 남제에 사신을 보내고 ‘보국장군본국왕(輔國將軍本國王)’이라는 작호를 제수 받았다.’ 는 기록이 있음. 이는 당시 대가야가 중국과 직접 교류할 정도로 발전했고, 당시 한반도 내에서 유력한 정치세력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음.<sup>1)</sup> 또한 중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에 가야가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함. ‘가라국왕’이라는 표현은 왕의 존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서 대가야의 정치적 성장과 가야제국 내 대가야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됨.<sup>2)</sup>

#### □ 『삼국사기』(1145년)

- 『삼국사기』(1145년)에는 ‘고령’과 ‘대가야’와 관련하여 대가야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됨. 『삼국사기』 「지리지(地理志)」에는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高靈)이라는 기록을 통해 고령의 역사적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또한 지금의 고령군은 대가야국으로 존속 기간이 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鼓王)으로부터 도설지왕(道說智王)까지 16세(世) 520년인데, 신라 진흥왕(眞興王)이 쳐서 멸망시키고 그 땅을 대가야군(大加耶郡)으로 삼았다는 기록을 통해 대가야의 시작과 끝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삼국사기』에서는 대가야의 대외관계에 관한 내용도 확인 가능함. 신라 소지왕 18년(496)에 대가야가 꼬리가 5척인 흰 평을 보냈다는 내용과 법흥왕 9년

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18), 『가야자료총서01』 「가야문헌사료편」, pp.28-31.; 안홍좌(2018), 「가야 기록」, 『가야 고분군연구총서』 제1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p.249.

2)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20), 『Magazine 가야 Vol.2.』 「가야 문헌사 연구」, pp.06-09

(522)에 가야 국왕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요청해서 비조부의 누이를 보냈다는 기록, 법흥왕 11년(524)에 남쪽 변경에 왕이 순회하는 중 가야왕과 회합을 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됨.

- 아울러, 예악 등 예술적 발달에 대해 파악이 가능함.

□ 『일본서기』(720년)

- 일본은 중국에 비해 일찍부터 가야와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일본 역사서에 가야 관련 기록들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음. 가장 대표적인 사서가 『일본서기』로 (720년), 『일본서기』는 신대부터 지토천황(持統天皇) 10년(696)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모두 30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거의 모든 책에 가야와 관련된 기록들이 존재하지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 『백제본기』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게이타이 천황(繼體天皇)과 긴메이 천황(欽明天皇) 기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인정되어 6세기 전·후 가야 사회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sup>3)</sup>
- 『일본서기』에는 대가야는 곧 지금의 고령 땅이니 신라와 백제 두 나라 사이에 있어 형세가 위태로웠다고도 기록되어 있으며,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과 562년 대가야가 신라에 정복되었다는 기록되어 있음. 아울러, 부체제의 실시 및 중앙과 지방의 구분, 분화된 관제 등 대가야의 정치발달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음.<sup>4)</sup>

▼대가야 고도 고령의 역사적 정체성 파악이 가능한 고문헌 등 관련사료

-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18), 『가야자료총서01-가야문헌사료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18), 『가야자료총서05-가야발굴조사 자료편Ⅲ』

번호	년도	내용	원문	문헌자료명	비고
1	42년	…그러나 『본조사략(本朝史略)』에 금관을 세고 창녕(昌寧)을 흘린 것은 잘못이다. 아라(阿羅)〈또는 야(耶)로도 지었다〉가야(伽耶)〈지금 함안이다〉, 고녕가야(古寧伽耶)〈지금의 함녕(咸寧)이다〉, 대가야(大伽耶)〈지금의 고령(高靈)이다〉, 성산가야(星山伽耶)〈지금의 경산(京山)이니 또는 벽진(碧珍)이라고도 한다〉, 소가야(小伽耶)〈지금의 고성(固	…五伽耶. 阿羅伽耶, 古寧伽耶, 大伽耶(今高靈), 星山伽耶, 小伽耶. 又本朝史略云 太祖-天福五年庚子改五伽耶名 一金官(爲金海府) 二古寧(爲加利縣) 三非火(今昌寧 恐高靈之訛) 餘二阿羅·星山…	『삼국사절요』 권 6 임인 (1458년)	

3)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18), 『가야자료총서01』 「가야문헌사료편」, pp.28~31

4) 『日本書紀』 欽明 23년(562년)조의 임나 멸망 기사에 ‘임나 10국’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존에 고지명 분석과 고고 자료를 결합하여 후기 가야소국들의 위치를 비정한 바 있다. ‘임나 10국’ 가운데 가라국(대가야, 고령 지산동고분군), 안라국(함안 도항리·말산리고분군), 고차국(소가야, 고성 송학동고분군) 등은 고대사연구자와 고고학자간에 거의 이견이 없다.(이동희(2017), 「후기 가야 고고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No.85, 한국고대사학회, p.137)



번호	년도	내용	원문	문헌자료명	비고
		城)》…			
2	479년	가라국(加羅國)은 삼한의 종족이다. 건원 원년(479년)에 국왕 하지(荷知)의 사신이 와서 공물을 바쳤다. 조서를 내려, “도량이 넓은 자가 비로소 등극하니 먼 오랑캐가 교화에 젖도다. 가라왕 하지가 바다 밖에서 방문하여 동쪽 멀리서 폐백을 바쳤다. 가히 보국장군 본국왕을 제수한다.”라고 하였다.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 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 洽化 加羅王荷知款關海外 奉贄東 遐 可授輔國將 軍本國王.	『남제서』 권 58 열전39 동남이전 가라국조 (537년)	대외관계
3	496년	18년(496) 봄 2월에 가야국(加耶國)이 흰 꿩을 보냈는데, 꼬리의 길이가 5척(尺)이었다.	十八年, 春二月, 加耶國送白雉, 尾長五尺.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1145년)	대외관계
4		「소지왕」18년 봄에 가야국이 흰 꿩(白雉)을 보내왔는데, 꼬리가 5척이었다.	十八年春 加耶國送白雉 尾長五尺.	『역사집략』 권 4 신라·고구려·백제기(1905)	대외관계
5	522년	9년(522) 봄 3월에 가야국(加耶國)의 왕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므로, 왕이 이찬(伊漣) 비조부(比助夫)의 누이를 보냈다.	九年, 春三月, 加耶國王遣使請婚, 王以伊漣比助夫之妹送之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1145년)	대외관계
6		봄 3월에 가야(加耶)국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혼인을 요청하자 왕이 이찬(伊漣) 비조부(比助夫)의 여동생을 시집보냈다.	春三月 加耶國王遣使新羅 請婚王 以伊漣比助夫妹 歸之.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고령현 (1530년)	대외관계
7	524년	11년(524) 가을 9월에 왕이 나아가 남쪽 변방의 새로 확장한 영토를 순행(巡幸)하였는데, [이때] 가야국의 왕이 와서 만났다	十一年, 秋九月, 王出巡南境拓地, 加耶國王來會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1145년)	이문기 (1995), 「대 가 야 의 외교 관계」 참조
8	526년	<병오에 신라 법흥왕 12년, 고구려 안장왕 7년, 백제 성왕 3년, 양 무제 보통 7년(526년)> 이에 앞서, 신라가 대가야로 쳐들어가 그 땅을 빼앗았다. 이 해에, 일본<일황(日皇) 계체(繼體) 21년(526년)>이 야후미노게나노[近江毛野]를 파견하여 장병 6만 명으로 대가야로 가게 하여, 땅을 되돌려주도록 신라를 꾸짖었다	<丙午 新羅法興王十二年 高句麗 安臧王七年 百濟聖王三年 梁武帝 普通七年> 先時 新羅侵取大加耶地 是歲 <日本日皇繼體二十一年> 遣近江毛野臣 將兵六萬 赴大加耶 責羅 還其	『역사집략』 권 4 신라·고구려·백제기 (1905)	
9	540년	8월 고구려·백제·신라·임나가 함께 사신을 보내고, 아울러 공물을 바쳤다. 진인, 한인 등 여러 나라에서 투화하여 온 사람을 불러모아, 국군에 안치하고 호적을 편성하였다…	八月 高麗百濟新羅任那 竝遣使獻 竝脩貢職 召集秦人漢人等 諸蕃投化者 安置國郡…	『일본서기』 권 19 흥명19년 15년 2월 (720년)	
10	541년	欽明 2년(서기 541년) 4월, 安羅의 次早岐 夷呑奚·大不孫·久取柔利, 加羅의 上首位 古展奚, 卒麻의 早岐, 散半奚의 早岐兒, 多羅의 下早岐 夷	夏四月 安羅次早岐夷呑奚·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卒麻 早岐散半奚早岐兒 多羅下早岐夷 他斯二岐早岐兒 子他早岐等 與任	『일본서기』 권19, 흥명기 2년조	관직분화/ 중앙과 지방의 구분



번호	년도	내용	원문	문헌자료명	비고
		他, 斯二岐의 旱岐兒, 子他的 旱岐 등은 任那日本府인 吉備臣과 함께 백제로 가서 왜왕의 뜻을 듣고 현안을 논의하였다.	那日本府吉備臣厥名字 往赴百濟 俱聽詔書…		
11	544년	欽明 5년(서기 544년) 11월, 日本吉備臣, 安羅의 下旱岐 大不孫·久取柔利, 加羅 上首位 古展奚, 卒麻君, 斯二岐君, 散半奚君兒, 多羅 二首位 訖乾智, 子他旱岐, 久嗟旱岐들이 백제로 갔다.	十一月 百濟遣使 召日本府臣·任那執事曰 遣朝天皇 奈率得文·許勢奈率奇麻物部奈率奇非等 還自日本 今日本府臣及任那国執事 宜來聽勅 同議任那 日本吉備臣 安羅下旱岐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 古殿奚卒麻君斯二岐君散半奚君兒 多羅二首位訖乾智子他旱岐久嗟旱岐 仍赴百濟…	『日本書紀』 권19, 흥명기 5년조	관직분화
12	544년	겨울 12월 백제가 하부의 간술 문사간 노를 보내 표를 올려 “백제왕신명(明)과 안라에 있는 왜신들, 임나 여러 나라의 旱岐들은 아립니다. 사라(斯羅)가 무도하여 천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구려[狛]과 마음을 함께 하여 바다 북쪽의 미야케[彌移居]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신들이 함께 의논하기를 유지신(有至臣) 등을 보내 우러러 군사를 청해 사라를 정벌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천황께서 유지신을 보내시니, 군사를 거느리고 6월에 왔으므로 신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冬十二月 百濟遣下部杆率汶斯干奴 上表曰 百濟王臣明 及在安羅諸倭臣等 任那諸国旱岐等奏 以斯羅無道 不畏天皇 與狛同心 欲殘滅海北彌移居 臣等共議 遣有至臣等 仰乞軍士 征伐斯羅 而天皇遣有至臣 帥軍以六月至來…	『삼국사기』 권34 지리1 강주 (1145년)	대외관계
13	562년	欽明 23년(서기 562년) 춘정월에 신라가 임나관가任那官家를 쳐서 멸하였다(주 : 어떤 책에는 21년에 임나가 멸망했다고 하였다. 통틀어 말하면 임나이고, 따로 말하면 가라국加羅國·안라국安羅國·사이기국斯二岐國·다라국多羅國·졸마국卒麻國·고차국古嗟國·자타국子他國·산반하국散半下國·걸손국乞滄國·영례국稔禮國으로 합하여 10국이 다.	春正月 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 廿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安羅國斯二岐國多羅國卒麻國古嗟國子他國散半下國乞滄國稔禮國 合十國].	『일본서기』 권 19, 흥명기 23년조 (762년)	
14		[23년(562)] 9월에 가야(加耶)가 배반하였으므로 왕이 명하여 이사부(異斯夫)에게 토벌하게 하고, 사다함(斯多含)에게 그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九月, 加耶叛, 王命異斯夫討之, 斯多含副之. …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145년)	
15		진흥왕(眞興王)이 이찬(伊滄) 이사부(異斯夫)에게 명하여 가라국(加羅國)또는 가야국(加耶國)이라고도 한다.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때 사다함(斯多含)은 나이가 15~16세였지만, 종군하기를 청하였다.…”	眞興王命伊滄異斯夫, 襲加羅 一作加耶國. 時斯多含年十五六, 請從軍. …	『삼국사기』 권44 열전4 사다함 (1145년)	
16	-	고령군(高靈郡) 본래 대가야국(大伽倻國)이 시조 이진야시왕(伊珍阿豉王)내	高靈郡, 率大加耶國, 自始祖伊珍阿豉王一云内珍朱智., 至道設智	『삼국사기』 권34 잡지3	

번호	년도	내용	원문	문헌자료명	비고
		진주지(內珍朱智)라고도 한다.에서 도설지왕(道設智王)까지 모두 16대 520년 이어졌던 곳이다. 진흥왕(眞興王)이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대가야군(大伽倻郡)으로 하였다. 경덕왕(景德王)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도 그대로 쓴다. 거느리는 현[領縣]은 둘이다....	王, 九十六世, 五百二十年. 眞興大王侵滅之, 以其地爲大加耶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	고령현 (1145년)	
17		고령군은 본래 대가야국이었는데, 시조 이진아시왕(주: 또는 내진주지(內珍朱智)라고도 한다)에서 도설지왕까지 모두 16세 520년이였다. 진흥대왕(眞興大王)이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대가야군으로 삼았다...	高靈郡, 本大加耶國, 自始祖伊珍阿鼓王[一云 內珍朱智]至道設智王凡十六世五百二十年, 眞興大王侵滅之, 以其地爲大加耶郡...	『삼국유사』 권1 기이2 오가야 (1281년)	
18	-	羅古記에서 말하기를 加耶國 嘉實王이 唐의 악기를 보고 만들었는데, 왕은 “諸國의 方言이 각기 다른데 어찌 聲音이 같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악사 省熱縣人 于勒에게 명하여 12곡을 만들었다. ... (중략) ... 우륵이 지은 12곡은 첫째 하가라도(下加羅都), 둘째 상가라도(上加羅都), 셋째 보기(寶伎), 넷째 달이(達己), 다섯째 사물(思勿) 여섯째 물혜(勿慧), 일곱째 하기물(下奇物), 여덟째 사자기(師子伎), 아홉째 거열(居烈), 열째 사팔혜(沙八兮), 열한째 이사(爾赦), 열두째 상기물(上奇物)이다.	羅古記云 加耶國嘉實王 見唐之樂器而造之 王以謂諸國方言各異 聲音豈可一哉 乃命樂師省熱縣人于勒 造十二曲. ... (중략) ... 于勒所製十二曲, 一曰下加羅都, 二曰上加羅都, 三曰寶伎, 四曰達己, 五曰思勿, 六曰勿慧, 七曰下奇物, 八曰師子伎, 九曰居烈, 十曰沙八兮, 十一曰爾赦, 十二曰上奇物.	『삼국사기』 권32 잡지1 악지 가야금 (1145년)	예악
19	-	<최치원(崔致遠)의 「석이정전(釋利貞傳)」에 이르기를 가야산신 정견모주(正見母主)는 천신 이비가지(夷毗訶之)에게 감응되어 대가야와 뇌질주일(惱室朱日)과 금관국(金官國) 왕 뇌질청예(惱室靑裔) 두 사람을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뇌질주일은 곧 이진아시왕의 별칭이 되고 청예는 수로왕(首露王)의 별칭이 된다. 그러나 [최치원의 말은] 가락국(駕洛國) 고기(古記)의 여섯 알[六卵] 전설과 더불어 모두 허황되어 믿을 수 없다. 또 [최치원의] 「석순응전(釋順應傳)」에 이르기를 대가야국의 월광태자(月光太子)는 정견(正見)의 10세손이다, 아버지는 이뇌왕(異腦王)인데, 신라에 구혼하여 이찬(迎夷婁) 비지배(比枝輩)의 딸을 맞아 태자를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뇌왕은 곧 뇌질주일의 8세손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확인할 수 없다> 신라 진흥왕이 멸하고 그 땅을 대가야군(大伽倻郡)으로 삼았다. ...	凡十六世五百二十年 <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室朱日·金官國王惱室靑裔二人 則惱室朱日爲伊珍阿鼓王之別稱 靑裔爲首露王之別稱. 然與駕洛國古記六卵之說 俱荒誕不可信. 又釋順應傳 大伽倻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 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婁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腦王 乃惱室朱日 之八世孫也. 然亦不可考> 新羅眞興王滅之 以其地爲大伽倻郡. ...	『강역고』 권 2 별진별고 (1811년)	설화/대외 관계 등

## 1.2 조사문서에서의 고령

### □ 조선고적조사보고(1920년~1921년)

- 일제강점기 행해진 고령지역 발굴조사를 통해 고령지역 고분군의 입지특성 및 구조(산지, 세장방형 평면)에 있어 신라 고분군(평지, 짧은 장방형 평면)과는 다른 차별화된 특징을 확인함. 또한, 지산동 고분군 출토유물 중 토기의 경우, 함안·창녕·선산 등의 지방에서 발견되는 토기류와 뚜껑표면, 장식적 세공 부분에서 현저한 차이 확인 및 금속제 고리류에 관하여 일본과 차이점을 기술함. 이를 통해, 당시 지산동 고분군의 탁월한 경관입지, 우수한 껌문거리 등이 고령만의 독자적 특징으로 주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가야 관련 유적 중 보고되어 알려진 유적은 대체로 우메하로 스에지(梅原末治, 1893~1983)의 보고에 기인함. 보고서에는 간략한 내용 및 석실구조가 기록되어 있으며, 출토유적 및 유물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을 통해 발굴 당시의 정황을 추정해 볼 수 있음. 또한, 조선총독부는 여러 차례 가야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관련 조사 내용은 『대정6년도 고적조사고(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1920)와 『대정7년도 고적조사보고(大正七年度古蹟調査報告)』, 『경상북도경상남도고분조사보고』(1921)의 기록과 간략히 그려진 도면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1920년 제작된 고령읍 부근 유물·유적도(조선총독부 1920, 도 77)는 고령읍(현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여러 유물과 유적이 표기되어 있으며, 그 당시에도 고령읍 시가지 부근으로 주산성과 지산동 고분군, 전 대가야 궁성지 등을 비롯한 유물과 유적이 중요하게 인지되었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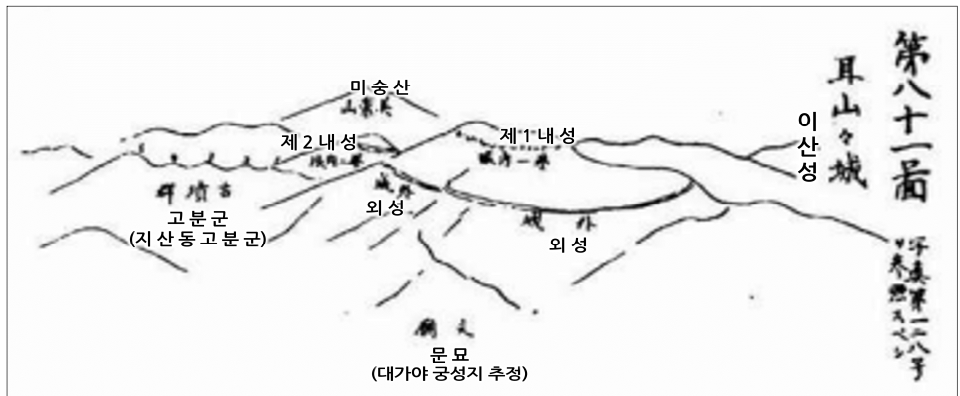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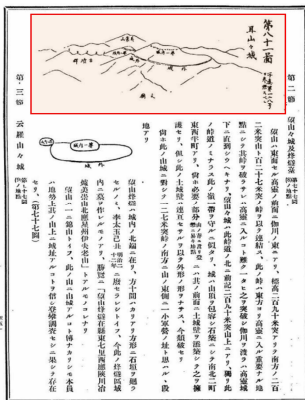
▲고령읍(대가야읍) 부근 유물·유적 분포도(조선총독부 1920 도 77)  
-자료 :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고령지역 고분의 발굴조사는 최초 조사인 1910년부터 1939년까지 총 6회에 걸쳐 16~17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지산동고분군은 1910년부터 1938년까지 총 5차례 걸쳐 분포·현황조사 및 발굴조사(3기·갑(甲)·을(乙)호분·병(丙)호분), 1~3호분(현 12호·18호·22호)과 절상천정총, 39호분(전 금림왕릉)과 4기의 발굴조사 등이 조사되었음. 전반적인 고분 분포양상은 1917년 이마니시류의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고, 34기에 대한 고분번호를 부여하였다고 전해지며, 전체 분포 고분은 100기 이상으로 언급하고 있어 그 당시에도 규모가 큰 고분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냄.
- 지산동 고분군은 본명 외에 이산고분군, 주산성고분군, 고령산성과 같은 이름으로 기록되어왔음. 그 외 고분군은 성산면박곡동군고분군(현 박곡리고분군), 운수면월산동군고분군(현 월산리고분군), 읍내면북부군고분군(현 본관동고분군) 등이 있으며, 간략한 조사기록과 실측도와 사진을 남김. 월산리고분군은 ‘운수면월산동군고분군’으로 소개하였고, 대가야의 산성인 ‘운라산성’과 관계된 고분군으로 파악하였음.
- 당시 고분군은 일제강점기 때의 지명을 이용하여 명명하였으며, 대가야기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들과 연접한 곳에 고분들이 있음을 인지함. 또한, 지산동고분군을 제1군으로 삼고, 본관동고분군을 제2군으로 구분하고 있어, 일제강점기의 본관동고분군에 대한 인식은 지산동고분군에 속하는 무덤군으로 파악했던 것을 알 수 있음.
-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조사에서 고령지역 고분군의 차별화된 입지특성 및 구조적 특징이 파악되었는데, 입지특성의 경우, 신라의 고분들이 주로 평지에 위치한 것과 달리 고령 지역의 고분은 주로 산지에 입지해 있다는 차이점이 확인됨. 또한, 내부 구조에 있어 신라의 고분군은 평면형태가 짧은 장방형인 반면, 고령지역의 고분은 세장방형으로 차별화되는 구조적 특징을 확인함.
- 고분 안에서 발견된 유물의 특징에 관해서도 기술되어 있는데, 토기의 경우에는 함안·창녕·선산 등의 지방에서 발견되는 토기류와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토기가 편평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고배나 완 등의 뚜껑 표면의 완곡이 현저하게 적어서 수평에 가깝다고 기술함. 또한, 손잡이가 뿔 모양인 것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손잡이 부분에 장식적 세공이 많다는 점과 토기 속에 성계나 소라 등의 해산물 껍데기가 남아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지역이 바다에서 먼 지방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음.<sup>5)</sup>
- 이 밖에, 금속제 고리류에 있어 자국인 일본과 비교한 차이점에 대해 분석한 내용 또한 확인됨. 일본에서 발견되는 것의 단면은 주로 타원형인 반면, 고령에서 발견되는 것은 약간의 각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기록함. 이로 보아, 일제강점기때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고령지역 고분 및 출토유물들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

5)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18), 『가야자료총서02-일제강점기 자료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p.116.

된 독자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주산성과 (전)대가야 왕궁지(현 고령향교) 대해서도 조사기록이 남아있음. 주산성은 이산(耳山)으로도 불리고 주산(主山)으로도 불리는 산성에 2곳의 내성과 1곳의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외성 안에는 건물터와 대지가 있어 건축물이 존재했다고 추정함. 주산성의 형식은 주변의 함안의 봉산산성과 고령의 운라산성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대가야 산성으로 고대 가야의 관방체계와 사회적 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기록함. 또한, 주산성은 대가야의 도성방어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고, 대가야 멸망 이후에는 신라의 거점성으로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전 대가야왕궁지는 구릉 위에 입지한 문묘의 위치로 추정하였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고령읍지』<sup>6)</sup>의 문헌 기록과 연화문 수막새의 출토 유물을 근거로 삼아 위치를 비정하였음. 당시 문묘 뒤에서 발견된 연화문 수막새는 문양적 특징과 경주의 고분에서도 비슷한 모양의 기와를 발견되는 점을 근거로 삼국시대의 것으로 보았고, 이로 보아 대가야의 왕궁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록함. 그리고 군청 북쪽의 우물을 ‘어정(御井)’이라 칭하고 당시 사진을 남겨두는 등 대가야 궁성지의 공간적 범역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됨.
- 이를 잘 나타내는 자료가 유리건판27194로 ‘경북 고령 전 대가야왕궁지, 주산성 기와, 성벽(慶北 高靈 傳大伽倻 王宮址, 主山城 瓦, 城壁)’ 명칭으로 구릉의 북쪽 산 정상부에는 주산성 성벽과 연화문 수막새, 기와편이 조합되어있고, 주산성 고분군(현 지산동고분군)과 함께 중요한 연결유적임을 인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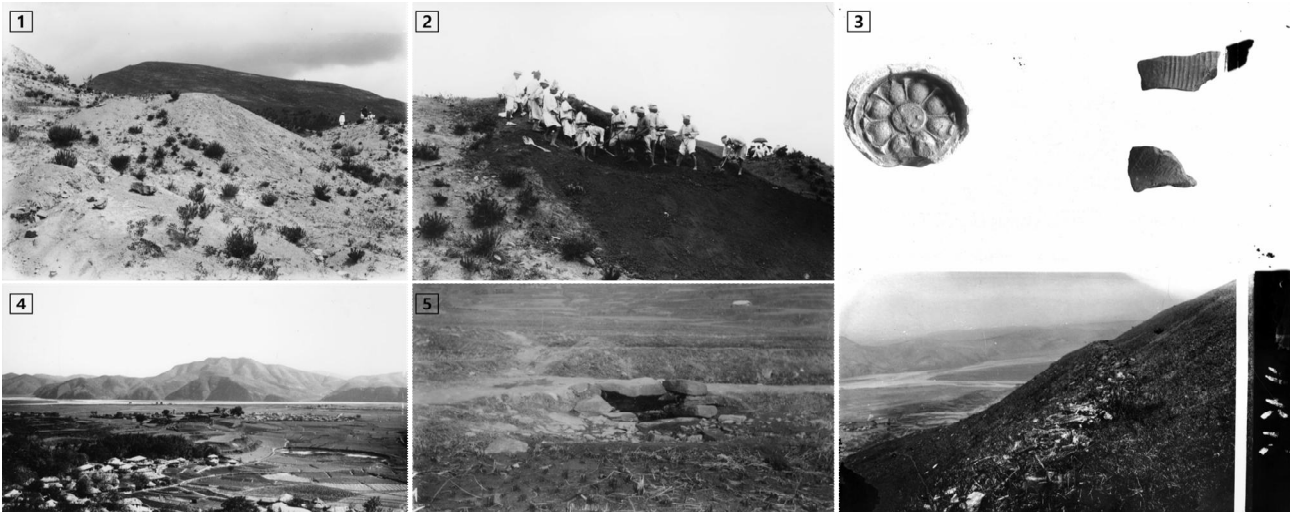


▲「대정6년도고적조사보고」상 이산(주산)성 관련 내용

-자료 : 조선총독부(1920), 『대정6년도고적조사보고(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p.451.

6) 『고령읍지』의 기록에 문묘 건립 당시에 초석과 기와가 발견되었다는 기록을 하나의 근거로 삼음.(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18), 『가야자료총서02-일제강점기 자료편』, p.143.)





▲①주산성고분군(1915년 구로이타 촬영, 건판3924), ②주산성석곽묘 발굴(1915년 구로이타 조사, 건판3927), ③고령 전 대가야왕궁지, 주산성 기와, 성벽(건판035636), ④고령 전 대가야왕궁지(건판 27194), 고령 어정(이마니시 촬영, 건판31177)

-자료 :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 1.3 설화로 본 고령

#### □ 정견모주 신화

- 고령의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뉘며, 그 중 신화와 전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대가야의 수도였던 고령은 대가야와 관련하여 고령 지방에서 전하는 독특한 건국신화인 「가야산신감생설(伽倻山神感生說)」(일명, 「정견모주설(正見母主說)」) 대표적임. 정견모주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의 고령현에 인용된 최치원의 「석이정전(釋利貞傳)」에 실려 있음.
-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가야를 지켜 주는 신성한 가야산에는 산신(山神)이 있었고, 그 산신이 정견모주로 천신 이비가와 혼인하여 대가야의 뇌질주일(이진아시왕)과 뇌질청예(금관가야 수로왕)을 낳았다고 전함.

…최치원(崔致遠)의 「석이정전(釋利貞傳)」에 이르기를 가야산신정견모주(正見母主)는 천신 이비가지(夷毗訶之)에게 감응되어 대가야와 뇌질주일(惱窒朱日)과 금관국(金官國) 왕 뇌질청예(惱窒靑裔) 두 사람을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뇌질주일은 곧 이진아시왕의 별칭이 되고 청예는 수로왕(首露王)의 별칭이 된다. 그러나 [최치원의 말은] 가락국(駕洛國) 고기(古記)의 여섯 알[六卵] 전설과 더불어 모두 허황되어 믿을 수 없다. 또 [최치원의] 「석순응전(釋順應傳)」에 이르기를 대가야국의 월광태자(月光太子)는 정견(正見)의 10세손이다, 아버지는 이뇌왕(異腦王)인데, 신라에 구혼하여 이찬(迎夷粲) 비지배(比枝輩)의 딸을 맞아 태자를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뇌왕은 곧 뇌질주일의 8세손이다. …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의 고령현

- 정견모주설(正見母主說)」은 고령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대가야 건국을 이야기하

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만의 특색있는 지역성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정견모주를 가야산신으로 여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존 고도 관련 설화와 특이점을 확인함. 「정견모주설」에서 천신인 ‘이비가’가 등장하지만, 실제로 이야기의 초점은 산신인 ‘정견모주’에게 맞추어져 있음. 대표적으로 「석순응전」에서 대가야국 월광태자(月光太子)를 남신인 ‘이비가의 10세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견의 10세손’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여성 시조의 역할이 강조된 것을 확인함.

- 이는, 신라의 ‘난생설화’나 백제의 ‘온조설화·용신설화’와 또 다른 특징으로 보여지며, 동시에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신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신화」처럼 「정견모주 신화」가 정착의 의미가 강한 산신의 권위가 강조된 부분으로서 가야산신 정견모주에 대한 고령 사람들의 뿌리 깊은 숭배 의식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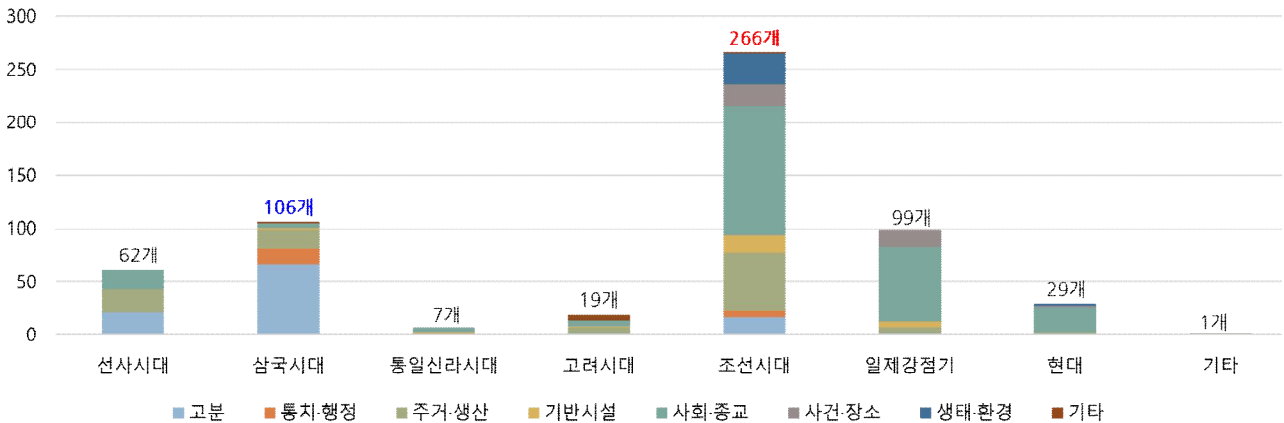


▲「신증동국여지승람」권 29 고령현의 「석이정전」 부분 발췌  
-자료 : 한국고전종합DB

## 2. 고령의 문화재 현황

### 2.1 고령의 문화재 분포 현황

- 고령에 분포하고 있는 유산(지정/비지정 포괄)은 총 589개로 확인됨. 지정문화재가 41개(7.0%), 비지정문화재가 548개(93.0%)로, 비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의 약 14배 이상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고령의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자료가 14개(34.1%)로 가장 많고, 시·도지정문화재 15개(36.6%), 국가지정문화재 10개(24.4%), 등록문화재 2개(4.9%)로 확인됨.
- 고령의 비지정문화재<sup>7)</sup>는 「경상북도고령군조례」의 ‘향토문화유산’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통사찰’, 그 외 ‘일반동산문화재’, ‘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548개가 차지함. 이 중 향토문화유산은 13개(나씨할매릉 외 12개), 전통사찰은 2개(반룡사, 관음사)가 지정되어 있음.
- 조선시대에 조성된 문화재가 266개(45.2%)로 가장 많고, 삼국시대(대가야) 106개(18.0%), 일제강점기 99개(16.8%), 선사시대 62개(10.5%), 현대 29개(4.9%), 고려시대 19개(3.2%), 통일신라시대 7개(1.2%), 기타 1개(0.2%)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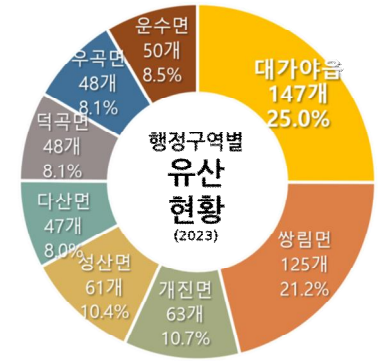
#### ▲고령 소재 문화재의 시대별·유형별(고도 구성요소) 분포현황

-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대가야읍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가 147개(25.05%)로 전체 고령군 소재 문화재의 1/4이 분포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쌍림면은 125개(21.2%), 개진면 63개(10.7%), 성산면 61개(10.4%), 운수면 48개(8.1%)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 주로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고도의 구성요소들이 두루 분포하며, 대가야 핵심유적이 밀집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대가야를 대표하는 지산동 고분군은 왕족 및

7)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하며, 일반동산문화재 및 매장문화재를 포함함.(문화재청 누리집)

귀족 계층의 피장자가 매장되어 있는 가야의 가장 거대한 고분군으로 가시성이 뛰어난 높은 구릉지 위에 밀집되어 있음.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의 최전성기를 보여주는 핵심유적으로 현재 세계유산(「가야고분군」)으로 지정되었음.

- 그 주변으로 통치·행정시설인 고령 주산성과 전 대가야 궁성지(현 고령향교)가 위치하며, 가마터(도요지 등) 생산유적이 위치함. 당시 주거생활을 유추할 수 있는 지산리 주거유적 등 주거생활유적 또한 다수 발굴됨. 대가야읍에 분포하고 있는 유산들은 대가야의 위상과 함께 고령군의 역사적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고령군 행정구역별 유산현황

## 2.2 대가야 핵심유적

### 가. (전)대가야 궁성지

- (전)대가야 궁성지는 지산동 고분군과 주산성이 소재하는 주산에서 동쪽의 읍소재지 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이 평지에 닿은 설상대지 일대에 위치함. 이 설상대지는 전체적으로 긴 타원형을 이루고, 동쪽이 넓고 서쪽이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음.



▲상공에서 바로 본 (전)대가야 궁성지의 모습





▲(전)대가야 궁성지의 발굴현장 모습



- 대가야의 궁성과 관련하여 『삼국사기』부터 조선시대의 문헌자료에서 확인됨. 『삼국사기』 권 제44 열전 제 사다함조의 대가야 멸망과 관련한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진흥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하여 가라국(加羅國)[加耶國으로도 썼다]을 습격하게 하였다.----- 그 나라 경계에 이르자 원수에게 청하여 그 휘하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전단량** [旃檀梁은 성문의 이름이다. 가라의 말로 문(門)을 량(梁)이라고 했다고 한다]으로 들어갔다. 그 나라 사람들이 뜻밖에 군사가 쳐들어옴을 보고 놀라 막지 못하였으므로, 대군이 승세를 타서 드디어 그 나라를 멸하였다....’<sup>8)</sup>
- 여기에 나오는 ‘전단량’은 대가야 궁성 또는 왕도와 관련한 출입시설로 추정됨. 물을 교량·다리·돌보 등을 의미하는 ‘량(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궁성이나 왕도 주변에 물(방어시설인 해자 등)을 건너는 다리로 만들 출입시설이 있었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음.<sup>9)</sup>
- 조선시대 문헌자료 중 『신증동국여지승람』, 『동사강목』, 『고령지』에서도 대가야 궁성지와 관련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음. 다음 표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이후에는 대체로 대가야 궁궐은 관아지에서 남쪽 1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옮겨진 향교터가 옛 대가야의 궁궐터로 인식되고 있음.

▼대가야 궁성지 관련 문헌기록

번호	내용	원문	문헌자료명
1	현의 남쪽 일리에 대가야 궁성지가 있고 그 옆에 우물이 있는데, 어정(御井)이라고 전한다.	…縣南一里有大伽倻宮闕遺址 基傍有石井俗傳御井.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고령현 고적조
2	고령현 남쪽 1리에 대가야의 궁궐유지가 있고, 또 현의 서쪽 2리쯤에 옛 무덤이 있는데 속칭 금령왕릉이라고 한다.	…按今高靈縣南一里 有大加耶宮闕遺址 又縣西二里許 有古藏俗稱錦村王陵. …	『동사강목』 제3상 임오 신라 진흥왕 23년
3	읍치 내 어정이 둘 있는데, 하나는 남쪽 1리에 있는데 곧 옛 궁궐터라고 전해오는 곳이다. 하나는 북쪽 활 한마당 거리 곧 동부의 동쪽에 있는데, 물이 돌 웅덩이에서 나온다. 또 왕후정이라 이름하야 대가야국왕 식정이라고 전한다.	…邑治內稱御井者有二 一在南一里 卽所傳古宮闕之址 一在衙一弓許 卽東阜之東 水生石坎之中 又名王後井 傳說謂大伽倻國王食井. …	『고령지』 상, 고적, 어정
4	향교의 터를 개척할 때 옥기와와 다듬은 초석이 땅속에서 나왔고, 향교가 완성되자 흰 까치가 날아오는 영화가 있었다. 당시 의논으로는 기와와 초석은 예전 향교터의 것이고 까치로서 기쁨에 보응한 것이므로 모두 이적이라 하였다. 하지만 동사에 의하면 <b>고령은 신라와 함께 가야국 왕도였으므로, 옥기와와 다듬은 초석은 왕의 궁궐에 쓰인 건축물일 것이다.</b>	…按壬午移建記 開基時得玉瓦鍊礎於土中 廟成有白鵲來華 時論以瓦礎爲舊廟址 以鵲爲報喜之應 蓋異蹟也 然據東史 靈在羅爲伽倻國都 瓦之玉礎之鍊者 似是王者宮殿物. …	『학양집』 권5 기묘현학 중수기
5	이곳으로 향교를 이건할 당시 땅을 개척할 때 옥기와, 다듬은 초석, 부서진 벽돌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移建于此 開拓之際 玉瓦鍊礎破壁露出. …	『고령지』 상, 교원, 임오 [안숙종조] 2월

8) ‘真興王命伊浪異斯夫 襲加羅[一作 加耶國]時 斯多舍年十五六 請從軍 王以幼少不許 其請動而志確 遂命爲貴幢裨將 其徒從之者亦衆 及抵其國界 請於元帥 領麾下兵先入旃檀梁[旃檀梁城門名 加羅語謂門爲梁云] 其國人不意兵猝至 驚動不能禦 大兵乘之 遂滅其國 泊師還 王策功 賜加羅人口三百 受已皆放無一留者 又賜田固辭 王強之 請賜闕川不毛之地而已.’ 『三國史記』 卷第四十四 列傳 第四 斯多舍

9) 정동락, 「고령지역 산성의 분포현황」, 『대가야의 고분과 산성』, 대가야박물관·(재)대동문화재연구원

- 최근까지 대가야 궁성의 위치 및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시·발굴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음. 대가야 궁성은 2000년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시·발굴조사를 통해 대벽건물지와 와즙건물지가 조사되면서 그 실체가 처음으로 확인되임. 또한 2016~2017년 실시된 연조리 594-4번지 일대 설상대지의 북사면에 대한 표본 및 발굴조사를 통해 궁성의 방어시설인 구상유구(해자)와 토성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면서 연조리 일대가 대가야 왕성의 중심지임이 확실시되고 있음.<sup>10)</sup>
- 대벽건물지는 벽체시설이 주주와 간주로 구성되어 있고, 2기의 대형 부둣막이 설치되었으며, 앞 부분이 개방된 주방과 같은 성격의 건축물로 특수한 목적의 건축물로 추정되고 있음. 대벽건물지는 백제의 왕도였던 웅진의 공산성 및 왕실제사시설인 정지산 유적에서 확인된 것과 조성시기나 형태가 유사하고, 부여 화지산, 군수리 유적에서도 조사된 바 있는 특수한 시설에 축조된 건축물로 이해됨.<sup>11)</sup> 와즙건물지는 6세기 중엽경의 유구로 확인됨.<sup>12)</sup>
- 또한, 2016~2017년 실시된 연조리 594-4번지 일대 설상대지의 북사면에 대한 표본 및 발굴조사를 통해 궁성의 방어시설인 구상유구(해자)와 토성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된 바 있음. 해자의 규모는 남북 폭이 7m, 동서길이가 14.3m, 깊이 0.69m로, 해자를 조성하기 위해 경사면 북쪽에 기단석열을 먼저 쌓고, 흙을 뒷채움 한 후 성토면 일부를 굴착한 것으로 확인됨.
- 토성벽은 할석을 2~3단 쌓고 상부는 판축으로 조성하였음. 석연은 기초부로 3열이 확인됨. 성토범위로 본 외성벽의 폭은 5.55m이고, 성벽 내에서 영정주로 추정되는 주혈이 일부 확인되었음. 토성벽과 해자의 초축은 출토된 유물로 보아 5세기 후반 정도로 편년됨.<sup>13)</sup>
- 이 밖에, (전)대가야 궁성지가 위치한 대지 동북쪽 말단부의 구신정지(九臣停址) 동쪽으로 연조문(延詔門)과 대가야궁성의 문루(門樓)가 있었다는 주변 주민들의 전언이 있음.<sup>14)</sup>
- 아울러, (전)대가야 궁성지와 인접한 고령 초등학교 내에는 ‘왕정’ 또는 ‘어정’으로 전하는 우물이 조사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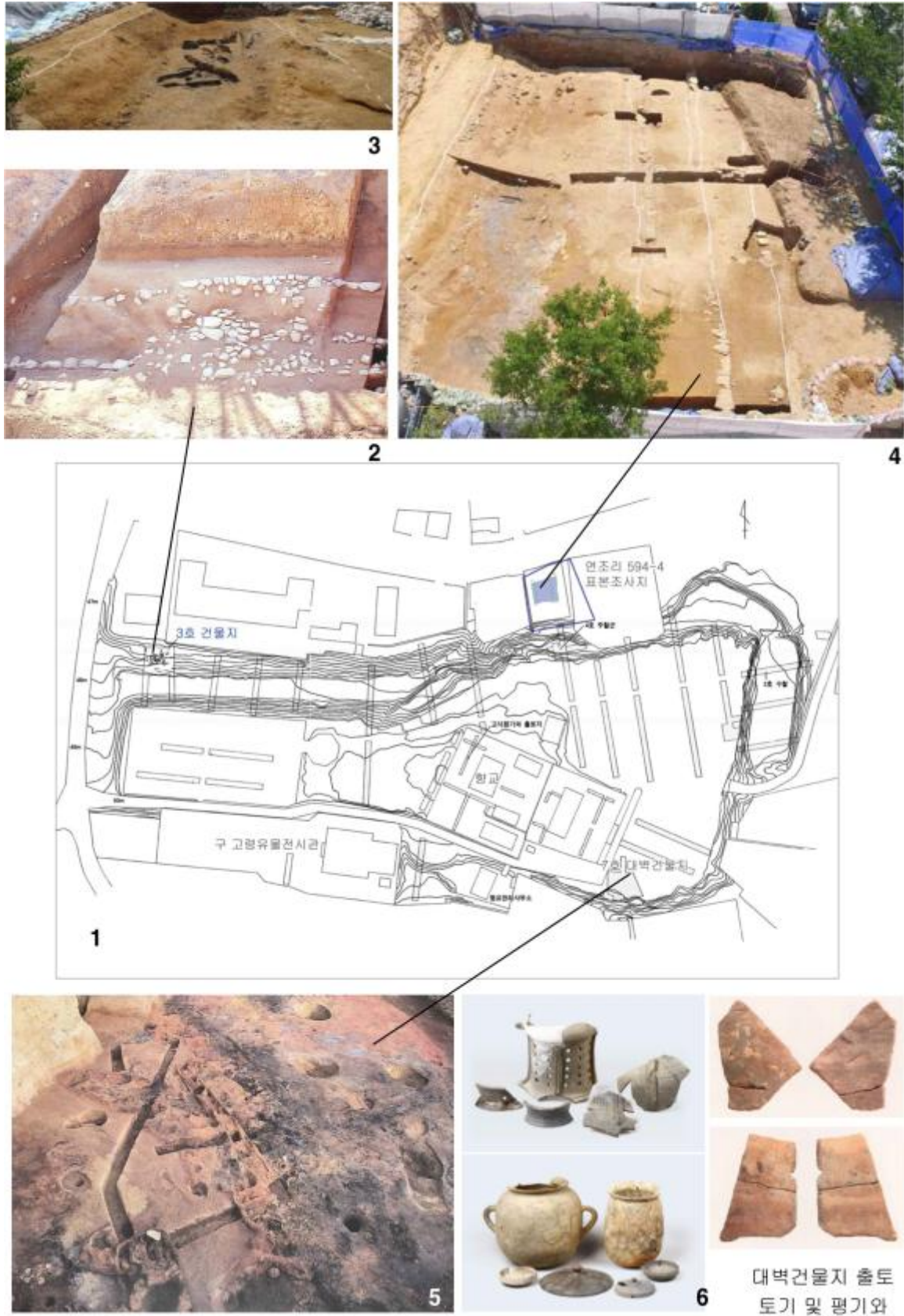
10) 최재현(2021), 「대가야 왕도의 방어체계에 대한 시론」, 『영남고고학』 제89호, 영남고고학회, pp.126-127.; 최경규(2020), 「가야 왕성의 공간구조와 경관」, 『문물연구』 No.38, 동아시아문물연구소, p.32.

11) 최경규(2020), 위의 논문, p.33.; 최재현(2021), 위의 논문, pp.126-127

12) 최경규(2020), 위의 논문, p.33.

13) 최경규(2020), 위의 논문, p.33.

14) 이동희(2018), 「가야의 왕성과 취락」, 『가야고분군연구총서』 제1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p.200



▲전 대가야궁성지 내 유구 분포(1. 전 대가야궁성지 평면도, 2. 3호건물지-토성기단으로 추정, 3. 연조리594-4번지 해자, 4. 연조리 594-4번지 토성벽, 5. 대벽건물지, 6. 대벽건물지 출토유물 ※1:2-5:6 : 경북대박물관 2006, 3-4: 가온문화재연구원 2019)

-자료 : 최경규(2020), 「가야 왕성의 공간구조와 경관」, 『문물연구』 No.38, 동아시아문물연구소, p.32

## 나. 고령 주산성(사적)

- (전)대가야 궁성지와 조합을 이루는 배후산성인 주산성은 대가야 읍내를 서쪽에서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고령의 진산인 주산에 축조된 테뫼식 석축산성임. 북고남저의 지형을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하였는데, 정상부(해발 310m)에 내성이 위치하고, 6부 능선상인 해발 175~185m 부근을 따라 외성이 축조되어 있는 내·외 이중성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주산성은 (전)대가야 궁성지와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고, 왕궁을 방어하기 위한 배후산성으로 유사시 항전을 위한 성곽이었음. 내·외 이중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산성은 내성의 경우에는 전체 둘레가 약 710m, 외성의 전체 둘레는 1,035m로, 일주 둘레는 1,420m, 총면적은 104,500㎡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산성임.
- 근래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해 성내시설은 치(稚) 3개소, 건물지 2동, 연못 1개소가 확인됨.
- 대가야 산성이라는 구체적 검증을 위해 대동문화재연구원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실시된 고령 주산성의 정비를 위한 발굴조사에서 외성벽, 내탁부, 기초부와 보강부, 출입로, 추정집수지, 물막이시설, 배수시설, 도로 등 성벽과 관련유구가 확인됨. 석축의 축조기법과 상태 등 구조와 대가야 토기 등의 출토유물을 종합적으로 볼 때 6세기 전반 경에 축조된 대가야의 석축산성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임.<sup>15)</sup>
- 주산성은 위기시 대피성의 기능을 한 것으로 2차례의 정밀발굴조사 결과, 내외성 모두 편축식으로 축조하였고, 내성이 외성보다 늦게 구축된 양상으로 확인됨.
- 주산성 성내 시설로 주목되는 것은 대형 목곽고인데, 대가야 멸망전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됨. 암반층까지 굴착하고 바닥과 벽체에 니질점토 등으로 방수층을 조성하고 각목재를 사용하여 격자사의 골조를 구성하여 축조하였음.
- 목곽고 구축시에 남조적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구조로는 공주 공산성, 대전 월평동 유적, 금산 백령산성, 이천 설성산성 등 백제지역의 성곽에서 확인된 저장시설과 유사한 점 등으로 보아 6세기 무렵 백제와의 관계에서 그 축조 기술이 전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sup>16)</sup>

15) 대동문화재연구원(2014, 『고령 주산성 I』

16) 최경규(2020), 앞의 논문, pp.34-35.





▲고령 주산성의 주요 모습(상 :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하 : 주산성 성벽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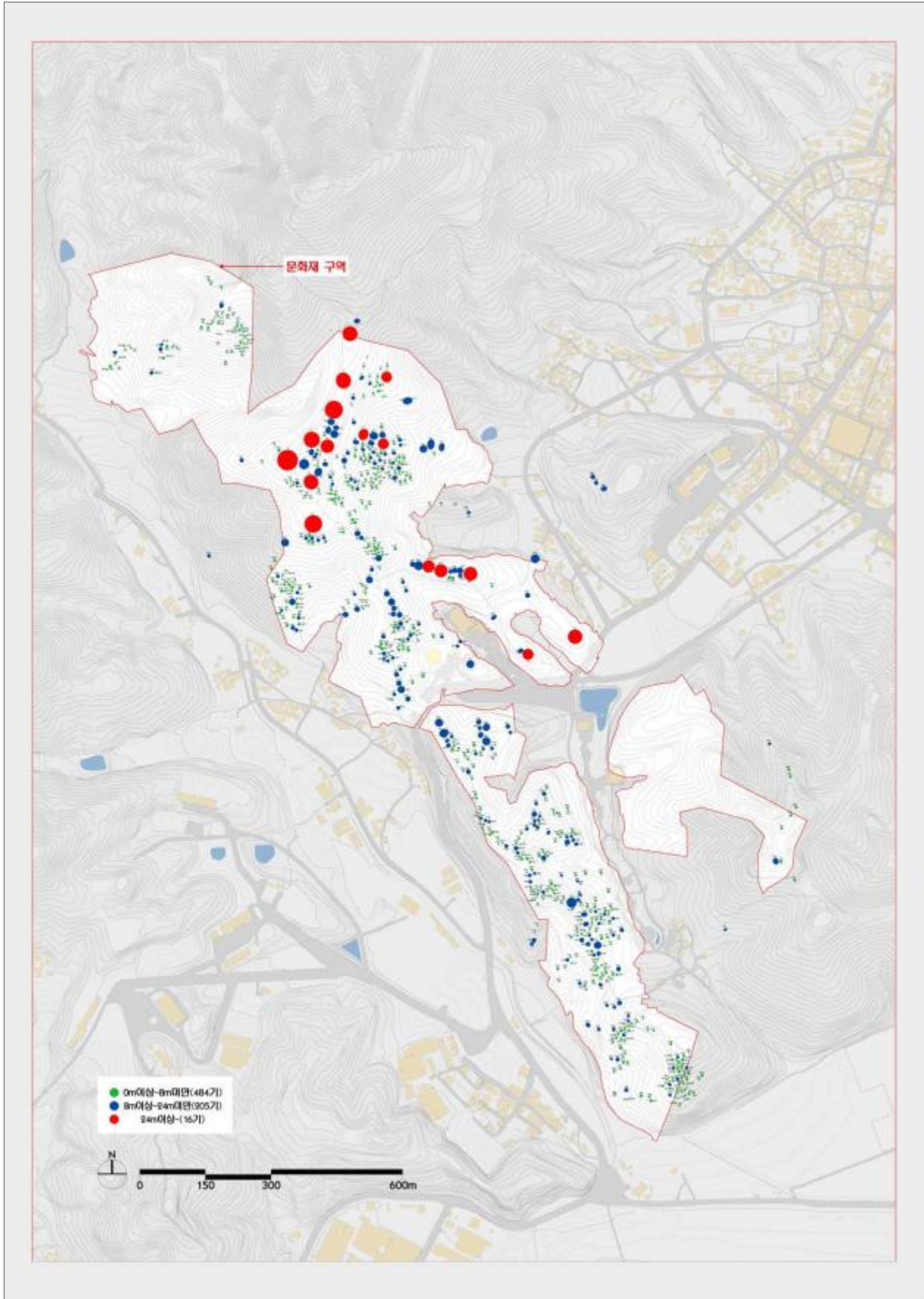
#### 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의 최대 고분군으로, 대가야가 크게 성장하기 시작한 400년경부터 신라에 멸망하는 562년 사이에 조성됨.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의 왕도였던 고령군 대가야읍을 병풍처럼 감싸는 진산인 주산(310m)의 남쪽으로 뻗은 주능선과 읍내쪽으로 뻗어내린 가지 능선 위에 밀집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고, 현재까지 704기의 봉토분이 조사됨.
- 주요제는 구덩식 돌덧널무덤(竪穴式石槨墳)이고, 고분군은 길이 2.4km, 너비 100~200m 면적 830,181m<sup>2</sup>의 넓은 범위에 분포함. 주산성에 접한 해발 160~180m 사이에는 직경 20m 이상의 대형분, 해발 100~160m 사이에는 직경 10~15m의 중형분이 집중 분포하고 있음. 그리고 평지에 가까운 능선 하단부에도 고아리벽화고분을 비롯한 대형분이 2~3기 가량 있고, 봉분이 없는 소형 무덤은 능선의 높이와 관계없이 대형분 주위와 능선 사면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
- 직경을 기준으로 봉토분의 규모를 살펴보면 40m 이상 1기, 40~30m 5기, 30~25m 6기, 25~20m 7기, 20~15m 18기, 15~10m 85기, 10~7m 271기, 7m 미만 311기로 파악됨.<sup>17)</sup> 그 외에 소형 석곽묘 등을 포함한다면 전체 고분은 수 만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대부분은 원형의 단분이지만, 연접봉분을 이룬 경우가 33기, 가능성이 고려되는 것이 4기 정도임.
-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뿐만이 아니라 가야지역 최대 규모의 고분군으로 이승과 저승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내세사상과 순장을 비롯한 장례문화, 탁월한 경관과 우수한 토목기술을 확인할 수 있음.<sup>18)</sup> 지산동 고분군에서는 대가야의 특징적인 토기와 철기, 말갖춤을 비롯하여 금동관과 금귀걸이 등 화려한 장신구가 출토되었음.
- 구체적으로, 1978년에 고령 지산동32~35호분을 발굴조사 하였는데, 여기서 대가야 금동관과 갑옷, 투구 일습이 출토되어 가야문화가 신라, 백제문화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이었음을 증명하게 되었음. 또한 여기서도 주석실외에 1기의 순장곽을 가진 묘제가 확인됨으로써 순장이 대가야고분의 큰 특징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다른 지역의 고분에서 순장 묘제를 확인하는 기초가 되었음. 따라서, 대가야 묘제와 순장은 가야 전체는 물론 고대 신라 지역이었던 대구, 경산, 의성, 창녕 등 고총고분 지역의 중요한 고고학적 관심주제가 되었음.<sup>19)</sup>

17) 정동락·박일찬(2018), 「고령 지산동 고분군 보존관리 방안」, 『가야고분군의 보존·관리·활용 방안』, p.3.

18) 정동락(2022), 「傳 고령 출토 가야금관의 출토지」, 『문물연구』, 동아시아문물연구소, p.11.

19) 김세기(2019), 「고고학으로 본 가야의 개념과 영역」, 『한국고대사연구』 94호, pp.7-8.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문화재구역과 봉토분 분포현황 및 규모

-자료 : 정동락·박일찬(2018), 「고령 지산동 고분군 보존관리 방안」, 『가야고분군의 보존·관리·활용 방안』, p.4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주요 모습(주능선과 가지능선의 고분군)

-자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주요 모습

-자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라.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은 지산동 고분군 최남단의 해발 166.5m 야산 정상부로부터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나지막한 산등성이에 입지한 10여 기의 고분 중 하나로, 무덤 내에 벽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가야 지역 내 유일한 무덤임.
- 고아리 벽화고분은 동서길이 약 25m, 남북길이 약 20m의 봉분으로 된 활천장(궁륭식천장)을 가진 굴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분)으로, 유물은 도굴되어 없음. 널방(현실)에는 동쪽에 부인의 관, 서쪽에는 남편의 관이 놓여있고, 바닥 네 변과 관대 사이에는 폭 27~29cm, 깊이 22cm의 도랑을 설치하였음.
- 석실(전체길이 857m, 남북방향)은 경사진 대지위에 입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석실에 자리할 부분을 깎아 평탄하게 만들고 할석으로 벽체를 쌓아 덮개돌을 얹은 후에 봉토를 덮었음.
- 널방의 구조는 평면 장방형의 터널 천정식이고, 우편향의 긴 널길을 갖춘 단실분임. 널방의 규모는 길이 3.75m, 너비 2.82m, 높이 3.12m이고, 벽은 공돌쌓기로 축조하였는데, 벽석은 수평으로 놓고 벽석을 밀착을 위해 납작한 할석을 괴고 돌 사이에는 일종의 모르타르 역할을 위해서 황색 점토를 얇게 깔았음도 확인됨. ○ 덮개 돌은 양측 벽에 내경하여 길게 좁혀진 천정부에 단단하고 넓적한 판석 4매와 양단에 1매씩 더해 총6매로 구성됨. 천정부의 위치가 널방 장축 중앙선상으로 의도하였다고는 보이지만, 쌓는 과정에서 서측벽의 내경도가 커져서 북쪽에서 11cm 정도, 남쪽에서 20cm 정도 동편으로 치우쳐짐. 전체적으로 벽면에는 패분과 백토로 미장하였고, 천정 돌의 연결 틈을 포함한 모든 석재의 틈을 이런 종류의 재료로 메우면서 두텁게 바른 것으로 확인됨. 20)
- 고령 고아동 고분벽화는 벽화가 대부분 탈락되고 그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은 널방 천정과 널길 천정에 남아있는 문양들임. 특히 널방과 널길의 덮개 돌에는 홍색·녹색·흑색·갈색 안료로 그린 8엽의 복합 연화문만이 남아 있다. 남벽에도 일부 채색 흔적이 있는데, 당초문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널길의 동벽 아랫부분에도 홍색과 흑색의 당초문의 일부로 여겨지는 그림이 남아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움. 원래 고분의 벽면과 천정 모두에는 벽화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이 연화문들은 대체로 백제 지역의 무령왕릉 출토탁잔 뚜껑의 연화문, 왕비 두침의 연화문, 능산리 동하총의 연화문 등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21)
- 고아리 벽화고분은 천장의 축조방법이나 바닥의 도랑 등이 백제지방 무덤 방식과 비슷하여 가야지방에 백제문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

20) 정호섭(2014) , 「가야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의 조영과 성격」, 『선사와 고대』 제40호, 한국고대학회, p.172.

21) 정호섭(2014), 위의 논문, pp.178-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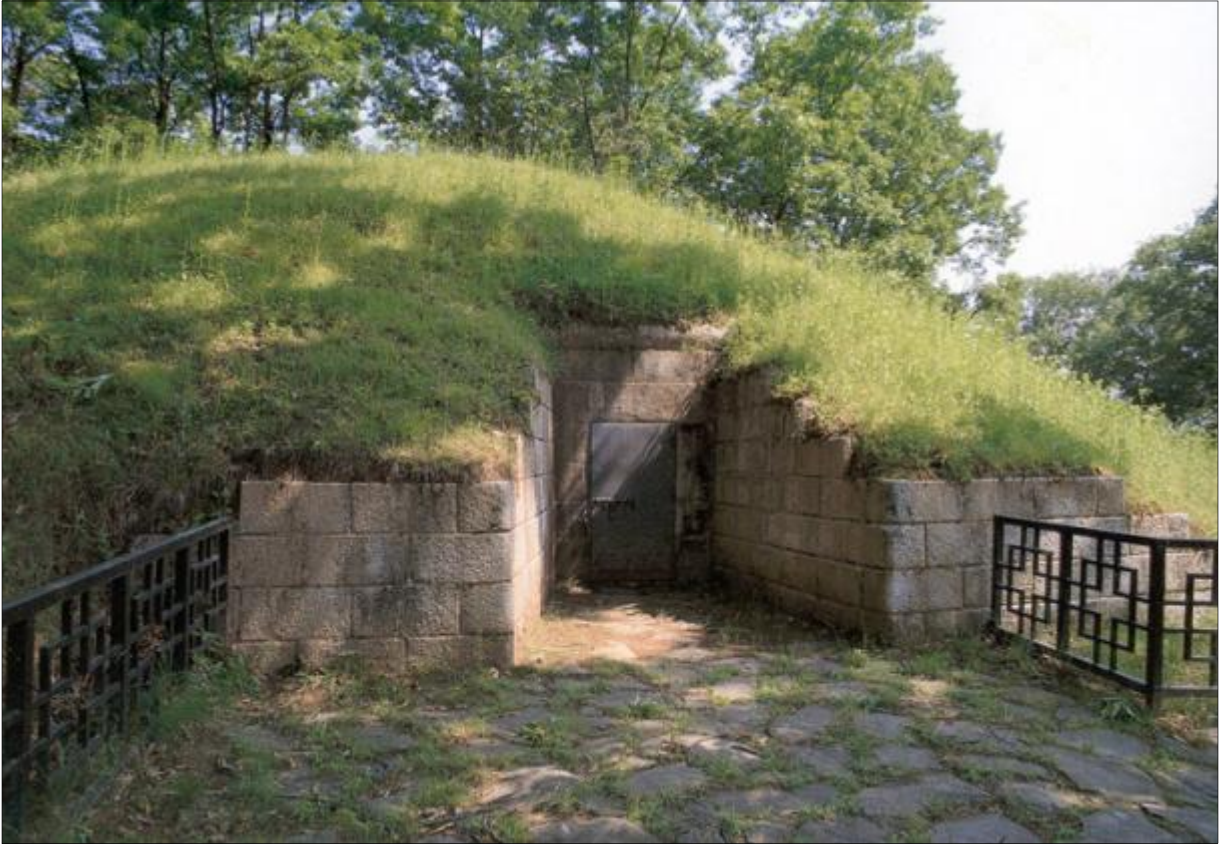


▲상공에서 바라본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의 전경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의 주요 모습  
-자료 : 문화재청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주요 모습  
-자료 :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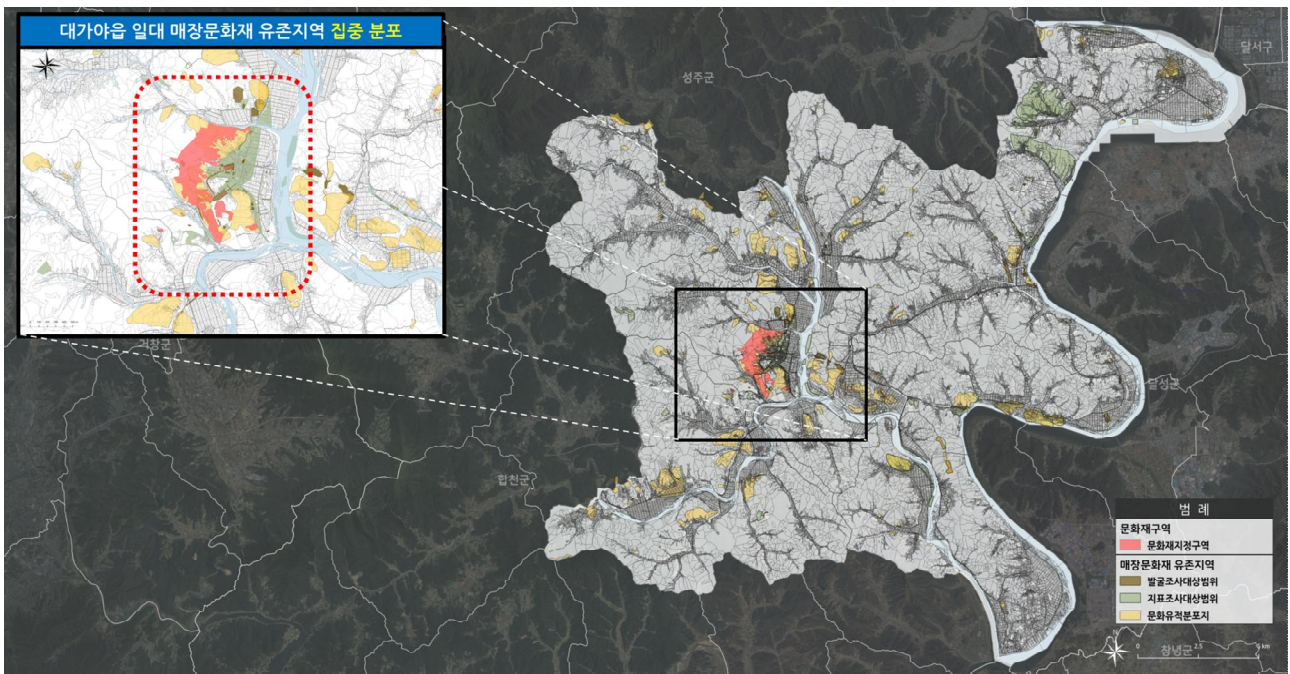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내부 천장 벽화  
-자료 : 문화재청



### 2.3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 고령군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27.1km<sup>2</sup>이며, 고령군의 전체 면적 대비 7.0%를 차지함. 행정구역별로는 대가야읍이 25.4%(6.8km<sup>2</sup>), 다산면 23.5%(6.3km<sup>2</sup>), 쌍림면 15.9%(6.0km<sup>2</sup>), 개진면 13.8%(3.7km<sup>2</sup>), 운수면 8.0%(2.1km<sup>2</sup>), 성산면 4.9%(1.3km<sup>2</sup>), 우곡면 4.0%(1.1km<sup>2</sup>), 덕곡면 3.3%(0.9km<sup>2</sup>) 순으로 확인됨.
- 주로 대가야읍에 매장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는데, 주산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가야고분군의 57.7%가 밀집되어 있으며, 그 주변으로 광범위하게 고분군 유적이 분포되어 있음.
- 최근 연조리 고분군 제1·2호분의 발굴조사를 통해 대가야의 제의시설임을 확인하고('22)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제의시설과 관련된 토석제단 및 배례공간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주거·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마터의 유적 분포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가마의 집중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인데, 대부분의 가마가 특정한 읍면별로 치중하여 분포하는 경향을 보임.<sup>22)</sup> 대가야시기에 성행했던 토기 요지는 대부분 대가야읍에 밀집·분포되어 있음.
- 고령군은 도시개발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하구조물 없이 근린생활시설이 축조되어 있어 원지형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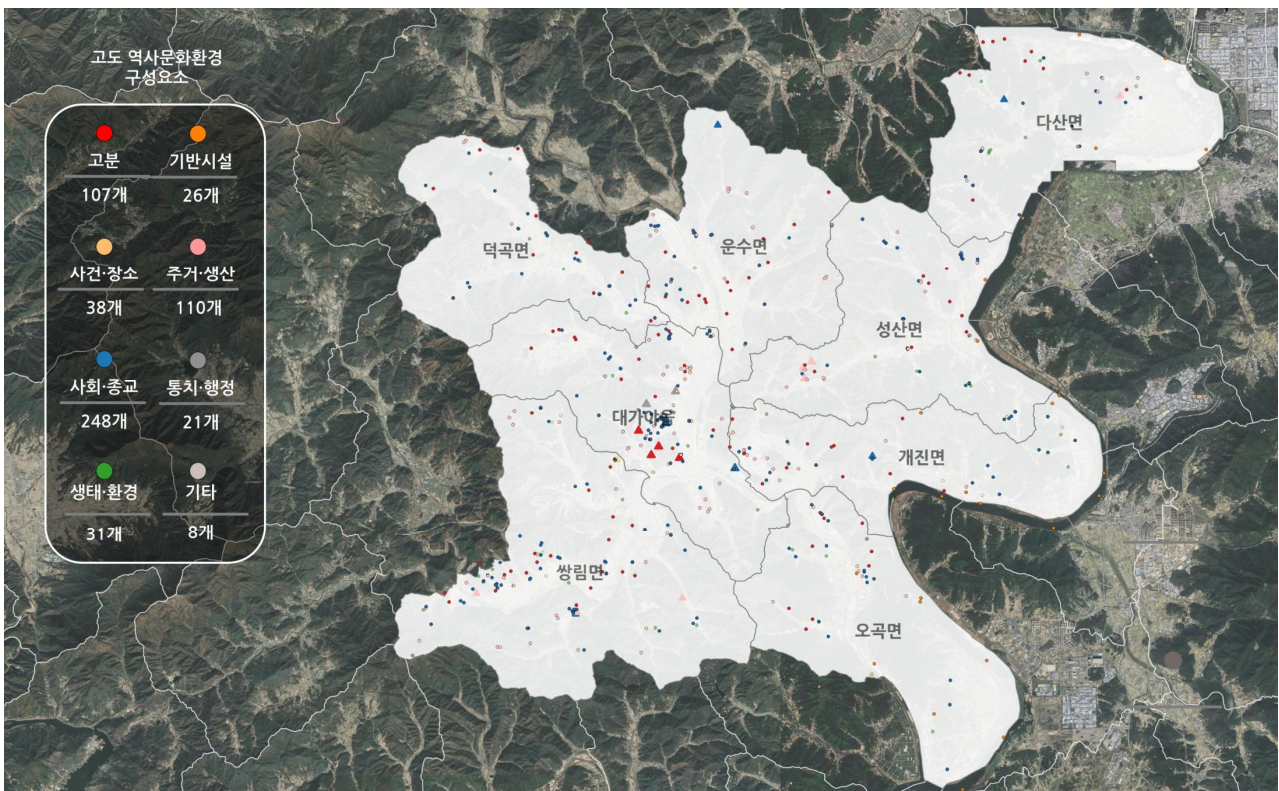


▲고령군의 매장문화재 유존지 분포현황

22) 고령문화원(2022), 『고령의 가마터 유적』, p.207

## 2.4 고령 대가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구성요소 분포 현황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사회·종교 유형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258개로, 전체의 43.8%의 비중을 차지함. 이는 선사시대의 암각유적부터 숫돌유적, 사찰(터), 탑·비·불상과 조선시대에 성행하였던 서원, 사우(재실), 기적비, 종택과 관련 고문서 등이 포함됨. 주거·생산은 102개(17.3%)로 전통가옥과 기와생산도구, 우물, 주거유적 등이 있으며, 가마터(도요지)와 관련된 유물산포지가 포함됨. 고분은 106개(18.0%)로 삼국시대에 조성된 고분군이 대다수이며, 지석묘, 석곽묘 등이 있음. 사건·장소 38개(6.5%)는 전적지, 인물·사건유적과 관련된 것으로 유적지, 비 등이 확인됨.
- 고령군은 대가야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대가야 고도의 골격을 형성하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역사문화자원이 종합적으로 확인되며, 특히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대가야 핵심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고도로서의 역사문화경관이 잘 나타남. 그 외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다양한 시대적 층위를 이루는 역사적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음.



### ▲고령군의 고도 역사문화환경 구성요소별 분포현황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은 크게 고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분됨. 고도의 자연환경은 고령의 입지배경 및 자연경관에 해당되는 요소로 대가야 왕도의 입지요건이자 현재까지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이어져올 수 있는 지형적 조건에 해당됨.



- 고령군의 경계로부터 가야산과 만대산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서 뺏어나온 주산의 내맥이 이어지는 곳에 전 대가야 궁성지가 입지함. 배후에는 주산성이 조성됨으로서 대가야 왕도의 도성체계(평지궁성+배후산성)가 성립될 수 있었음. 전면에는 소가천과 대가천인 낙동강이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방어를 할 수 있는 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천연의 요새지임을 알 수 있음.
- 고도의 인문환경은 물리적 특성에 따라 유·무형적 역사문화자원으로 구분되고, 시대적으로도 구분 가능함. 유형적 역사문화자원으로는 ‘통치·행정’, ‘기반시설’, ‘사회·종교시설’, ‘고분’, ‘주거·생산’로 나뉘며, 무형적 역사문화자원으로는 ‘사건·장소’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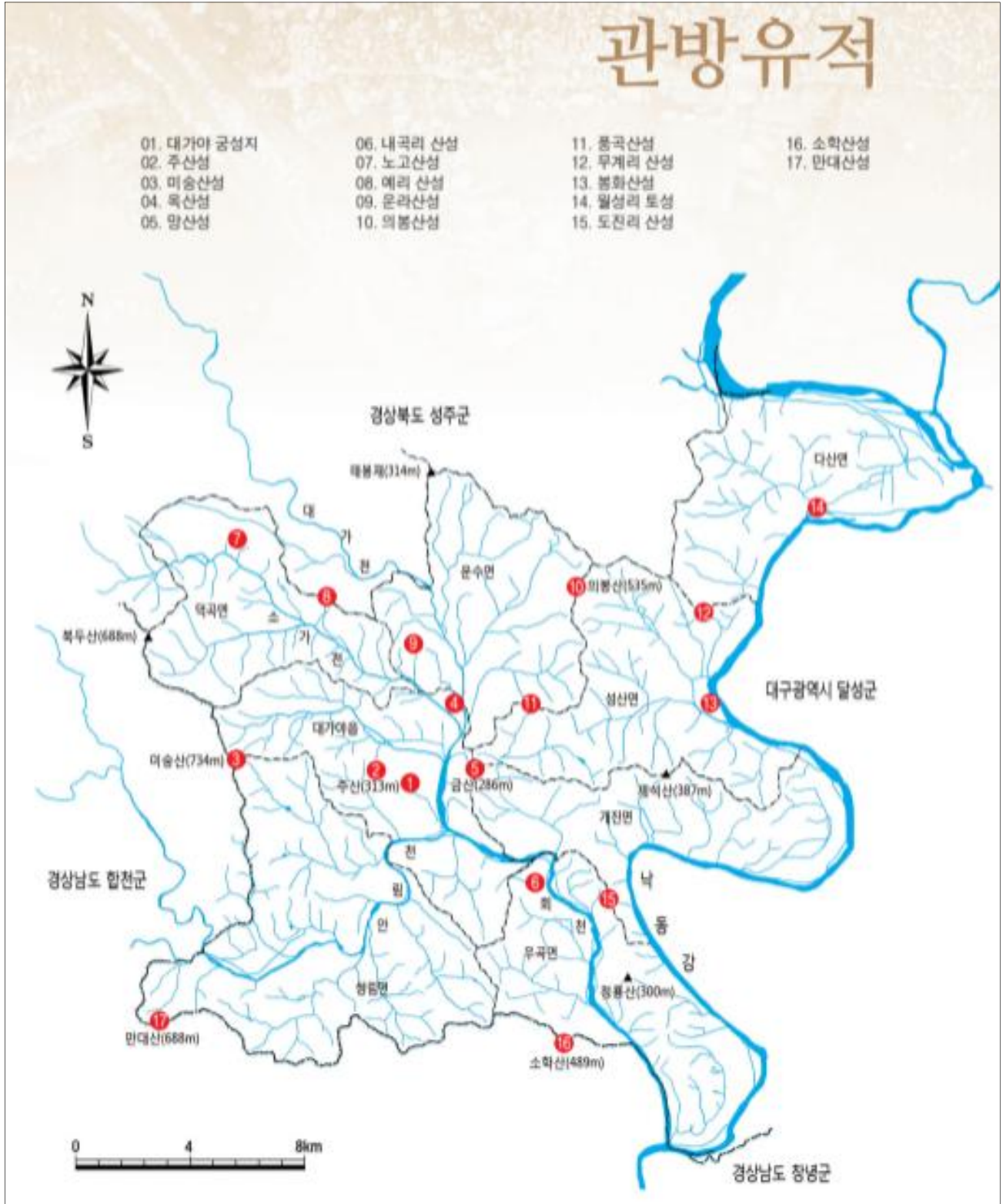
### 가. 통치·행정

- 통치·행정 유형의 역사문화자원은 통치영역의 구분을 위한 안보시설과 궁성 및 관아시설(객사 등) 등으로 통치·행정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는 시설이 입지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고령 주산성과 전 대가야 궁성지 등이 해당되고, 그 외 통치·행정 역사문화자원으로 쾌빈리 객사터, 고령 본관리 성터, 내곡리 산성과 봉수지(의봉산, 봉화산, 망산) 등이 있음.
- 특히, 고령지역에는 합천군 북비지역의 3개소의 산성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20개소의 산성이 확인되고 있음. 대가천 유역과 낙동강 유역에 성곽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신라가 대구, 현풍, 창녕지역에 성곽을 축조함에 따른 갈등의 결과물로 이해됨. 이러한 산성의 기능은 대가야읍의 왕성방어가 주목적이었을 것임.<sup>23)</sup>
- 주산성 및 내곡리 산성, 봉수지 등 다양한 규모적 특성을 지닌 산성과 봉수유적은 도성 내 궁성 및 관아시설과 관문을 지키는 관문성이자 방비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지닌 관방유적에 해당됨.

### 나. 기반시설

- 기반시설 유형의 역사문화자원은 낙동강변에 인접하여 나루를 통하여 고령과 외부를 연결하는 수로 교통과 관련된 유적으로, 교통의 중계지이자 교역장이면서 도자기와 기와의 반출지 등을 목적으로 한 시설임. 대표적으로 개포 나루터와 고령 연리유물산포지 등이 있음.

23) 최경규(2020), 앞의 논문, pp.36-37.



□ 사회·종교

- 사회·종교 유형의 역사문화자원은 선사시대의 암각화(청동기)부터 사찰의 부속시설(탑·비·불상), 서원, 사우 및 향교가 해당되며 당시 사회의 신앙적·종교적 역할



로서 공동체 사회의 결집이나 유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 해당되는 시설임. 대표적으로 청동기 시대의 고령 장기리 암각화와 지산리 바위구멍 유적과 통일신라시대의 지산리 당간지주와 조선시대의 매림서원, 고령향교 등이 있음.

- 최근, 연조리 고분군 발굴조사(2021)를 통해 대가야의 제의시설이 발견됨. 이 제의시설은 상태가 양호한 편은 아니지만, 대가야를 포함한 가야문화권에서 처음 확인되는 제의시설로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대가야의 국가제사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증명해 주는 자료임.<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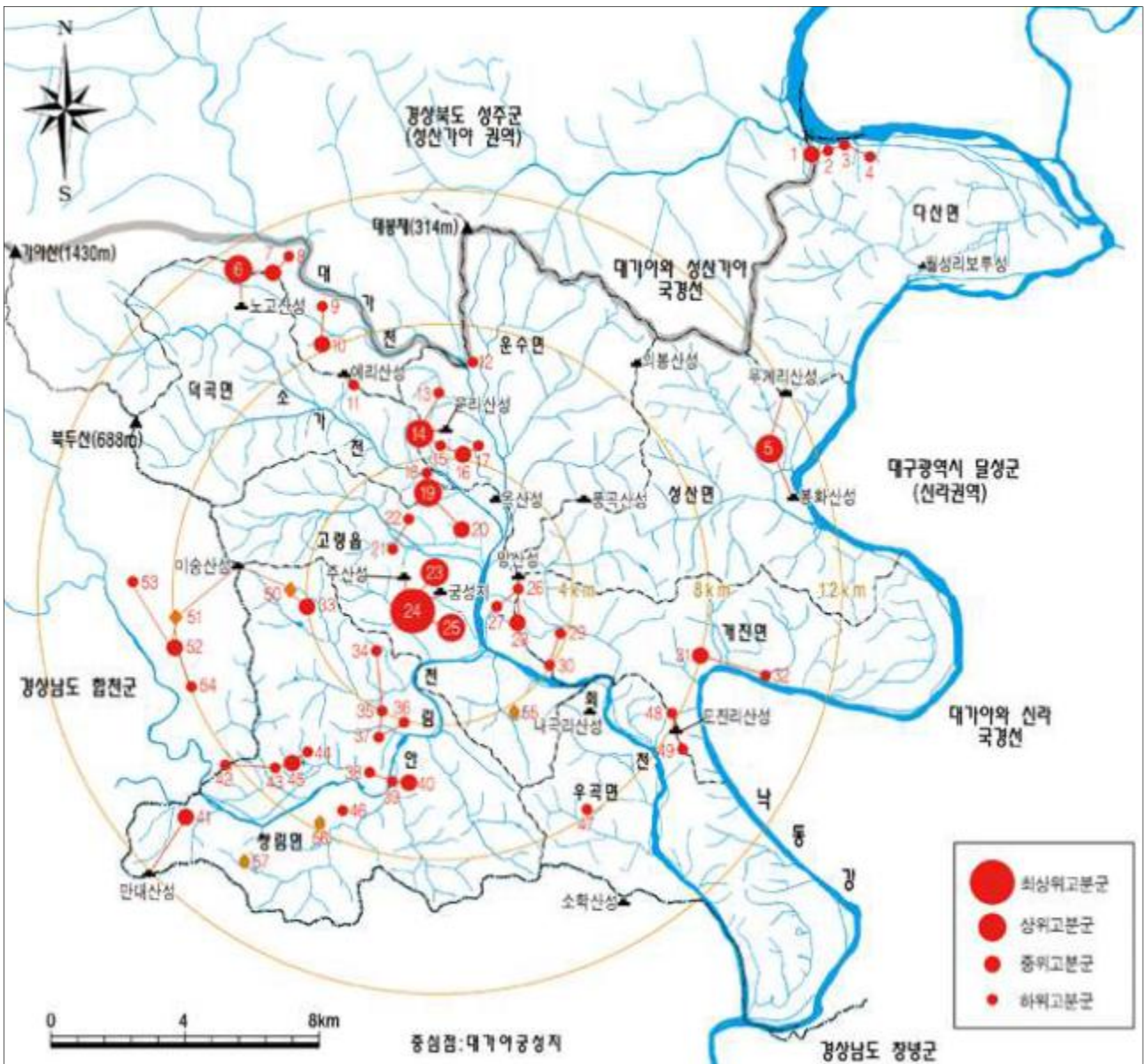
▲제의시설이 발견된 연조리 고분군 발굴조사 모습

24) 아틀라스뉴스(<http://www.atlasnews.co.kr>)



### 다. 고분

- 고분은 고대 고도의 역사적 실체이자 당시 내세 사상 및 순장 문화 등을 통해 고대 문명의 성립과 발전, 소멸의 전 과정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으로, ‘고도다움’을 형성하는 랜드마크적 요소에 해당됨.
- 대표적으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고아리 벽화 고분, 본관리 고분군 등이 있음. 특히,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가야 유일의 최다 규모이며, 고아리 벽화 고분은 가야 유일의 벽화 고분으로서 대가야의 주변국(백제)과의 대외교류 관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유적에 해당됨.



▲대가야 중심권역 고분군의 위계와 성격별 관련 유적 분포도

-자료 : 배성혁(2019),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대가야의 건국신화」, 『가야고분군연구총서』 제6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p.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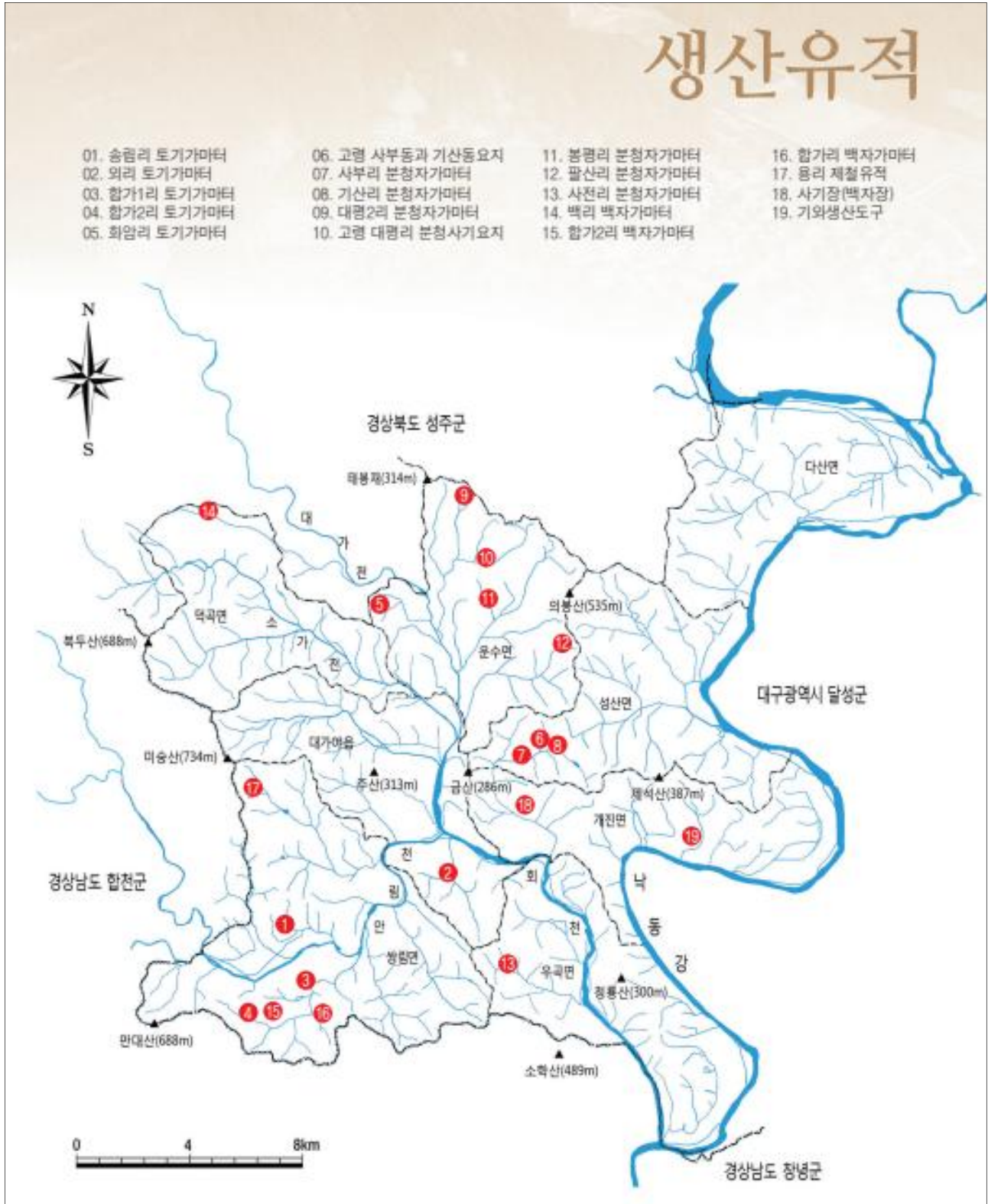
1. 노곡리고분군① 2. 노곡리고분군② 3. 노곡리고분군③ 4. 노곡리고분군④ 5. 박곡리고분군 6. 백리고분군① 7. 백리고분군② 8. 성주 오천리 고분군 9. 성주 계정리고분군Ⅰ 10. 성주 계정리고분군Ⅱ 11. 예리고분군 12. 대평리고분군 13. 화암리고분군 14. 월산리고분군① 15. 월산리고분군② 16. 월산리고분군③ 17. 월산리고분군④ 18. 후암리고분군 19. 본관리고분군 20. 쾌빈리고분군 21. 중화리고분군① 22. 중화리고분군② 23. 연조리고분군 24. 지산동고분군 25. 고아리고분군 26. 장기리고분군① 27. 장기리고분군② 28. 양천리고분군 29. 반운리 와질토기 유적 30. 반운리고분군 31. 개포리고분군 32. 구곡리석곽묘(군) 33. 용리고분군 34. 고곡리고분군 35. 안림리고분군① 36. 안림리고분군② 37. 안림리고분군③ 38. 귀원리고분군 39. 신곡리고분군① 40. 신곡리고분군② 41. 산주리고분군 42. 하거리고분군 43. 산당리고분군 44. 송림리고분군① 45. 송림리고분군② 46. 합가리고분군 47. 사전리고분군 48. 도진리고분군① 49. 도진리고분군②

## 라. 주거·생산

- 주거·생산 유형의 역사문화자원은 고대 왕도로서 기능하기 위한 주거지 및 생산 시설로서, 부장품 및 생활용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릇 등을 공급하였던 생산시설 및 우물 등이 주거 유적에 해당됨. 대표적으로 대가야시기에 조성된 연조리 토기 요지가 있음.
- 지금까지 고령지역에서 확인된 가마터 유적은 총 42개소에 달함. 삼국시대의 토기가마로부터 일제강점기에 수탈의 현장이었던 송탄유가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마터가 분포하고 있음. 그 가운데는 삼국시대에 대가야토기를 생산했던 토기가마 5개소가 있음. 대가야의 토기를 생산한 토기가마는 대가야읍과 쌍림면에 한정됨.
- 구체적으로, (전)대가야궁성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6.5km 떨어진 곳에 송림리 대가야 토기가마가 있고, 안림천 북편으로 발달한 완만한 능선의 동사면부에 입지하여 토기가마 3기와 폐와장이 조사되었음. 토기가마에서 전(塼)이 출토됨에 따라, 대가야 궁성지나 주산성에 보급한 겸업가마로 추정됨. 생산된 주요기종은 개, 배, 고배, 파수부완, 완, 장경호, 호, 발형기대, 통형기대, 저평 통형기대, 고리형기대, 장동옹, 연합누전, 무문전 등으로 고분과 생활물품 전 기종을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음. 조업시기는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으로 편년됨.<sup>25)</sup>
- 또한, 고려시대 토기가마 1개소 등 토기가마 6개소가 있고, 조선시대 전기에 분청사기를 생산했던 분청사기 가마가 12개소 있음. 그리고 주로 조선시대 후기에 지방에서 소비되는 각종생활 용기로서의 백자를 생산했던 백자가마가 9개소 있고, 조선시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옹기가마가 5개소 밝혀짐.
- 아울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기와가마 5개소와 쇠부리가마 2개소를 비롯하여, 삼을 찌서 껍질을 벗기기 위한 삼가마, 숯을 생산했던 숯가마, 일제강점기에 수탈의 증거인 송탄유가마 등이 있음.<sup>26)</sup>

25) 최경규(2020), 앞의 논문, p.35.

- 이 밖에, 누정(樓亭), 그리고 조선 문인들의 고택, 고문서, 보부상의 유품 등이 해당되는데, 대표적으로 만남재, 죽유종택 및 점필재종택, 고령 박씨소윤공파문적, 보부상 유품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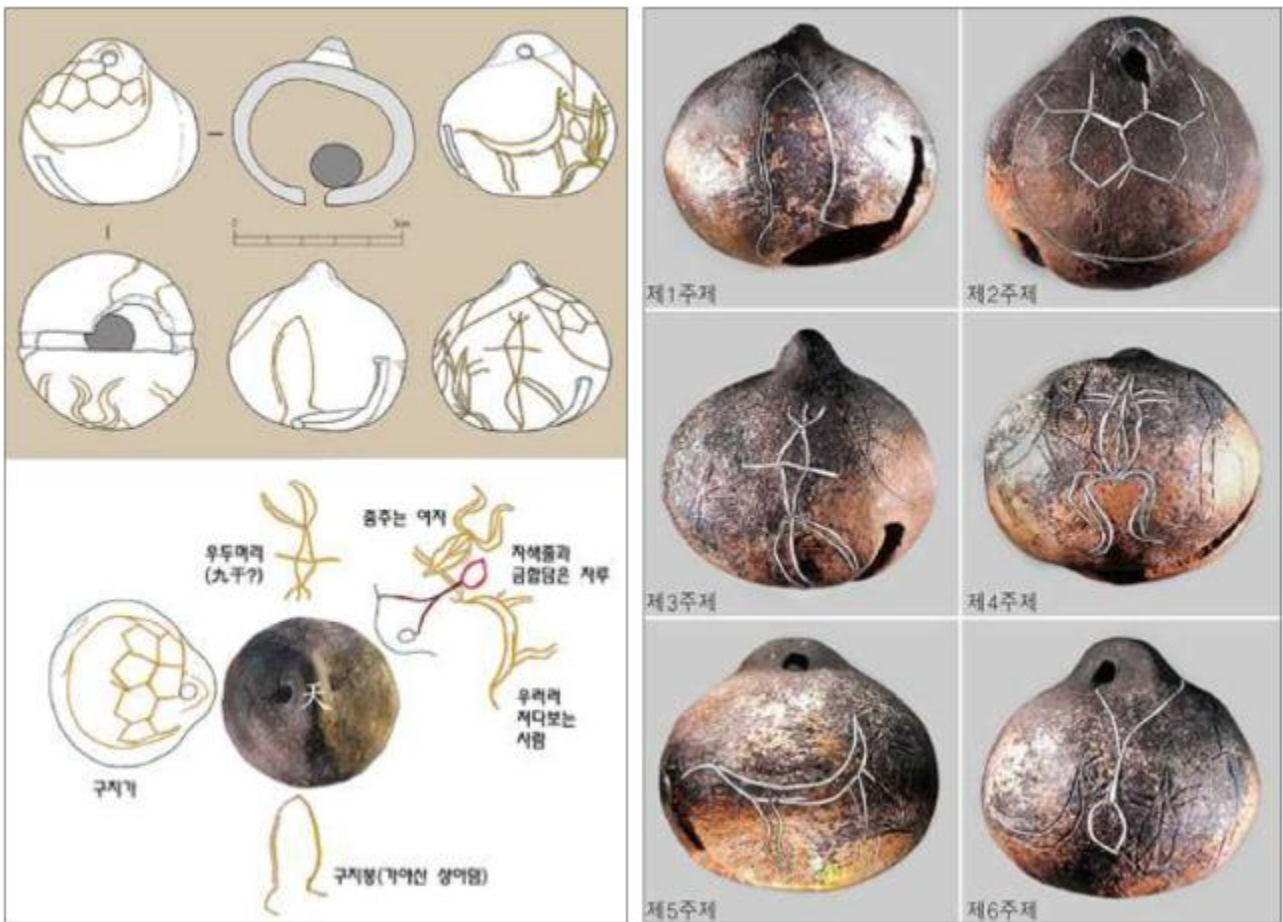


26) 고령문화원(2022), 『고령의 가마터 유적』, 고령문화원, p.28.



마. 사건·장소

- 무형적 요소로서, 사건·장소 유형의 역사문화자원은 대가야의 건국설화인 「정견모주설」이나 옛 가야 구신정과 관련된 구신거리 등이 해당되며, 조선시대에는 김면장군유적이 있음.
- 또한, 2018년 고령 지산동고분군에서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기록된 가야시조의 탄생설화를 형상화한 그림이 새겨진 <토제방울>이 출토되어 대가야 건국신화를 새롭게 해석하게 됨. 이 발견은 문헌에 나오던 건국신화의 모습이 유물에 투영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야국이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탄생설화 형태의 건국신화를 증명해 줄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음.



▲<토제방울>에 새겨진 주제별 그림

-자료 : 배성혁(2019),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대가야의 건국신화」, 『가야고분군연구총서』 제6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p.179

- <토제방울>은 봉토직경 10m의 제 I -5호분에서 주곽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배치된 3기의 소형석곽 중 제5-1호에서 출토되었음.<sup>27)</sup> 5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27) 석곽묘는 벽체를 판석으로 세운 뒤 바깥 면과 상단부를 할석으로 부가하고, 이중으로 개석을 덮은 대가야 중심부의 전형적인 소형 석곽묘임. 4~5세의 어린아이가 묻힌 무덤으로 규모는 길이 1.65m, 너비 0.45m, 깊이 0.55m 정

로 편년되는 작은 <토제방울>은 직경 5cm 정도의 작은 것으로 새겨진 선각은 매우 얇고 가늘어 육안으로는 그림들을 구분하기 어려움.

- 그림 내용은 가야의 건국신화를 표현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표현 대상과 행위를 간략하게 상징화하고 있어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음. 그림은 6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나하나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건국신화의 내용과 부합됨. 그러나 그림은 대가야의 건국신화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당시 대가야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올바른 해석될 수 있을 것임.<sup>28)</sup>
- 대가야의 건국신화를 담아놓은 <토제방울>은 5세기 후반 이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두 단계에 걸친 대가야의 건국신화가 존재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줌. 제1단계 건국신화(난생설화)는 대가야국 탄생기의 것으로, 토제방울을 통해 5세기 후반까지는 가락국기와 비슷한 내용이 전승되었던 것으로 보임. 제2단계 건국신화(정견모주설)는 5세기 후반 이후 어느 시점에 가야의 최대 세력으로 부상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새로운 건국신화를 만든 것으로 보임. 그 시점은 대가야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종래의 ‘한기’에서 왕’으로 개칭한 시점일 가능성이 높음.<sup>29)</sup>
- 이와 같이, 대가야에서 보이는 두 개의 시조탄생설화, 즉 가야연맹체 공통의 초기 1단계 난생설화와 산신과 천신의 결합에 의한 2단계 탄생설화는 대가야의 성장과 함께 대가야 스스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음.<sup>30)</sup>
- 이러한 사건·장소 유형은 고령군의 역사적 상징성과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지역의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풍부한 스토리텔링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

▼고령군 내 대가야 유적 현황(비지정, 66개소)

번호	유형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1	생산 4개소	송림리 토기가마터	쌍림면 송림리 산36-3일대	
2		외리 토기가마터	대가야읍 외리 산36일대	
3		합가1리 토기가마터	쌍림면 합가리 산184일대	
4		합가2리 토기가마터	쌍림면 합가리 산133일대	
5	통치·행정 16개소	대가야 궁성지	대가야읍 연조리 608	
6		미송산성	대가야읍 신리 산66-1	
7		옥산성	대가야읍 본관리 산50	
8		망산성	대가야읍 장기리 산9	
9		내곡리 산성	대가야읍 내곡리 산145	
10		노고산성	덕곡면 노리 산22	
11		예리 산성	덕곡면 예리 산25	
12		운라 산성	운수면 월산리 산29-1	

도이다. 조성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당시 유물의 부장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토제방울 1점 외에 소형토기 6점, 쇠낫 1점, 화살촉 3점, 곡옥 1점 등과 어린아이의 치아 및 두개골편이 함께 출토되었음.(배성혁(2019), 앞의 논문, p.178.)

28) 배성혁(2019),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대가야의 건국신화」, 『가야고분군연구총서』 제6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단, pp.178-179

29) 배성혁(2019), 위의 논문, p.181.

30) 배성혁(2019), 위의 논문, p.181.

번호	유형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13		의봉산성	운수면 신간리 산1	
14		풍곡산성	성산면 사부리 산115	
15		무계리 산성	성산면 무계리 산5	
16		봉화산성	성산면 강정리 3	
17		월성리 토성	다산면 월성리 293	
18		도진리 산성	우곡면 사촌리 산167	
19		소학산성	우곡면 대곡리 산165	
20		만대산성	쌍림면 산주리 산38	
21	고분 46개소	노곡리 고분군1	다산면 노곡리 산88-1	
22		노곡리 고분군2	다산면 노곡리 산84-1	
23		노곡리 고분군3	다산면 노곡리 산80	
24		노곡리 고분군4	다산면 노곡리 산31	
25		백리 고분군1	덕곡면 백리 산13	
26		백리 고분군2	덕곡면 백리 산7	
27		예리 고분군	덕곡면 예리 산41	
28		후암리 고분군	덕곡면 후암리 산7	
29		대평리 고분군	운수면 대평리 산92	
30		화암리 고분군	운수면 화암리 산42	
31		월산리 고분군1	운수면 월산리 산43-2	
32		월산리 고분군2	운수면 월산리 산30-2	
33		월산리 고분군3	운수면 월산리 산20	
34		월산리 고분군4	운수면 월산리 산1-3	
35		기산리 고분군	성산면 기산리 산81-5	
36		박곡리 고분군	성산면 박곡리 산74	
37		본관리 고분군	대가야읍 본관리 산50	
38		중화리 고분군1	대가야읍 중화리 산13-1	
39		중화리 고분군2	대가야읍 중화리 산114	
40		쾌빈리 고분군	대가야읍 쾌빈리 산35-1	
41		연조리 고분군	대가야읍 연조리 산3	
42		고아리 고분군	대가야읍 고아리 산13-1	
43		장기리 고분군1	대가야읍 장기리 산16-1	
44		장기리 고분군2	대가야읍 장기리 산20-1	
45		양전리 고분군	개진면 양전리 산89-2	
46		반운리 외질토기유적	개진면 반운리 산18	
47		반운리 고분군	개진면 반운리 산31	
48		개포리 고분군	개진면 개포리 산5-1	
49		구곡리 고분군	개진면 구곡리 477	
50		용리 고분군	쌍림면 용리 산40-1	
51		고곡리 고분군	쌍림면 고곡리 산23-1	
52		안림리 고분군1	쌍림면 안림리 산23	
53		안림리 고분군2	쌍림면 안림리 산4	
54		안림리 고분군3	쌍림면 안림리 산61-5	
55		산주리 고분군	쌍림면 산주리 산18	
56		하거리 고분군	쌍림면 하거리 산39	
57		산당리 고분군	쌍림면 신당리 산56-1	
58		송림리 고분군1	쌍림면 송림리 산19-2	
59		송림리 고분군2	쌍림면 송림리 산43-1	
60		귀원리 고분군	쌍림면 귀원리 산17-1	
61		신곡리 고분군1	쌍림면 신곡리 산190-2	
62		신곡리 고분군2	쌍림면 신곡리 산18-7	
63		합加里 고분군	쌍림면 합加里 산194-1	
64		사전리 고분군	우곡면 사전리 산21	
65		도진리 고분군1	우곡면 사촌리 산155-1	
66		도진리 고분군2	우곡면 도진리 산3-1	



### 3. 대가야 관련 출토유물

#### 3.1 대가야식 토기

- 가야토기로 설정할 수 있는 주요 기종으로는 고배, 장경호, 발형기대, 개배 등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가장 주류를 이루는 것은 장경호와 고배이다. 가야토기는 5세기 이후에 지역별로 양식이 성립됨.<sup>31)</sup>
- 대가야식 토기는 고령지역의 중심 고분군인 지산동 고분군 출토의 토기 중에서 고령의 지역색을 가장 특징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다른 지역의 동일 기종 토기에는 보이지 않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토기를 말함. 고령지역에서 만들어져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토기를 고령 양식 토기로 불러야 하지만, 대가야의 성장과 더불어 정치적 지배 영역을 확산하는 지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대가야식 토기로 지칭할 수 있음. 대가야식 토기의 대표적 기종은 유개장경호와 발형기대, 무개장경호, 유개고배, 무개고배, 단경호, 개배, 통형기대, 단추형꼭지 뚜껑 등임.<sup>32)</sup>
- 대가야식 토기는 4세기 초엽에 성립되기 시작하여 5세기 초엽에 완성을 보고 대가야의 정치, 사회의 성정과 함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함. 대가야식 토기는 물결문양장식의 장경호, 뱀모양장식이 붙은 기대 등이 특징이다. 대가야식 토기는 5세기 후반에 가야 각 정치체로 확산되어 가야토기 양식의 공통성 형성에 영향을 줌.<sup>33)</sup>



▲고령 지산동 고분군 44호분에서 출토된 토기류

-자료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18), 『가야자료총서-가야발굴조사자료편Ⅲ』 5권, p.347.

31) 김세기(2019), 앞의 논문, pp.11-12

32) 김세기(2017), 「대가야 고대국가론」, 『한국고대사연구』 87, 한국고대사학회, pp.199-200.

33) 김세기(2017), 위의 논문, p.200.

- 이 밖에, 출토된 대가야식 토기 가운데 대가야아 관련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토기가 있음. 출토유물 중 명문이 새겨진 토기로, 충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대왕(大王)명 유개장경호>와 합천군 저포리 E지구 4호분 출토 <하부사사리(下部思利利)명 단경호>가 주목됨. <대왕(大王)명 유개장경호>는 당시 대가야의 왕권 성장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 <대왕(大王)명 유개장경호>는 토기 양식으로 미루어 보아 고령이나 합천의 대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확인되며, ‘대왕’이라는 칭호로 인해 6세기 전반 대가야의 왕권 성장과 관련하여 정치적 발전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음.



▲충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대왕(大王)명 유개장경호>

- <하부사사리(下部思利利)명 단경호>는 경부에 돌대가 형성된 전형적인 대가야 양식을 지니고 있고, 대가야 시기 고령과 인접한 합천읍, 봉산면 일대를 하부로 편제하여 그 권역을 중앙과 지방으로 편제하는 등 대가야가 중심국으로서 부체제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 주목받고 있음.



▲합천군 저포리 E지구 4호분 출토 <하부사사리(下部思利利)명 단경호> 부분

### 3.2 대가야식 금공품

- 5~6세기 가야 제국 가운데 독자적인 의장의 금공품을 제작한 곳은 대가야가 유일하며, 고령에서 제작된 금동제 관, 용봉문환두대도, 금제 수식부이식, 금동제 마구는 가야 전역뿐만 아니라 일본열도 전역에 전파됨. 현재 확인된 대가야산 금공품은 금관 2점, 금동관 5점, 금동제 용봉문환두대도 49점, 금제 수식부이식 229점이다. 그 외 금동제 마구도 수백 점이 확인된다.<sup>34)</sup>
- 또한, 가야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고령지역에서만 금관 2점이 출토되었는데,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이 대표적임. 대륜(臺輪)위에 입식(立飾) 도안이 꽃이나 풀 등 식물에서 그 소재를 가져온 듯 간소하면서도 자연스럽다. 신라 금관처럼 정형화 되거나 추상화되어 있지 않음.<sup>35)</sup>
- 전 고령 출토로 되어 있는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금관은 그 양식이 신라식의 출자형 장식과 다른 대가야만은 독특한 초화보주형 대관형식을 하고 있음. 이러한 형식은 지산동 45호분이나, 3호분, 30호분에서 출토되는 보주형 금동관과 전체적 이미지와 모티브가 동일하여 지산동 고분군에서 출토되었을 것이라 추정됨.<sup>36)</sup>



▲대가야의 금관(좌: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국보 전 고령 금관 및 장신구 일괄> 우: <보물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

- 관모 외에 가야의 위세품은 귀걸이나 장식대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가야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이식의 대부분은 대가야 이식이라고 할 정도로 특징이 있음. 대가야 이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슬형 연결금구와 공구체형 중간식을 조합한 금제라는 점임. 또한, 신라나 백제에 비하여 매우 간소한 점이 특징적임.<sup>37)</sup>

34) 고령군지편찬위원회(2022), 『고령군지』 1권, 고령군지편찬위원회, p.213.

35) 이한상(2013), 「대가야양식 유물의 분포양상과 의미」, 『신라문화』 41, 신라문화원, p.38

36) 이한상(2013), 위의 논문, p.37; 김세기(2019), 「고고학으로 본 가야의 개념과 영역」, 『한국고대사연구』 94호, 한국고대사학회, p.14 참조

37) 이한상(2013), 위의 논문, p.39



- 대가야의 장신구는 주변국 장신구에 비하여 구조가 심플함. 즉, 신라의 장신구가 극히 화려함을 추구한 것이라면 대가야의 장신구는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보여준다. 대가야의 금제장신구는 대가야의 성장과 궤를 함께 하며 제작되었음. 장신구의 소유자는 대가야의 왕족뿐만 아니라 연맹체 내 지배층까지 포괄하며 위상에 따라 재질이나 수량 등에서 차이를 보여줌. 이는 이 시기의 장신구가 단순히 신체를 치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위세품(威勢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려줌.<sup>38)</sup>
- 대가야식 이식은 5세기 후반에는 황강수계와 남강 상류, 금강 상류, 섬진강 수계에 분포하다가 6세기 전반에는 소가야권의 진주·고성, 그리고 금관가야권의 창원 진영분지까지 확산됨. 또한, 대가야식 이식은 가야 전역뿐만 아니라 일본열도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음. 이와 같이 대가야산 위세품의 분포와 대가야 양식의 토기의 분포가 궤를 같이하는 점에서 대가야의 권역의 확대와 영향력 증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sup>39)</sup>



▲고령 자산동 고분군 45호분 2실 출토 금제이식(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대가야박물관2015)

38) 이한상(2013), 앞의 논문, p.40.

39) 김세기(2019), 앞의 논문, pp.14-15.

## 4. 대가야 ‘고도(古都)’ 고령의 역사적·학술적 중요성

### 4.1 역사적 측면 ⇒ 고대국가의 통치체계 및 정치적 영향력 기 확인

- 5세기 후반 가야의 중심국인 대가야의 정치·문화 중심지로, 대내적으로는 삼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는 대외교류를 통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였음.<sup>40)</sup>
- 대가야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연구는 후기 가야 연맹 혹은 대가야연맹으로 대표되는 ‘연맹체설’과 부체제 국가, 혹은 영역국가 내지 고대국가로 대표되는 ‘고대국가설’로 대별되는데,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 가야의 사회발전 단계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대가야(후기)의 사회발전단계에 대한 제설

-자료 : 이동희(2017), 「후기 가야 고고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85, pp.125-128.

번호	연구자	사회발전단계	비고
1	김태식 (2000)	5세기 중반~말말기, 대가야 중심의 후기 가야연맹	
2	이영식 (1985/2000)	금관가야는 복합군장사회, 대가야와 아라가야는 도시국가단계	연맹의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봄
3	田中俊明 (1992)	대가야연맹의 권역은 남강 이북에 한정	단일연맹체론 부정
4	이희준 (1995/2014)	<b>대가야는 고대국가 단계</b> (대가야권을 무대로 고령식 토기가 확산되는 과정을 추적, 5세기 3/4분기에 연맹단계에서 간접지배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5세기 4/4분기에는 권역 내 대부분이 가라의 간접지배하에 들게되는데, 이는 곧 대가야가 영역국가호한 증거이며, 6세기에는 인접지역에 직접지배를 실시)	고령양식 토기의 분포양상에 근거
5	박천수 (1996/1997)	<b>대가야는 고대국가 단계</b> (영토관념인 관인조직이라는 권력기구를 갖추고 정치체가 일정 틀을 넘어선 지연적, 제도적 원리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고대국가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봄)	군사조직과 같은 권력기구의 성립, 노동력의 동원능력, 지배영역의 확보
6	남재우 (1998)	안라와 대가야가 대등한 발전수준, 연맹보다는 <b>영역국가 단계</b>	
7	김세기 (2000/2006/2014)	<b>대가야는 고대국가 단계</b> (왕권의 세습이 안정되고, 부체제를 통한 지방조직의 성립, 首位제에 보이는 중앙관제, 낙동강 이서에서 지리산과 섬진강·남강 이북에 이르는영역의 확보, 신라와 백제에 군사를 파견할 정도의 군사력 보유, 당시 국제사회에서의 확실한 지위인 남제로부터의 작위수여 등의 사실과 고고자료에 보이는 금관의 사용, 대왕(大王)명 토기, 하부사리리(下部思利利)명 토기 등으로 볼 때 비록 50여 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고대국가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봄)	영역확대, 대왕 칭호와 금관, 지배조직, 예악과 신화 정비
8	백승욱 (2001)	대가야와 아라가야는 고대국가 단계	지배층의 분화와 구조, 대외교섭 중시
9	권학수 (2003)	대가야는 고대국가단계	
10	신경철 (2007)	대가야는 지산동 고분군을 정점으로 한 종적연맹체	

40) 6가야 중 고령의 대가야에 특히 주목되는데, 대가야는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던 가야였다. “역사가 60년 남짓으로 너무 짧았지만, 분명 국가의 요건을 고루 갖추었습니다.” 1977년 고령 고분에서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많은 순장자의 인골이 발굴됐다. 대가야가 보통의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거”(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았던 대가야(대구한국일보, 가애를 세계에 알린다, 20221206)

- ‘연맹체설’은 『삼국유사』5가야조 등 주로 문헌자료에 입각하여 가야 여러 나라의 수준을 연맹왕국 단계로 보는 것부터 시작함. ‘고대국가설’은 주로 고고자료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대가야 고총고분의 위계와 고분 출토유물로 볼 때, 대가야는 고대국가단계까지 발전하였다고 보는 주장과 문헌연구를 통해 무체제의 실시와 중앙과 지방의 개념이 존재한 것으로 보아 연맹왕국을 넘어 고대국가단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는 주장으로 구분됨.<sup>41)</sup>
- 대가야는 야로 지역의 철 자원을 바탕으로 5세기부터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음. 각종 문헌자료 및 고고자료는 대가야의 정치적 발전정도를 보여줌. 구체적으로, 가야 최대의 고분군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순장 양상, 이진아시 왕계의 왕위 세습, 중국식 왕호(王號)의 사용과 금관, 관료집단이 분화되어 일정한 정치적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왕족이나 왕비족 계통의 한기층(旱岐層)과 대왕직속의 상수위(上首位), 2~3수위(首位)로 분화된 관제, 지역의 통치구조<sup>42)</sup>와 관련된 ‘하부사리리(下部思利利)’라는 명문을 가진 합천저포리 출토 단경호의 존재, 예악(우륵 12곡) 및 신화정비(정견모주설화) 등은 대가야가 중앙집권화된 권력구조를 가지적으로 보여줌.<sup>43)</sup>
- 또한, 대가야 양식의 토기의 ‘대왕(大王)’ 명문과 대가야의 왕이 479년 남제(南齊)로부터 ‘보국장군 본국왕(輔國將軍 本國王)’을 제수받았다는 것은 대가야의 중국과의 대외교류뿐만 아니라 국가성립을 보여주는 주변국으로부터의 공인과정이라 인식됨.
- 이 밖에, 전투관련 기록이나 고분에서 출토되는 다량의 무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가야의 군사력은 대가야가 연맹왕국을 넘어 고대국가 단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저력을 보여줌.
- 고령 지산동 고분군 44호분에서 출토된 오키나와산 야광패로 만든 국자는 일본 열도 세력과의 교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대가야가 큐슈지방이나 긴키지방을 통해 고급제품을 들여옴으로써, 고대국가로의 위상을 보인 것으로 생각됨.<sup>44)</sup>
- 이러한 대가야의 정치적 중심지로 기능하였던 고령은 각종 문헌자료에서 대가야의 옛 땅으로 인식되었고, 19세기 문헌에는 지산동 고분군이 고대 왕들의 무덤으로 기록되어 있음. 이에, 고령에는 대가야의 정치적 발달뿐만 아니라 대외교류를 가지적으로 보여주는 대가야의 핵심유적 및 유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 고령군 대가야읍내에는 지산동·본관리·쾌빈리 고분군 등이 위치하여, 중대형분만

41) 김세기(2017), 「대가야 고대국가론」, 『한국고대사연구』 87, 한국고대사학회, p.189.

42) 대가야의 지배방식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라와 기문과 같이 느슨한 복속관계에 있었던 지역이 있는 반면, 『일본서기』에서 확인되는 ‘縣’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던 지역도 있음. 대가야에서 ‘縣’이 지방행정단위로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유독 대가야와 관련된 기사에서만 ‘縣’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신가영(2020), 「4~6세기 가야 제국의 동향과 국제관계」, 연세대학교 박론, p.97.)

43) 남재우(2018), 「가야의 국가발전단계와 가야사 연구」, 『역사와 세계』 54, 효원사학회, pp.171-172.

44) 김세기(2017), 위의 논문, p.214.



해도 거의 200기에 달하여, 여타 면 단위와는 큰 격차를 보임.<sup>45)</sup> 지산동 고분군에서 6세기 초 이후에 가장 탁월한 입지에 축조된 척릉의 고총들은 ‘大王’명 토기가 암시하듯이 대가야에서 대왕이 시점한 전후하여 축조된 왕릉급 고분으로 추정됨.<sup>46)</sup>

- 주산성은 왕이 상주하는 궁성과 유사시를 대비한 대피 기능을 갖춘 통치공간으로, 지형상 주산성은 대가야 중심지를 감싸듯 형성되어 있는 주산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주산에서 대가야읍내 방향으로 가장 길게 뻗어 있는 능선을 통해 궁성지와 바로 연결되어 있음.<sup>47)</sup>
- 대가야의 정치적 중심지였던 고령은 562년 신라에 의해 멸망된 이후에는 군사 및 교역의 중심지로서 교통요충지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 4.2 문화적·예술적 측면 ⇒ 독창적 문화(‘대가야식’) 형성 및 교류 활발

- 대가야는 지역 특성이 드러나는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구체적으로, 고분구조와 ‘대가야식’, ‘고령식’이라 칭해지는 출토유물에서 잘 드러남.
- 동시기 가야의 무덤 중 가장 높은 위상을 보여주는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 묘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고분 구조 및 출토유물(금동관, 토기 등) 등이 신라와 차별화 되어 있음.
- 대가야 묘제는 ①立地상 능선 정상부의 용기부에 위치하고 고대한 원형봉토 축조 ②장폭비 약 5:1의 세장한 석실 평면형태 ③한 봉분 안에 주실과 별도의 순장곽을 가진 다곽분의 구조 ④봉분 기저부에 주실과 순장곽을 둘러싸는 원형호석의 설치 ⑤고령의 특징을 가진 대가야식 토기가 출토되는 묘형을 칭함.<sup>48)</sup>
- 또한, ‘대가야식’ 토기 및 ‘대가야식’ 금속제 이식은 대가야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반까지 대가야식 토기문화의 확산은 대가야의 정치적 위력이 부수적으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쳐 창원, 마산지역에까지 대가야양식 토기가 부장되는 상태로 발전하게 됨. 결국 대가야 문화권의 영향력은 상승효과를 가져와 각 지역의 고총고분뿐만 아니라 소형 석곽묘까지도 대가야 토기 일색으로 변하게 됨.<sup>49)</sup>
- 한편, 이 기간에는 소백산맥을 넘어 호남동부지역인 순천, 장수, 지안, 임실지역까지 대가야 묘제와 토기 일색이 되는데, 이는 교역에 의한 경제권의 형성을 의미할수도, 문화권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 일 수도 있음.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

45) 이희준(2016), 『대가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p.360.

46) 이동희(2024), 앞의 논문,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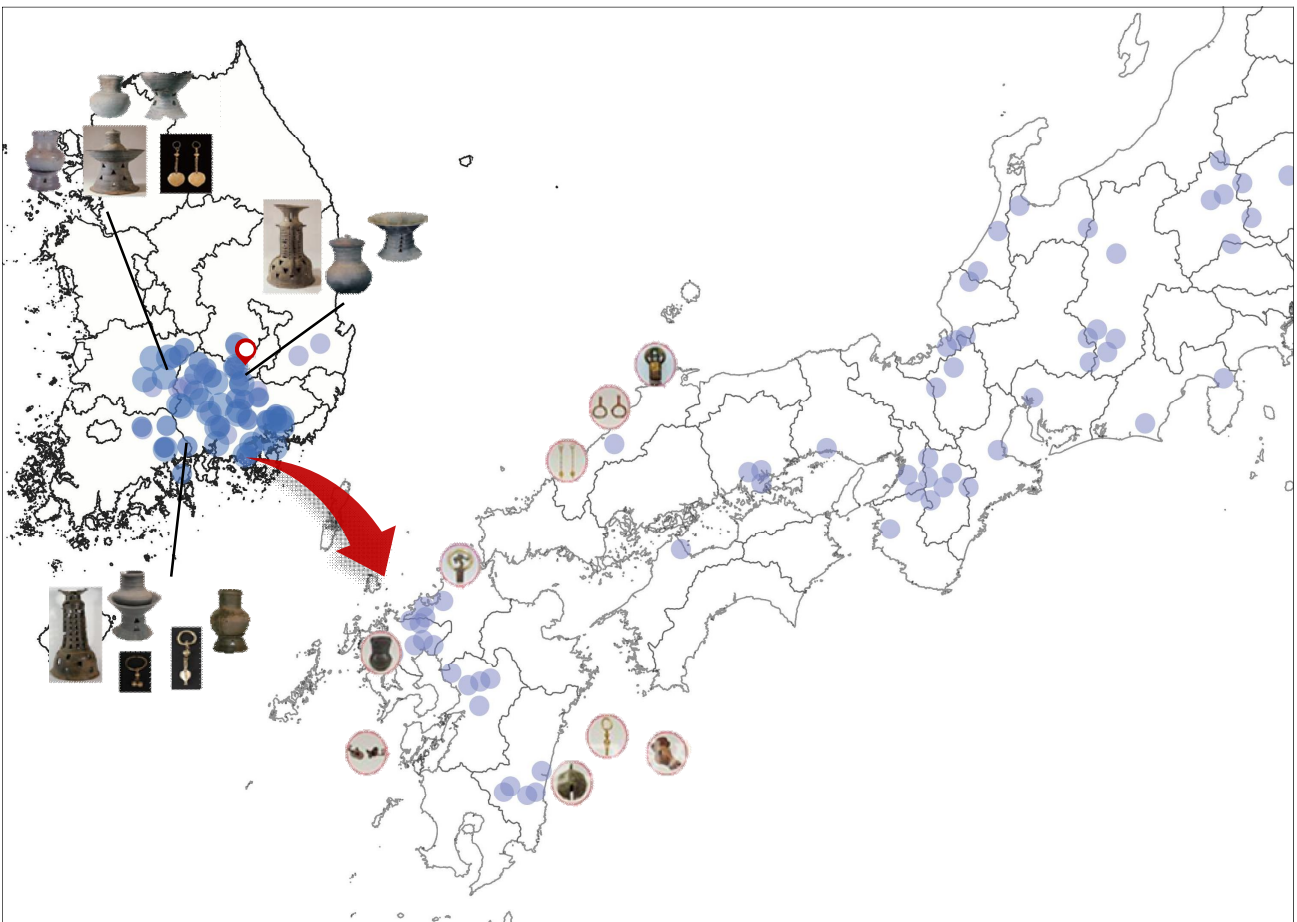
47) 최재현(2021), 앞의 논문, p.142.

48) 김세기(2019), 앞의 논문, p.29.

49) 김세기(2017), 앞의 논문, pp.201-202.

한 문화적, 경제적 관계를 기반으로 정치권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음. 그러나 대가야 토기의 확산은 묘제 채용과 위세품의 부장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단순히 문화권의 확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가야 영역의 확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라고 생각됨.<sup>50)</sup>

- 대가야식 토기의 경우에는 주요 교통로를 따라 점차 확산되면서 각 지역의 고유 양식 토기를 대체하여 주류를 이루어 부장되고 있는 특징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sup>51)</sup>
- 특히, 대가야식 토기 및 금제이식 등은 경남 서남부와 호남 동부지역 일대에서 출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일본에서 출토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대가야의 문화적 영향력이 국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해외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이 확인됨.



**▲5~6세기 대가야식 출토유적 및 유물을 통한 파악가능한 대가야의 정치적·문화적 영향권**

50) 김세기(2017), 앞의 논문, p.202.: 대가야 양식의 확산 과정은 대가야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대가야는 고령 지역과 가까운 세력들을 하나씩 포섭하였는데, 5세기 전반부터 고령→합천→거창→함양→남원 지역에 이르는 교통로의 주요 세력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5세기 후반에는 섬진강을 따라 곡성→구례→하동→남해안 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대가야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대가야의 경우에는 금관가야가 낙동강 하구의 세력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 보다 더 강하게 주변 세력을 통제했을 것으로 짐작됨.(신가영(2020), 앞의 논문, p.84.)

51) 이희준(2013), 「대가야 토기 양식 확산 재론」, 『영남학』 1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pp.135-152.

### 4.3 경관(공간)적 측면 ⇒ 고대국가의 도성골격체계 유지

- 고령군의 원도심에는 대가야 왕도 골격 현전하고 있음. 지산동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는 대가야읍 지산리, 연조리 일대는 서편으로 주산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고, 북쪽으로는 내곡천, 동쪽은 대가천, 남쪽은 안림천이 자연 해자를 이루며 감싸고 있어 방어와 수운관리에 유리한 입지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됨.
- 대가야 왕도는 4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가야 왕경지(대가야읍 연조리 궁성지와 지산동 고분군, 주산성 일대) 북부 지역권(덕곡면·운수면 일대), 동부 지역권(성산면·다산면 일대), 남부 지역권(개진면·우곡면 중심) 등임. 한편, 왕도를 기능적으로 세분해 보면, 연조리의 (전)대가야 궁성지·주산성·지산동 고분군으로 대표되는 왕경지, 본관리 고분군으로 대표되는 근교지, 내곡리 토기요지, 야로 일대를 중심으로 한 철산지로 구성됨. 토기 및 철 생산 관련 유적의 위치는 대가야 중심권역 중 상대적으로 방어 부담이 적은 안림천 상류인 서남쪽에 치우쳐 있다는 특징이 있음.<sup>52)</sup>
- 왕이 상주하는 궁성과 유사시를 대피한 대피기능을 갖춘 주산성은 대가야 중심지 심지를 감사듯 형성되어 있는 주산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주산에서 대가야읍 내 방향으로 가장 길게 뻗어 있는 능선을 통해 바로 궁성지와 연결됨. (전)대가야 궁성지는 발굴조사를 통해 5세기 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벽건물지와 6세기 중반의 와즙건물지가 조사되면서, 대가야 왕실이 기거했을 궁성일 가능성이 높게 확인됨. 위치상으로도 주산성과 가까워 유사시에 궁성의 방어와 항전을 위한 평지 궁성지-배후산성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을 것임. 주산성을 중심으로 서남편으로 뻗은 능선자락에는 지산동 고분군과 동북편으로 연조리 고분군이 연결하고 있음. 이는, 대가야인들이 능선을 통해 궁성과 주산성, 고분군의 경계를 구획한 것으로 확인됨.<sup>53)</sup>
- 대가야 중심지의 도성체계는 (전)대가야 궁성지와 연조리 성지, 그리고 배후산지에 입지한 주산성이 조합된 범위로 추정되며, 가야제국 중 평지 왕성과 유사시 배후산성을 지닌 체계화된 구조였음.<sup>54)</sup>



▲고령 대가야의 중심지(주산성+대가야궁성지 일대) 추정범위

-자료 : 이동희(2018), 「가야의 왕성과 취락」, 『가야고분군연구총서』 제1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p.202.

52) 배성혁(2019), 앞의 논문, p.175.; (전)대가야궁성지를 중심으로 현 대가야읍내 일대에 해당하는 왕도와 고령군과 합천군의 북부지역 안림천 수계에 포함되는 야로면·가야면·묘산면 3개면을 배후지인 왕기(王畿)의 범위로 볼 수 있음.(최재현(2021), 앞의 논문, p.123.)

53) 이동희(2018), 앞의 논문, p.202.

54) 이동희(2018), 앞의 논문, p.203.



▼고령 관련 문헌자료 및 도시변화과정 고찰을 통한 대가야 고령의 역사적·학술적 중요성 분석 종합

구분	시대	관련 자료		역사적·학술적 중요성
고도 고령의 역사적 학술적 중요성	고대	고문헌	삼국유사, 삼국사기, 남제서, 일본서기, 대동지지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으로 서 고령군의 역사적 정체성 확인, 결혼동맹 및 사신 파견 등 주변 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독립적 국제적 위상 확인, 대가야 멸망 이후 후삼국시대의 외곽경계로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로서 역할 확인
		출토유물 (명문토기)	대왕명 유개장경호, 하부사사리 명 단경호 등	
		유적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산성, 전 대가야 궁성지, 내곡리 요지 등	
	중세	고문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고령지 등	고려시대의 지방제도 재편성으로 독립적인 행정단위에서 경산부(현 성주)의 속군으로 편제. 개성을 기반을 둔 고려에서 고령은 변방의 경계 지역으로 개포나루(현 개경포)를 통해 고령과 외부를 연결하는 수로 교통의 중계지이자, 교역장, 도자기와 기와의 반출지로서 사용되어왔음을 확인
		고지도	해동지도, 여지도, 지승, 비변사, 광여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영남읍지, 지방지도 등	
		유적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 송곡리 유적, 개포나루터, 반룡사다층석탑	
	근세	고문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고령지 등	조선시대의 지방제도 개편으로 고령현에서 고령군으로 승격 및 군수파견, 18~20세기의 고령의 주요 읍치가 현재의 대가야읍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 경북지방을 대표하는 도자기(상품 도자기)의 생산지, 조식과 김중직 등 영남사림의 학파형성지(개실마을 등)확인, 조선보부상단의 후신인 고령상무사의 활동.
		근세지도	해동지도, 지승, 여지도, 비변사, 광여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영남읍지 등	
		유적	고령향교, 벽송정, 가마터, 나루터, 점필재 고택, 김면장군유적	
	근대	지적자료	고령군 지적원도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전 대가야 궁성지, 고령 주산성의 대가야 핵심유적 재인지, 대가야의 고분 출토 유물(금동관, 대가야식 토기 등)에 따른 대가야의 독자적 문화구축 재인식, 계층구조와 대내외의 문물교류 파악 등 활발한 대외 교류 관계 확인
		조사문서	조선고적조사자료, 대정6년도고적조사보고, 유물 유적지도	
		사진자료	조선총독부유리건판사진, 고령군 사진집	
현대	사진자료	항공사진(1950년대~2000년대) 고령군 사진자료집(고령문화원)	고령면이 고령읍(현 대가야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시가지 발달(1978~80)확인, 교통 등 인프라 구축 및 행정 시설(고령군청 등)조성, 그 외 고령향교와 서원, 가야대학교 등 교육기관 확충 확인	
	기타자료	고령군지, 뉴스기사(라이브러리) 등		

**역사적(시대) 측면**

5세기 후반 가야의 중심국인 **대가야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 대내적으로는 삼국과 대등한 관계 유지, 대외적으로는 대외 교류를 통한 정치적 입지 구축, 대가야 멸망 이후 군사 및 교역의 중심으로서 **교통요충지** 역할 수행

**문화·예술적 측면**

지산동 고분군은 동시기가야의 무덤 중 가장 높은 위상을 보여주는 고분군으로, **고분 구조 및 출토유물(금동관, 토기 등)등이 신라와 차별화되어 있음.** 또한, **고령식 토기 및 대가야 금속제 이식**은 대가야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

**경관적(공간)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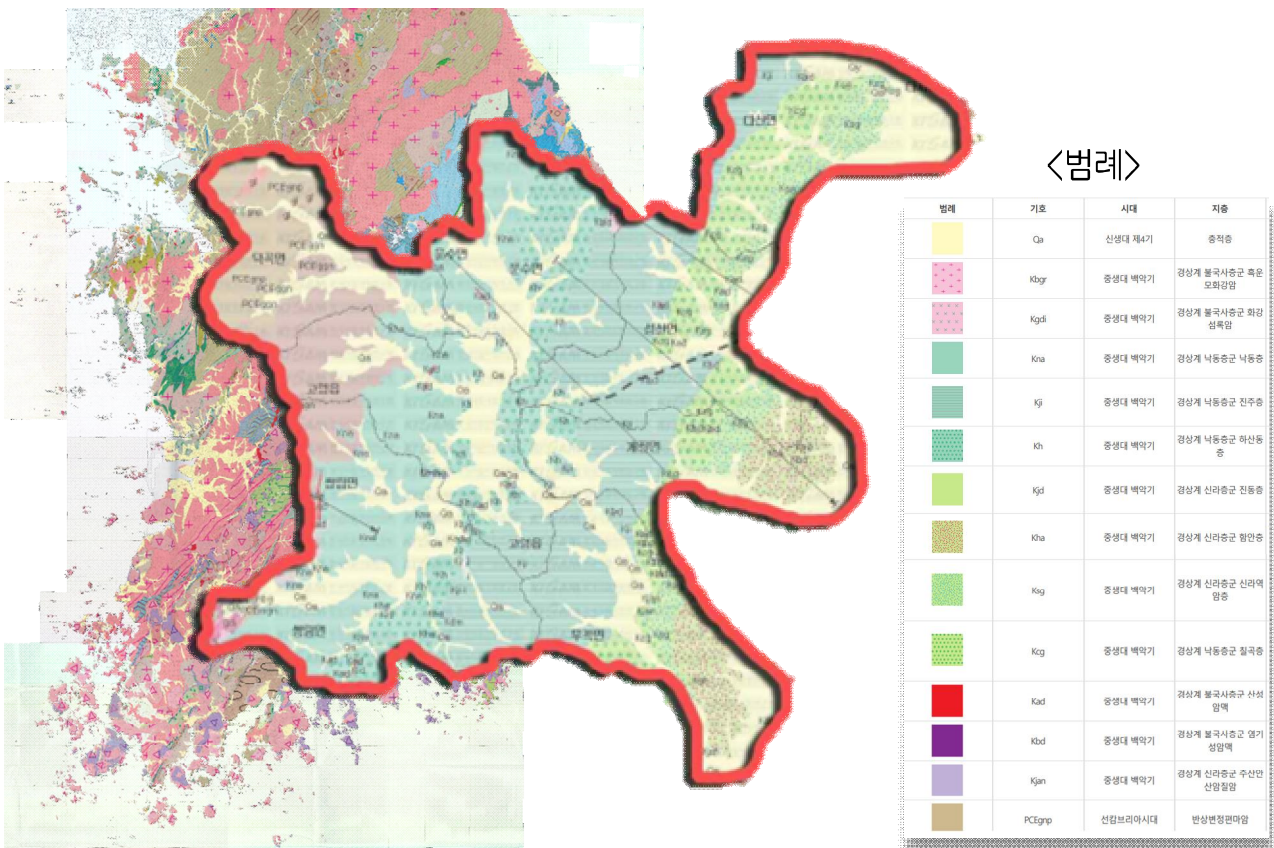
대가야 핵심유적인 주산성은 대가야 왕성의 배후 산성으로 **평지의 왕성과 산성의 조합을 이룬 도성 구조 축조**, 옛 포구인 개진면의 개포는 주요 관문적 성격으로 **교통적 요충지**로 역할

## II. 대가야 고령의 고도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필요성

### 1. 지질,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 1.1 고령의 지질 및 지형환경

- 고령의 지질은 낙동층이 주를 이루고,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생대 4기의 퇴적층 위주의 생활권을 형성함.
- 고령군의 지질은 가야산계와 맞닿아 있는 북서쪽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상계지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령의 북서쪽 끝 지역에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이 분포하거, 시대를 특정할 수 없는 선경상계의 고령화강암이 관입되어 있음.
- 고령화강암 지층의 동쪽에 중생대 백악기의 낙동통과 신라통 지질이 층위를 이루어 배열되어 있고, 전자에는 낙동층, 하산동층, 진주층, 칠곡층이, 후자에는 신라역암층과 함안층이 고령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순서대로 분포하고 있음. 그리고 고령의 동쪽 가장자리에 신생대 제4기의 충적층이 낙동강과 지류의 유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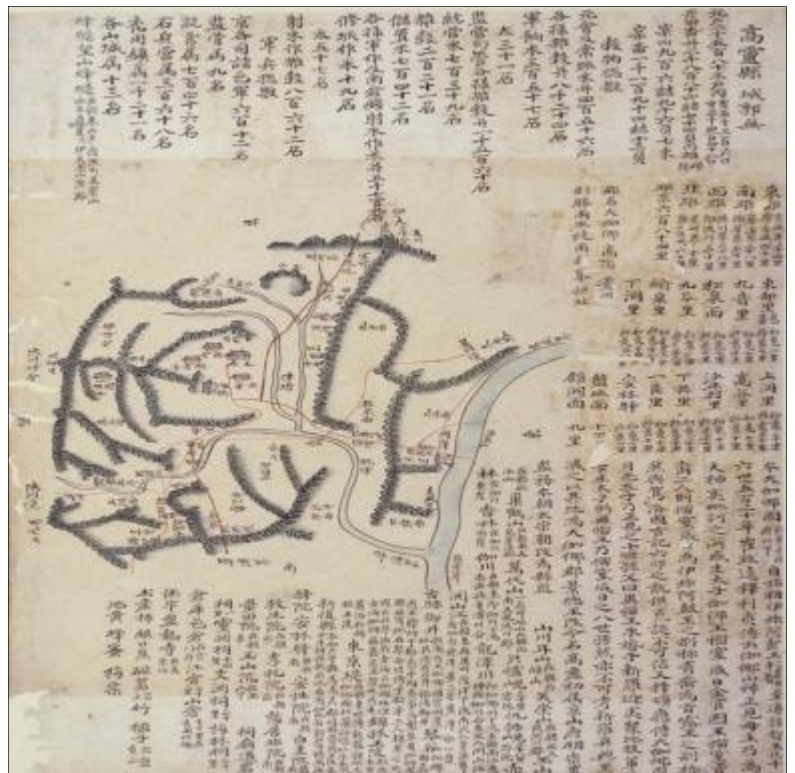
#### ▲고령권의 지질 및 자연환경

-자연 :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 지질환경정보((<https://data.kigam.re.kr/gives/>)

## 1.2 고령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

### 가. 자연환경

- 고령의 지질 및 지형환경은 왕도의 입지요건을 충족하고, 현재까지 고령군이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 지형적 조건에 해당됨. 고령의 산지는 영남내륙의 중심지로 지형지세에 따라 서부산지, 중부저지, 동부구릉지로 구분되고, 북부와 남부는 서부와 동부의 산지에서 뺀어 내린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음. 이에, 고령군 경계부의 가야산 및 만대산 등이 산악경관을 형성하고, 대가야읍 주변의 주산, 금산을 중심으로 한 근교 산악녹지를 형성하고 있음.
- 고령의 하천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고령 분지를 구성하고 높고 낮은 산지에서 발원하여 저지대로 흐르는 수많은 하천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과 대구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임. 분지 내륙을 관통하여 흐르는 주요 하천은 대가천, 소가천, 안림천, 회천임. 대가천은 성주군 수륜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운수면과 대가야읍을 관통하고 있고, 소가천은 덕곡면 북서부 산지에서 발원하여 대가야읍과 운수면의 경계 부근에서 대가천과 합류함. 대가천과 소가천이 만나는 지점 아래쪽으로 고령 평야가 펼쳐져 있어, 마을의 농경지로 이용됨. 안림천은 쌍림면의 서쪽과 남쪽 산지에서 발원한 소규모 하천들이 모여 형성되었고, 면 중앙을 휘어져 흘러 대가천과 합류함. 이 합류지점이 고령평야의 남쪽 끝부분이고, 회천의 출발지임. 마지막으로 회천은 우곡면의 남동 방향으로 흘러 객기리에서 낙동강과 만남.



▶『해동지도』 속 고령군의 산지와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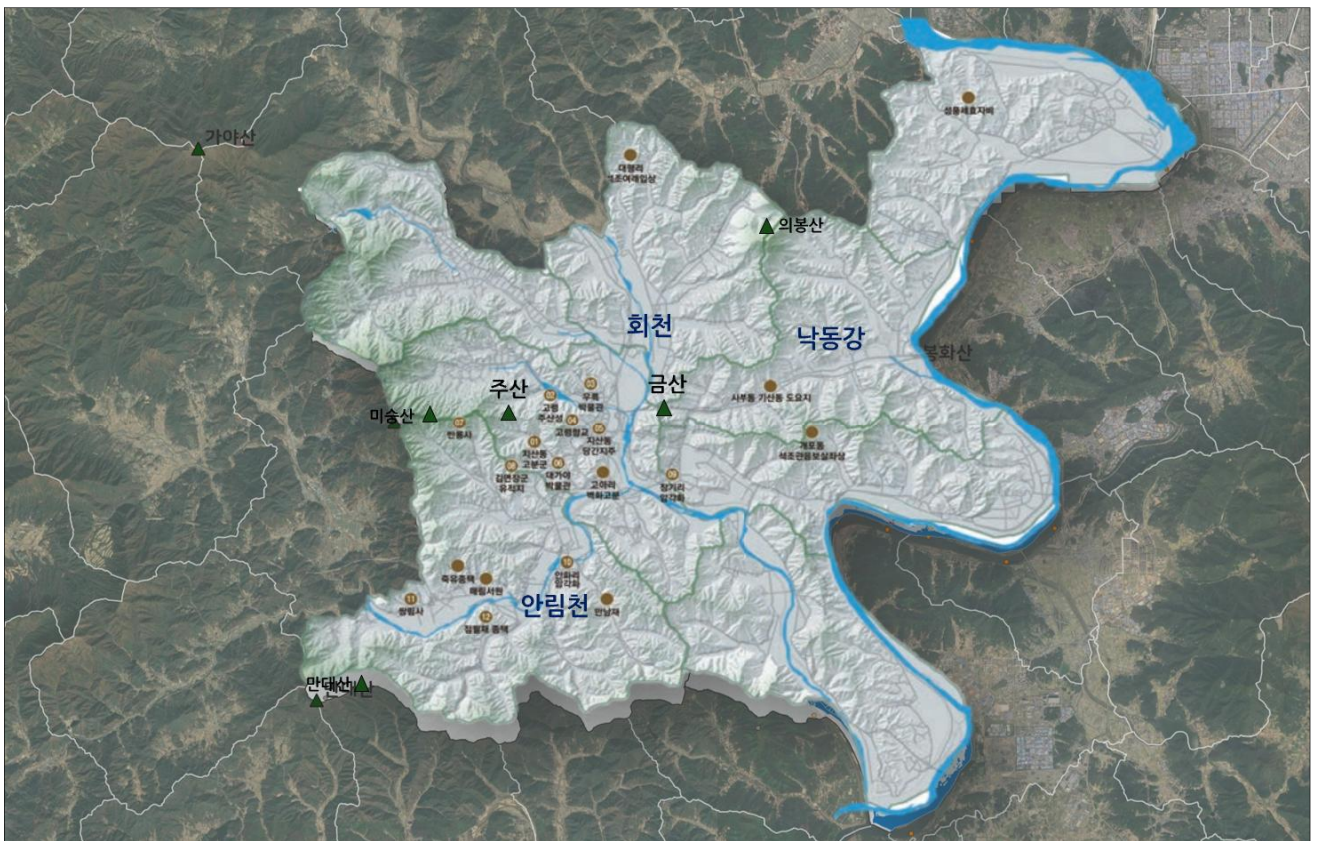


## 나. 역사경관

- 가야산이 대가야읍까지 고령군의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뻗어나와 미송산 등의 산지를 이루고, 그 곁줄기 하나가 동쪽으로 뻗어내려 주산과 금산을 중심으로 배후산지를 형성하고 있음. 주산에는 대가야읍까지는 가야산이 군의 서북쪽에 동남쪽으로 뻗어나와 미송산 등의 산지를 이루고 그 곁줄기 하나가 동쪽으로 뻗어내려 주산과 금산을 중심으로 배후산지를 형성하고 있음.
- 주산에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주산성(사적), 고아리 벽화고분, 연조리 고분군 등을 필두로 능선을 따라 조성된 수많은 고분군이 대가야의 핵심유적으로서 집중 분포하고 있음.
- 이 밖에, 대가야 시기에 조성된 생산유적들 또한 다수 분포하고 있음.
- 그 외 고령군에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다양한 역사적·시대적 층위를 지닌 유적들이 산재함.

### ▼대가야 고도 고령의 입지배경 및 자연경관의 주요 요소

구분		주요 요소	비고
자연 및 역사경관	자연경관	낙동강, 회천, 소가천, 대가천, 안림천, 가야산, 미송산, 주산, 개경포 등	
	역사문화자원	대가야 핵심유적(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산성, 고아리 벽화 고분, 전 대가야 궁성지) 및 장거리 암각화(청동기), 지산동 당간지주(통일신라),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고려), 고령향교(조선), 점필재종택(조선) 등	



▲고령군의 자연 및 역사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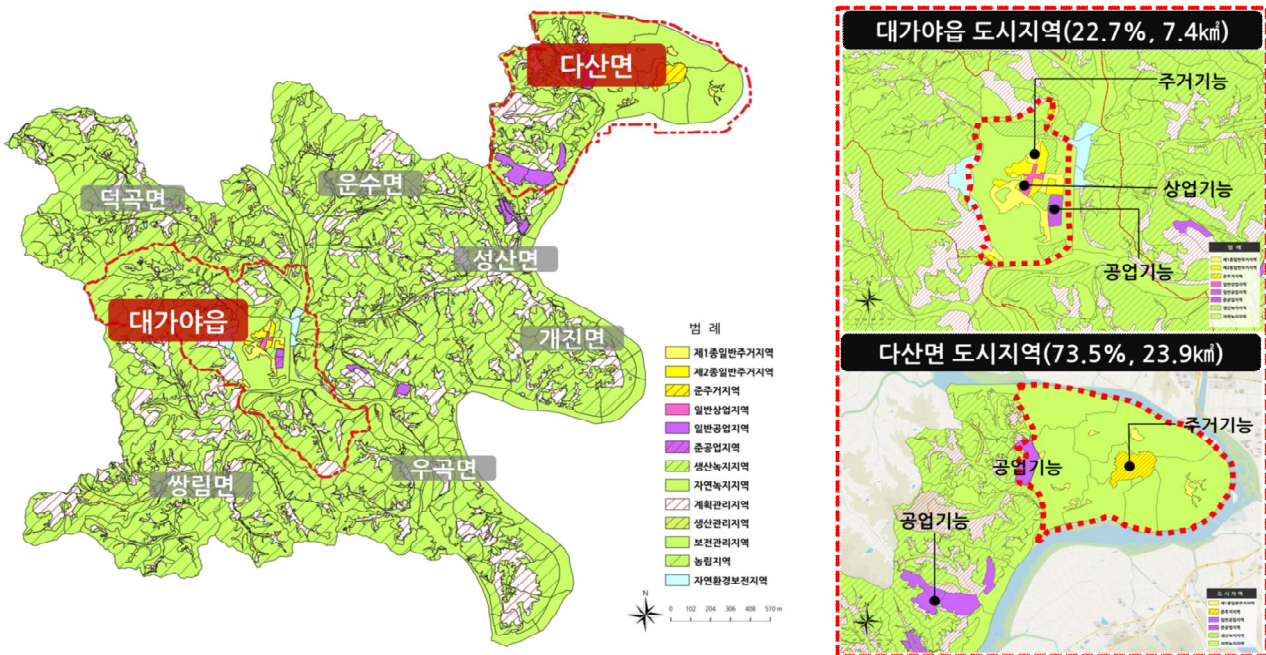
## 2. 문화재 및 문화재 분포 예상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 □ 행정구역별 면적현황

- 고령군 전체 면적은 384,057,138㎡로,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쌍림면 18.6%(71,432,505㎡)로 가장 넓고, 성산면 12.6%(48,489,441㎡), 대가야읍 12.3%(47,361,110㎡) 순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 □ 용도지역 현황

-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과 비도시지역(그 외)으로 구분되는데, 고령군 내 용도지역은 비도시지역이 고령군 전체 면적 대비 91.5%(351.6km<sup>2</sup>)를 차지함. 용도지역별로 살펴보면, 농림지역이 60.6%(232,9km<sup>2</sup>)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 30.6%(117,5km<sup>2</sup>), 녹지지역 6.7%(25,8 km<sup>2</sup>), 공업지역 0.9%(3,5km<sup>2</sup>)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 행정구역별 토지 이용현황

- 비도시지역은 쌍림면 20.1%(70,624,000㎡), 성산면 13.5%(48,475,000㎡), 우곡면 13.3%(46,932,000㎡)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비도시지역 가운데 농림지역(60.6%, 232,863㎡)과 관리지역(30.6%, 117,496,000㎡)이 고령군 전체 면적의 9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령군은 주로 농지와 산지, 임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자연환경보전지역(0.3%, 1,058,094㎡)은 대가야읍에만 분포하고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주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주산성 주변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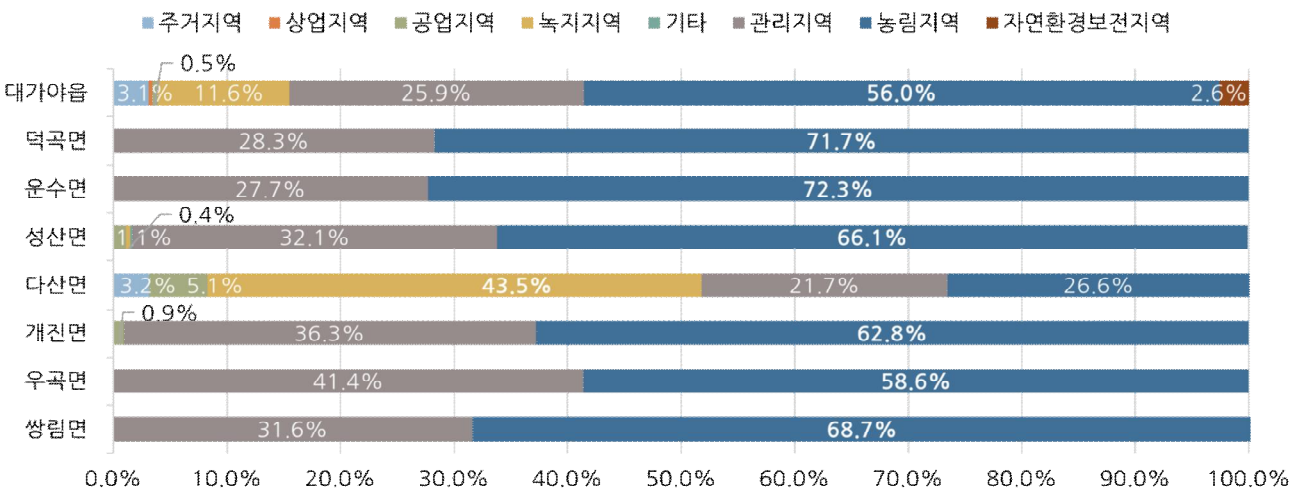
- 도시지역은 고령군 전체 면적 대비 8.5%(7,376,00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고령군 내 녹지지역 6.7%(25,803,000㎡)로, 도시지역의 과반 이상(79.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 다음으로, 공업지역(3,481,000㎡), 주거지역(2,933,000㎡)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도시지역은 주로 다산면과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 다산면은 고령군 내 도시지역의 73.5%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른 행정구역과는 달리 도시지역이 비도시지역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고령군 내 공업지역의 67.0%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군 내 산업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한편, 대가야읍의 경우에는 시장을 중심으로 고령군 내 상업지역의 전체(100.0%)가 분포하고 있고, 주거지역의 과반 이상(5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의 주요 생활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고도 고령의 용도지역 현황

(단위 : 천㎡)

-자료 : 고령군청, 통계연보(2020)

구분	전체	대가야읍	덕곡면	운수면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	쌍림면
합계	384,057	47,589	38,684	46,157	48,475	46,170	39,418	46,932	70,624
도시지역	소계	32,482	7,376	-	-	860	23,869	369	-
	주거지역	2,933	1,475	-	-	-	1,458	-	-
	상업지역	144	144	-	-	-	-	-	-
	공업지역	3,481	225	-	-	554	2,333	369	-
	녹지지역	25,803	5,532	-	-	193	20,078	-	-
	기타	121	-	-	-	113	-	-	-
비도시지역	소계	351,575	40,213	38,684	46,157	47,616	22,301	39,049	46,932
	관리지역	117,496	12,347	10,934	12,775	15,569	10,041	14,304	19,415
	농림지역	232,863	26,651	27,750	33,382	32,046	12,260	24,745	27,517
	자연환경보전지역	1,216	1,216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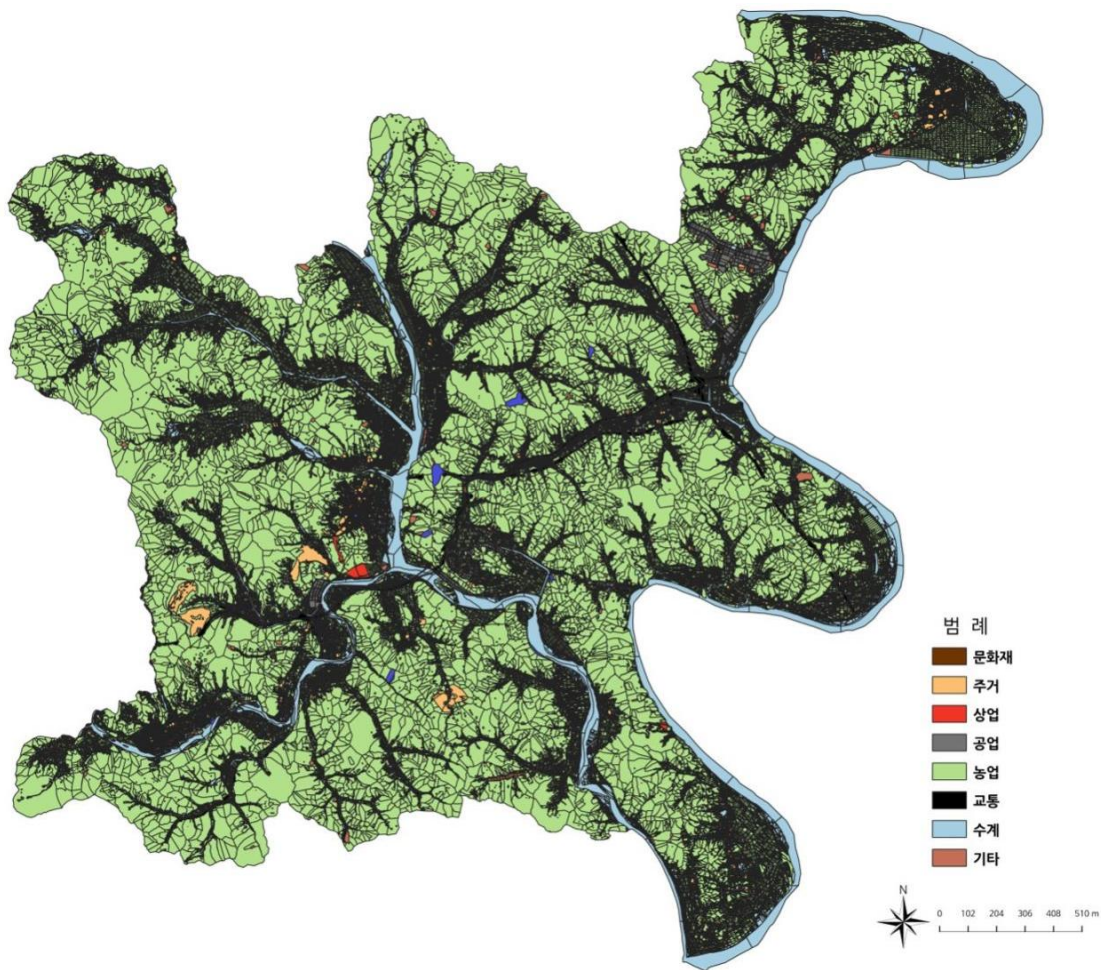


▲고령군 행정구역별 용도지역 분포현황



□ 지목 현황

- 고령군의 행정구역 전체 면적(380,057,138㎡) 가운데 임야가 63.5%(243,722,3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답 13.2%(50,568,982㎡)과 하천 8.0%(30,823,648㎡)을 차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내륙도시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지목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업 관련 지목이 8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수계 관련 지목 10.9%, 주거 관련 지목 2.3%, 공업 관련 지목 1.1%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고령군 행정구역별 토지지목 분포현황

- 농업 관련 지목 중 산림 및 원야로 형성된 임야가 고령군 전체 지목의 63.5%를 차지하고, 농경지에 해당하는 전과 답은 각각 5.0%, 13.2%의 비중을 차지함. 한편, 주거 관련 지목 중 주거 및 상업 시설물과 부속 시설물 등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할 준비가 되어 있는 토지인 ‘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해당함. 또한, 교통 관련 지목 중 교통 운수를 위해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이용되는 토지인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해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토지개발 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대가야읍에는 고령군의 주거 관련 지목 전체 대비 24.0%가 분포하고 있고, 고령군의 상업 관련 지목 전체 대비 69.5%가 분포하고 있어, 다른 행정구역 대비 주거 및 상업 관련 토지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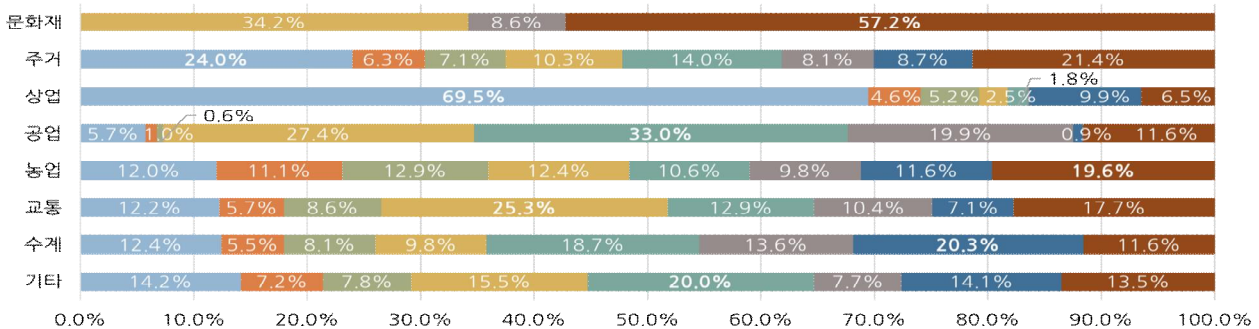
▼고도 고령의 지목현황

(단위 : m<sup>2</sup>)

-자료 : 고령군청, 통계연보(2020)

구분	전체	대가야읍	덕곡면	운수면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	쌍림면	
합계	384,057,138	47,361,110	38,597,416	45,837,193	48,489,441	45,853,997	39,486,908	46,998,570	71,432,505	
문화재	사적 4,673	-	-	-	1,597	-	402	-	2,674	
주거	소계	8,683,215	2,083,148	551,157	617,742	897,643	1,219,695	703,833	754,080	1,855,917
	대	6,579,422	1,265,571	532,393	592,747	742,551	1,003,079	665,503	721,810	1,055,769
	학교용지	420,597	145,359	18,764	24,995	45,214.0	46,393	37,330	31,270	71,272
	공원용지	270,470	1,964	-	-	109,878	158,628	-	-	-
상업	소계	365,171	253,619	16,788	18,939	9,210	6,463	362	36,124	23,666
	유원지	299,830	235,603	10,836	15,982	-	-	-	33,404	4,005
	종교용지	65,341	18,016	5,952	2,957	9,210	6,463	362	2,720	19,661
공업	소계	4,274,394	245,021	42,451	23,670	1,172,117	1,408,727	849,420	36,465	496,523
	공장용지	3,997,132	200,944	19,509	12,251	1,118,988	1,360,696	820,711	16,293	447,740
	창고용지	277,262	44,077	22,942	11,419	53,129	48,031	28,709	20,172	48,783
농업	소계	315,274,763	37,859,256	34,847,488	40,657,437	39,214,099	33,379,499	30,922,265	36,458,242	61,936,477
	전답	19,121,192	1,948,397	1,239,831	1,481,364	1,756,479	3,524,255	2,860,663	3,567,125	2,743,079
	과수원	50,568,982	6,406,003	5,112,117	6,758,943	4,452,306	7,810,049	5,699,217	6,747,493	7,582,854
	목장용지	477,800	183,985	80,153	27,016	29,860	58,670	20,058	-	78,059
	입야	1,384,403	40,857	296,069	354,735	126,977	91,034	125,283	43,016	306,432
교통	소계	243,722,386	29,280,014	28,119,318	32,035,379	32,848,477	21,895,491	22,217,044	26,100,608	51,226,054
	주차장 용지	10,128,912	1,239,168	579,382	866,315	2,560,508	1,306,404	1,057,321	722,302	1,797,513
	주유소 용지	67,624	6,825	12,738	425	17,369	11,330	6,111	-	12,826
	도로	15,052	2,703	-	-	6,084	3,603	506	-	2,156
수계	소계	10,046,237	1,229,640	566,644	865,890	2,537,055	1,291,471	1,050,704	722,302	1,782,531
	철도용지	0	-	-	-	-	-	-	-	-
	소계	41,978,452	5,207,162	2,318,187	3,392,712	4,114,152	7,864,377	5,694,813	8,519,266	4,867,783
	제방	2,460,265	317,481	149,414	282,428	202,378	384,820	364,055	567,795	191,894
	하천	30,823,648	3,700,584	1,378,086	2,178,083	2,704,713	5,856,215	4,364,586	6,858,076	3,783,305
	구거	6,754,439	811,667	538,836	698,637	937,927	1,272,541	829,556	892,025	773,250
	유지	1,782,593	377,430	251,851	229,183	231,899	250,428	124,417	198,051	119,334
기타	양어장	7,700	-	-	4,381	-	-	-	3,319	-
	수도용지	149,807	-	-	-	37,235	100,373	12,199	-	-
	소계	3,347,558	473,735	241,963	260,378	520,116	668,831	258,491	472,091	451,953
	광천지	0	-	-	-	-	-	-	-	-
기타	염전	0	-	-	-	-	-	-	-	-
	묘지	1,741,586	230,776	109,174	148,201	251,410	411,632	74,353	337,649	178,391
	잡종지	1,605,972	242,959	132,789	112,177	268,706	257,199	184,138	134,442	273,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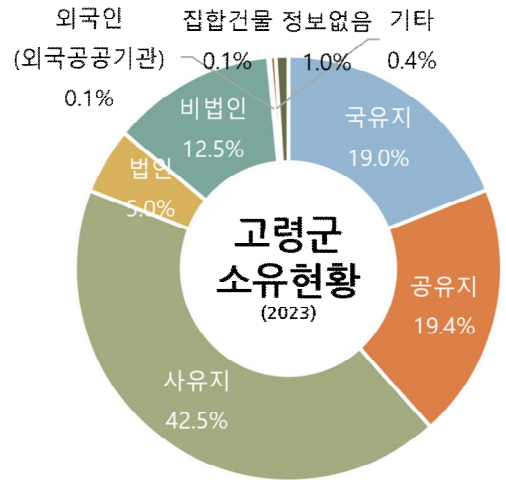
■ 대가야읍 ■ 덕곡면 ■ 운수면 ■ 성산면 ■ 다산면 ■ 개진면 ■ 우곡면 ■ 쌍림면



▲고령군 행정구역별 토지 지목 분포 현황

□ 소유 현황

○ 고령군 내 토지소유 현황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법인, 비법인, 집합건물, 외국인(외국공공기관), 기타(가지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유지가 고령군 전체 면적 대비 42.5%(163,404,0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공유지와 국유지가 각각 19.4%(74,568,729㎡), 19.0%(72,949,137㎡)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대가야읍은 국유지가 26.7%, 공유지가 20.0%로, 다른 행정구역에 비해 사유지(39.1%)보다 국가 및 지자체(46.7%)의 토지 소유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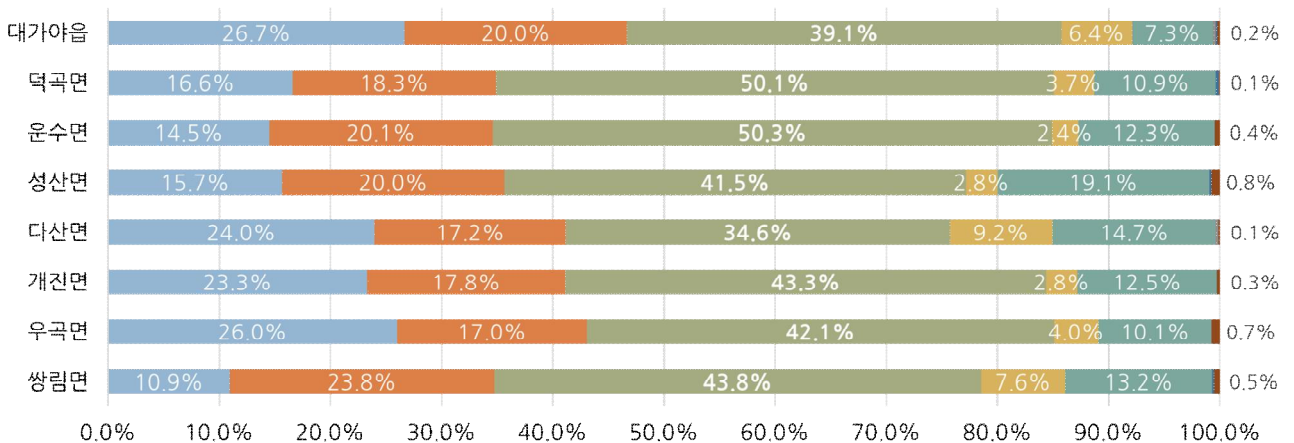
▲고령군 토지소유현황(2023)

▼고도 고령의 토지소유 현황(2023.05.25. 기준)

(단위 : ㎡)

구분	고령군 전체								
	합계	대가야읍	덕곡면	운수면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	쌍림면
합계	384,057,138	47,231,760	38,045,500	45,238,164	48,186,511	45,400,155	39,425,412	46,853,053	69,968,887
국유지	72,949,137	2,607,543	6,319,130	6,568,812	7,546,480	10,886,388	9,187,235	12,184,111	7,649,438
공유지	74,568,729	9,435,322	6,952,869	9,079,068	9,636,875	7,804,002	7,024,499	7,982,971	16,653,123
사유지	163,404,060	18,457,951	19,077,401	22,759,682	19,998,459	15,694,795	17,059,674	19,713,916	30,642,182
법인	19,311,696	3,018,739	1,395,500	1,072,172	1,365,441	4,189,150	1,102,117	1,867,286	5,301,291
비법인	47,931,335	3,425,905	4,164,884	5,554,448	9,186,643	6,669,074	4,946,587	4,754,863	9,228,931
집합건물	202,370	104,556	-	-	831	95,552	-	-	1,431
외국인(외국공공기관)	423,102	65,799	109,107	3,205	89,481	5,414	208	4,550	145,338
기타(가지변 등)	1,559,013	115,945	26,609	200,777	362,301	55,780	105,092	345,356	347,153
정보없음	3,707,696	-	-	-	-	-	-	-	-

■ 국유지 ■ 공유지 ■ 사유지 ■ 법인 ■ 비법인 ■ 집합건물 ■ 외국인,외국공공기관 ■ 기타



▲고령군 행정구역별 토지소유 분포 현황



### 3.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의 현황·계획

#### 3.1 기반시설 현황

- 2023년 도시·군계획시설 현황<sup>55)</sup>에 따르면, 고령군 기반시설은 공간시설이 55.9%(176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14.6%(46개), 교통시설 14.3%(45개), 환경기초시설 6.0%(19개), 방재시설 5.7%(18개), 유통·공급시설 3.5%(11개) 순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공간시설 중 녹지가 47.2%(83개)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공원은 24.4%(43개소), 공공공지가 17.6%(31개소)로 구성되어 있고, 광장은 4.5%(8개)로 그 중 교통광장이 7개소로 확인됨. 광장은 2011년부터 평면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 전환에 따라 교통혼잡 해결 및 비용 절감(운영 유류비, 에너지 소비 감소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파악됨.



▲고령군 기반시설 분포현황(2023)

#### 3.2 기반시설 조성계획

- 고령군의 기반시설 조성계획은 2023년 고령군 기존 예산 및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해당 예산기간에 발생하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음. 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중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고령군은 45세 이상의 장년층 및 노년층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노인복지센터)이나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복지센터건립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됨. 또한 출산·육아에 대한 통합적 지원책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맘행복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신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다산 건강가족센터조성사업 건립을 순조롭

55) 한국국토정보공사(2023), 도시계획시설통계(<https://www.data.go.kr/>)

게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 또한, 고령군은 청년희망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년 복합귀농타운 조성사업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청년희망이음센터 및 문화예술창작소 등을 건립하고 있으며, 청년특화거리를 조성하여 활발한 지역상권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고령군은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연조3리, 시장길, 인안1리) 매입 및 마을 공영주차장을 조성추진 중이며, 국지도 67호선 조기 완공과 지방도 905호선 확장, 대가야 하이패스 IC설치사업 등으로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함. 그 외 고령군은 공공청사 개발을 위하여 대가야읍 의회 청사 및 쌍림 상생교류센터를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중임을 확인함.
- 그동안 고령군은 상하수도, 도시가스, 교통시설 등 기초시설이 낙후되었고, 이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로서 여러 환경기초시설, 유통·공급시설 및 교통시설 관련 계획을 수립해왔음. 이에 고령군은 도시가스 및 낙동강 광역 상수도를 유치하고, 대구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시설을 확충해왔음. 현재 고령군은 낙후지역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밀착형 지역개발사업 시행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갔으며, 2022년 지역개발사업 경북도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sup>56)</sup>
- 2023년 고령군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6.4km<sup>2</sup>의 결정 현황면적에서 집행면적은 13.8km<sup>2</sup>로 계획대비 집행비율은 84.2%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최근 고령군은 전국 군 지역 최초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승인받았으며, 건강누리마을 조성사업을 신청해 선정됨에 따라 노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샘터서비스와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한 건강두레서비스 등 추진하고 있음. 또한 주요 생활 시설과 거주지가 집중된 대가야읍에 스마트 도시의 기반시설들을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세부시설 확충계획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고령군 기반시설 설치현황 및 조성계획 현황 분석

(단위 : 개)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2023), 도시계획시설통계(도시·군계획시설현황), 고령군(2021), 「2030 고령군 기본계획」

구분		계(설치계획)	설치현황	비고(설치계획)	
계		319(25)	315		
교통시설	합계	46(3)	45		
	도로	소계	21	21	
		일반도로	6	6	
		자동차전용도로	5	5	
		보행자전용도로	-	-	
		보행자우선도로	8	8	
		자전거전용도로	2	2	
		고가도로	-	-	
		지하도로	-	-	
	철도	-	-		

56) 뉴스프리존(2022), 「고령군, 2022년 지역개발사업 경북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구분		계(설치계획)	설치현황	비고(설치계획)	
	항만	-	-		
	공항	-	-		
	주차장	24	24	공영주차장 확충방안 추진*	
	자동차정류장	소계	1(3)	-	
		여객자동차터미널	1(1)	-	고령터미널 조성사업 추진*
		물류터미널	-	-	
		공영차고지	(1)	-	승강장 설치사업 추진*
		공동차고지	-	-	
	화물자동차휴게소	-	-		
	복합환승센터	(1)	-	광역환승 구축사업 추진*	
궤도	-	-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	-			
공간시설	합계	176(3)	176		
	광장	소계	8	8	
		교통광장	7	7	
		일반광장	-	-	
		경관광장	1	1	
		지하광장	-	-	
	건출물부설광장	-	-		
	공원	43(3)	43	우곡문화공원(1), 쾌빈소공원(1), 우륵생태공원(1), 근린공원 조성 추진*	
	녹지	83	83		
	유원지	3	3		
공공공지	31	31			
유통·공급시설	합계	11	11		
	유통업무설비	-	-		
	수도	8	8		
	전기	2	2		
	가스	-	-		
	열공급설비	-	-		
	방송·통신시설	1	1		
	공동구	-	-		
	시장	-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		
공공·문화체육시설	합계	46(15)	46		
	학교	18	18		
	공공청사	19(2)	19	의회청사(1), 쌍림 상생교류센터(1)	
	문화시설	3(3)	3	청년희망이음센터(1), 문화예술창작소(1), 실감형 체험관(1), 문화관광재단 설립추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5(3)	5	다산파크골프장(1), 고령실내체육관(1), 성산면생활체육시설(1)	
	연구시설	-	-		
	사회복지시설	1(7)	1	다산 건강가족센터(1), 노인복지센터(1), 장애인종합복지센터(1), 아이맘행복센터(1), 지역아동센터(1), 건강마을(2)	
	공공직업훈련시설	-	-		
	청소년수련시설	-	-		
	방재시설	합계	21	18	
하천		11	11		
유수지		10	10		
저수지		-	-		
방화설비		-	-		
방풍설비		-	-		
방수설비		-	-		
사방설비		-	-		
보건위생시설	합계	0	0		
	장사시설	-	-		
	도축장	-	-		
	종합의료시설	-	-		
환경기초시설	합계	19(4)	19		
	하수도	4(4)	4	농어촌 마을하수도(운수 봉평지구, 개진 진촌지구, 우곡 답곡지구)(3), 개진 군도 4호선 상수도관로(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5	5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	-		
	수질오염방지시설	10	10		
폐차장	-	-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사업시스템 타당성 검토마련 단계\*



## 4. 대가야 고령 고도 보존의 의의

### 4.1 지도자료를 통한 대가야 고도의 역사적 골격 지속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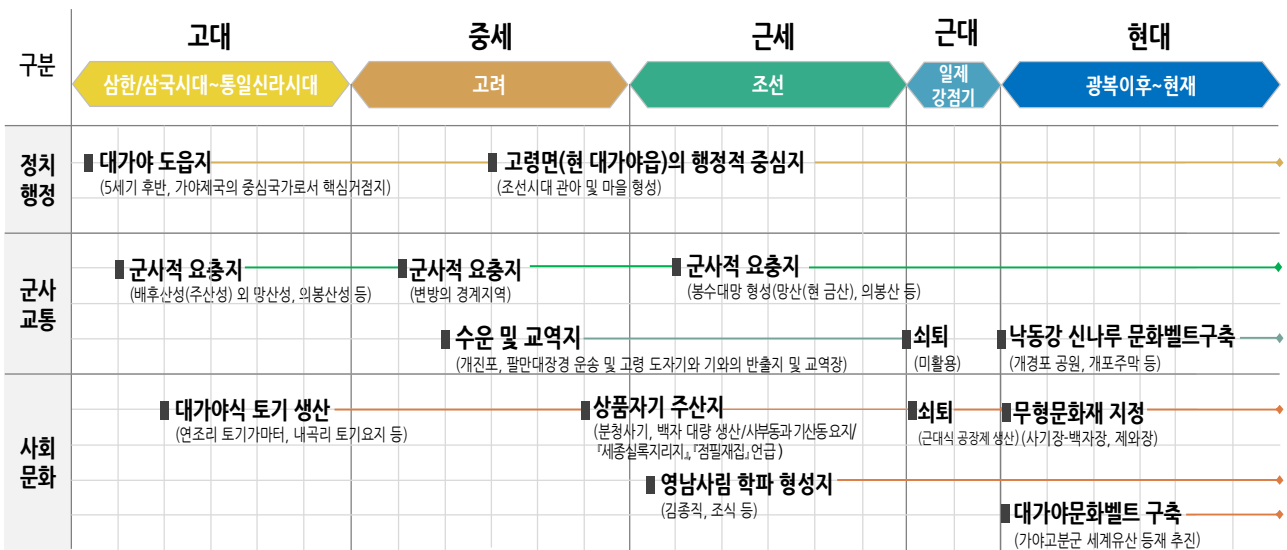
- 「해동지도」, 「여지도」, 「지승」 등 고지도에 표현된 고령의 도시구를 살펴보면, 현재 대가야읍 지산리·쾌빈리·연조리·현문리 일대로 추정됨, 또한, 지도에 표기된 주요 지명은 산지의 경우에는 가야산, 미숭산, 만대산, 옥산, 소학산, 이산이 있고, 하천의 경우에는 대가천, 합천, 낙동강이 있음.
- 주요 읍치시설로는 행정시설인 동헌, 객사, 창, 정자가 표기되어 있고, 교육시설인 향교, 군사시설인 봉수 등이 표기되어 있음.
- 이로 보아, 삼국시대 대가야시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주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산(주산)에 위치한 주산성이 고을의 중심지이자 천연의 요새로 기능하였고, 대가야읍이 주요 생활거점지로서 기능해온 것을 알 수 있음.
- 과거 측량식 지도인 「조선오만분의일지형도」 등 근세지도를 통해 고령군의 도시형성은 고령면(현 대가야읍)의 지산리·연조리·고아리·쾌빈리·현문리 일대로 확대되었음이 확인됨.
- 따라서, 대가야 고령의 핵심거점을 이루는 공간은 현재의 대가야읍 일대로 확인되거, 대가야읍 등의 행정지명 개칭을 통해 대가야의 역사성이 현재까지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지도자료를 통해 살펴본 고도 고령의 공간적 범역 및 역사적 골격

구분	회화식지도				근세지도
	해동지도 (朝鮮地圖, 1740년대 추정)	조선지도 (朝鮮地圖, 1767~1776년 이후)	여지도서 (輿地圖書, 1760년 전후)	영남읍지 (嶺南邑誌, 1895)	조선오만분의일지형도 (2차, 1911)
이미지					
주요 특징	‘가야산(伽倻山)’과 ‘미숭산(美崇山)’, ‘이산(耳山, 구이산, 주산)’ 등 주요 산 아래에 읍치 묘사	읍치는 홍색 원으로 표현하여 강조, 망산 봉수와 읍치 주변 소속면 표기(고곡면, 내곡면, 일양면 등 13개 면)	읍기에 3단(사직단·여단·성황당) 표기, 고령현의 지역구조 및 핵심범위 파악 가능	‘읍내면(邑內面)’ 표기 공간으로 강조, 읍치 주변으로 담장 묘사, 행정경계 및 수계, 소속면 표기(읍내면 등 13개 면)	고령내 고령면(高靈面) 지명 표기
	읍치 내·외부 핵심시설 표기(관아시설, 사찰, 정자, 강창(江倉) 등) 도로와 하천과 낙동강 표기	고령면의 일정한 공간 내 건물 집중 분포, 그 주변으로 등고선과 논 기호가 표기되어 있어 당시 토지이용현황(경작지) 유추 가능			

## 4.2 고령의 도시변화과정 고찰을 통한 도시기능 검토

- 선사시대의 고령은 암각화의 고장으로, 암각화를 비롯한 청동기시대의 다양한 유적이 밀집분포하고 있음. 이에, 선사시대부터 고령이 정주지역으로서 기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고대의 고령(~후삼국시대)은 한반도 고대 국가로서 가야제국의 최대 전성기(광범위한 영토 및 영향력)를 맞이함. 신라에 패망 후 ‘고령군’ 개명,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로서 역할하였음.
- 중세의 고령(고려시대)은 왜구의 침략을 막는 변방의 경계지역으로서 군사적 요충지이자 수로 교통의 중계지로 기능하였음.(낙동강의 관문으로서 개산포를 통해 팔만대장경 운송)
- 근세의 고령(조선~개항이전)은 군사적 요충지(봉수대망)이자 수운을 통한 공·사무역의 중계지로서 역할을 지속함. 조식과 김종직 등 영남사림의 학파 형성지이자 경북지방을 대표하는 도자기의 주산지로서 인식됨.
- 근대의 고령(개항~광복)은 일제의 행정구역 재편에 따라 고령군의 8면 체제를 수립함. 본격적으로 ‘임나일본부설’의 대가야 역사왜곡 시도 및 유물 탈취와 유적 훼손 및 민족 동화 정책의 근거로 악용되었음.
- 현대의 고령(광복이후)은 오늘 날, 고령은 군으로 승격되어 현재까지 120여년 정도 경과됨. 고령면의 행정적 중심지가 ‘대가야읍’으로서 대가야의 도읍지로서 명맥을 유지함.
- 이를 종합하자면, 고령은 고대국가인 대가야의 도읍지이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하였으나, 대가야 멸망 이후에는 주로 군사적 요충지이자 교역장으로서 역할한 것으로 확인됨.



▲고령군의 도시변화과정 특성분석 종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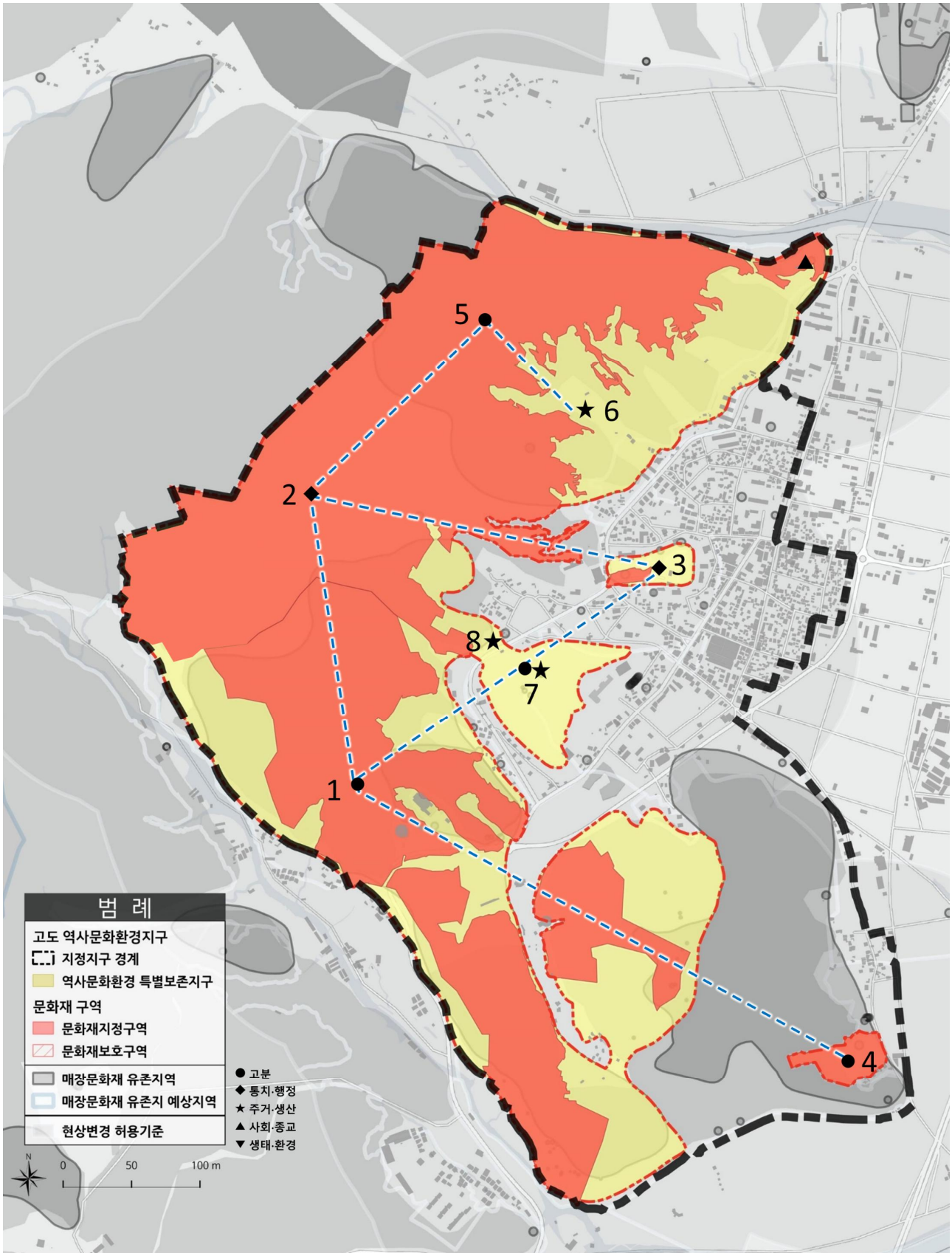
### 4.3 대가야 고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필요성 종합

- 고령은 5세기 후반 가야제국(諸國)의 중심국인 대가야(AD42~562)의 수도로, 각종 문헌자료와 고고자료를 통해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음. 대가야는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대내적으로는 삼국과 대등한 관계를 이루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일본 등과의 대외교류를 통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였음.
- 각종 문헌자료에서 보이는 대가야의 정치적·문화적 영향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전)대가야 왕궁지, 주산성, 지산동 고분군, 고아리 벽화고분의 대가야 핵심유적 외 대가야의 관방유적, 생산유적, 고분 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66개소)
- 또한, 동시기 다른 가야 및 신라와 차별화되는 독자적 문화를 구축했음을 보여주는 ‘대가야식 묘제’, ‘대가야식 토기’ 등 ‘대가야식’이라 칭해지는 금속품 등 출토 유적 및 유물들이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음.
- 이 밖에, 대가야 고령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을 포함하여 고도의 생성·발전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는 역사문화자원은 총 589개로 확인됨.
- 고령군의 토지이용 및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주거 및 상업지역이 분포한 지산리·연조리·쾌빈리·고아리 일대에는 노후화된 건축물이 89.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이 63.9%, 저층형 건물이 75.4%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함.
- 또한, 대가야읍에 대가야 핵심유적 및 대가야 관련 유적이 20.4%로 밀집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됨. 이에 따라, 향후 대가야읍의 재개발 및 대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대가야 핵심유적 및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이 우려됨. 아울러, 고령군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평균 연령은 54.5세, 65세 이상의 인구는 35.7%를 차지함으로써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됨.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지역 소멸 고위험단계에 해당되며, 연령별 인구 중 생산인구 비중이 경북지역 23개 기초자치단체 중 19위 차지하는 등 지역이 침체되고 있음을 확인함. 이로 인해, 찬란하고 유구한 대가야의 역사적 정체성을 함의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 및 고령 대가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훼손 및 소멸이 우려됨.
- 따라서, 고령의 대가야 고도로 지정함으로써, 고령의 고유한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 및 회복하고, 경관적 가치 보존을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 구축이 필요함. 또한, 고령군 특유의 역사적 정체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활성화가 필요함. 이를 통해, 고령의 역사문화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대가야 고도 고령의 역사적 골격을 형성하는 일체 요소의 미래세대로의 전승을 도모함.



▼대가야 고도 고령의 역사문화환경 특성분석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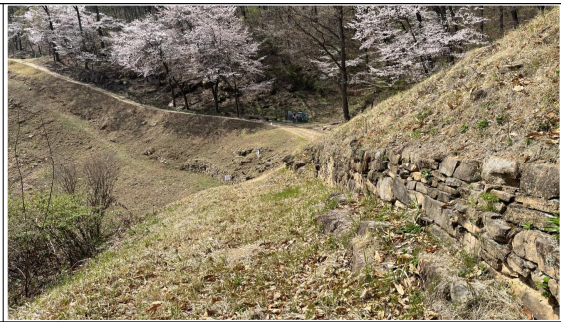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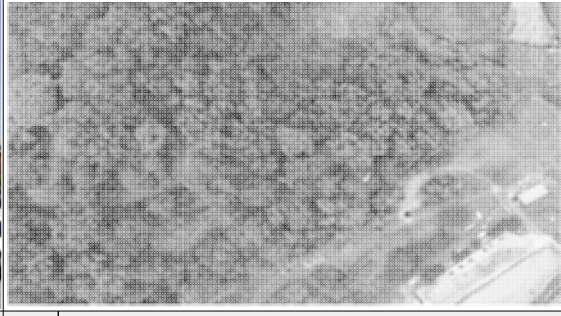

구분		관련 내용	주요 특성	비고	
유적 종합		고령 주산성,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전 대가야 궁성지 터, 연조리 고분군, 연조리 토기 요지 등	고도 골격을 형성하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역사문화 자원이 종합적으로 확인, 특히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대가야 핵심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고도로서의 경관을 나타냄		
입지배경·자연경관	자연·역사경관(유형)	분지형 지형, 낙동강, 회천, 대가천, 안림천, 가야산, 미송산, 주산 등	고령 분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대가천과 소가천이 만나는 부근에 고령평야 형성, 이는 산지와 낙동강 지류가 만나 다양한 크기의 충적지 형성과 이를 기반으로 촌락 발달의 주요인으로 작용, 왕도의 입지조건 충족 및 군사적요충지(군사 및 교역)로서의 입지 마련		
	생태환경(무형)	노거수(구신정 등), 학도래지, 철새도래지	옛 가야 구신정과 구신나무에 관련된 노거수와 고령군의 가야산, 만대산, 소학산 일대 서식하고 있는 학과 철새의 도래지		
역사문화자원	유형적	통치·행정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궁성 및 관아시설(객사 등) 등 정치 행정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는 시설(궁성, 성터), 군사적 방어 및 통치 영역의 구분을 위한 안보시설(성, 봉수)로서 크고 작은 산성과 봉수를 설치하여 대가야의 방비책 구축		
		기반시설	낙동강변 나루를 통해 고령의 읍내로 들어오는 교통과 관련된 유적으로 고령과 외부를 연결하는 수로 교통의 중계지이자, 교역장, 도자기와 기와의 반출지 등을 목적으로 한 기반시설		
		사회·종교	고령 장기리암각화, 지산리 바위구멍 유적, 고령향교, 기운암터, 지산리 당간지주, 매희서원, 반룡사 다층석탑, 경모재(사우) 등	선사시대의 암각화 및 바위구멍 유적과 사찰의 부속시설(탑·비·불상), 서원(사우)과 향교가 해당되며, 대가야시기의 지산리 숫돌유적을 비롯하여, 선사시대부터 당시 사회의 신앙적·종교적 역할로서 공동체 사회의 결집이나 유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	
		고분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연조리 고분군, 본관리 고분군 등	고도의 역사적 실체이자 고도다움을 형성하는 경관요소,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고아리 벽화고분 등으로 대가야 핵심유적으로 주로 대가야읍에 분포	
		주거·생산	지산리 개구리산 유적, 연조리 왕정(井), 연조리 토기 요지, 지산리 숫돌유적,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 내곡리 도요지, 지산리 주거유적, 사기장·백기장	고대(대가야)에는 왕도로서 기능하기 위한 주거지 및 생산시설, 부장품 및 생활용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릇 등을 공급하였던 생산시설(내곡리 도요지 등) 및 우물(왕정(井)) 등 주거유적 분포.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 한성 및 주변 지역으로 납품하기 위한 기와 및 자기 등을 생산하였던 가마터(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 쾌빈리 기와가마 등)분포. 이 밖에 조선시대 전통가옥과 영남사람의 김종직의 종가 등 조선 문인들의 고택, 고문서, 보부상의 유품 등 다수 분포	
	무형적	사건·장소	정견모주 신앙, 구신정 및 구신거리, 김면장군유적 등	대가야 건국설화인 정견모주설, 구신정과 구신거리,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동한 김면장군유적 등 고령의 역사적 상징성과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풍부한 스토리텔링적 요소 내포	
		고대	고령 주산성과 지산동 고분군, 그 주변 왕궁지 및 주거지	대가야의 핵심유적이자 통치행정·기반시설·사회종교·고분·주거생산 등 고도의 핵심문화요소	
	시대적	중세	쾌빈리 객사터 및 고령향교, 조선시대 문인들의 종택 및 서원, 서당 등	대가야의 도요지, 산성 및 봉수 및 사찰(개포리사지, 반룡사)등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운영	
		근세	사찰, 가마터, 나루터, 조선시대(문인) 종택 및 공파문적, 사우, 불망비	대가야부터 조선시대까지 상품도자기의 생산지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왔으며, 군수의 덕을 세우기 위한 불망비와 선현을 기리기 위한 사우 등 조성. 수운의 요지로서 나룻배를 이용하여 교통시설로 지속적 운영	
		근·현대	연자방아, 불망비, 천주교인안공소	민간신앙에 입각한 기타시설 및 근현대에 조성된 근대 건축	
역사문화가로경관	역사가로경관	대가야로, 주산길, 지산길, 향교길, 벽화길 등	동서축의 대가야로를 중심으로 주산길, 연조길, 향교길 등 남북축의 가로로서 역사가로경관 형성		
	생활가로경관	시장길, 왕릉로, 중앙로 등	대가야로와 연결되는 생활도로로서 중앙로, 시장길 등 군청, 터미널, 대가야광장 등 연결		
고도 생활경관		대가야읍 내 고령향교 주변 등	고령향교 및 전 대가야 궁성지, 연조리도요지 등을 중심으로 고도 생활경관축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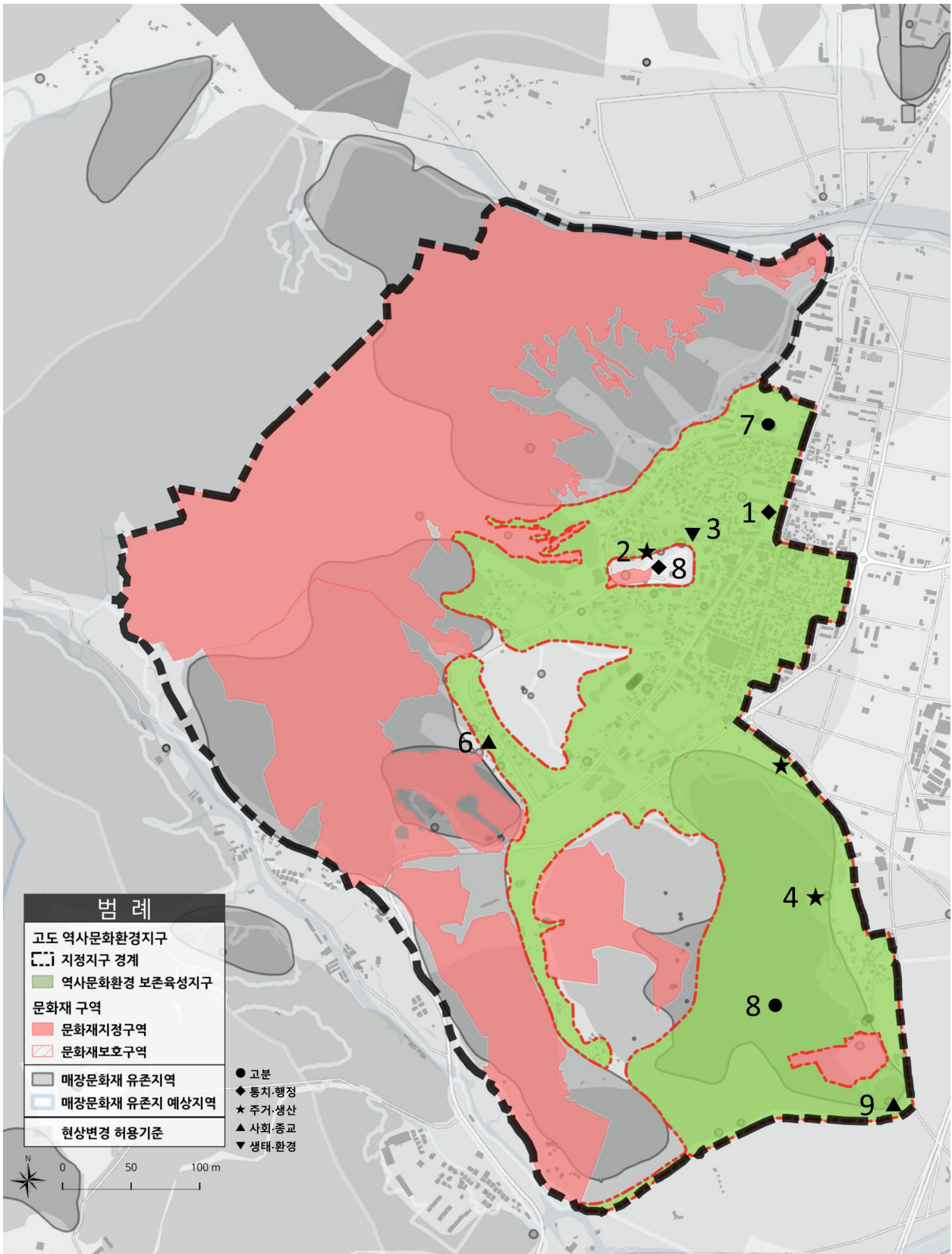
▲대가야 고도 고령의 고도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안)



▼대가야 고도 고령의 고도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안) 내 주요 역사문화자원










	
<p>1 고령 지산동 고분군</p>	<p>2 고령 주산성</p>
	
<p>3 전 대가야 궁성지</p>	<p>4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p>
	
<p>5 연조리 고분군</p>	<p>6 연조리 토기 요지</p>
	
<p>7 지산리 개구리산 유적</p>	<p>8 지산리 웅기가마터(조선)</p>
	
<p>9 연조리 우륵기념탑(현대)</p>	





▲대가야 고도 고령의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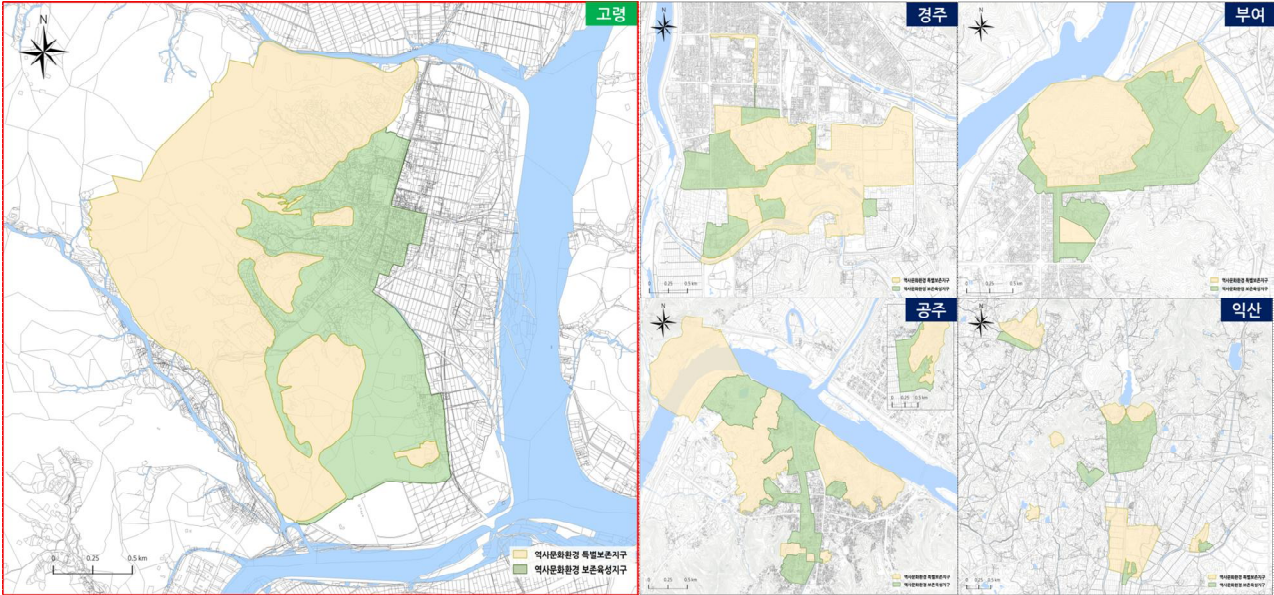
▼대가야 고도 고령의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안) 내 주요 역사문화자원

	
<p>1 연조리 왕정</p>	<p>2 연조리 숯가마터</p>
	
<p>3 구신정/연조리 느티나무</p>	<p>4 고아리 고분군</p>
	
<p>5 고아리 유적</p>	<p>6 지산리 숫돌유적</p>
	
<p>7 쾌빈리 객사터(조선)</p>	<p>8 연조리(조선)/고아리(고려)기와가마터</p>
	
<p>9 고아리 암각유적(청동기)</p>	



▼고령 및 4개 고도의 고도 역사문화환경 지정지구 특성 종합

-자료 : (재)역사문화환경정책연구원(2022),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연구」, 문화재청, pp.115~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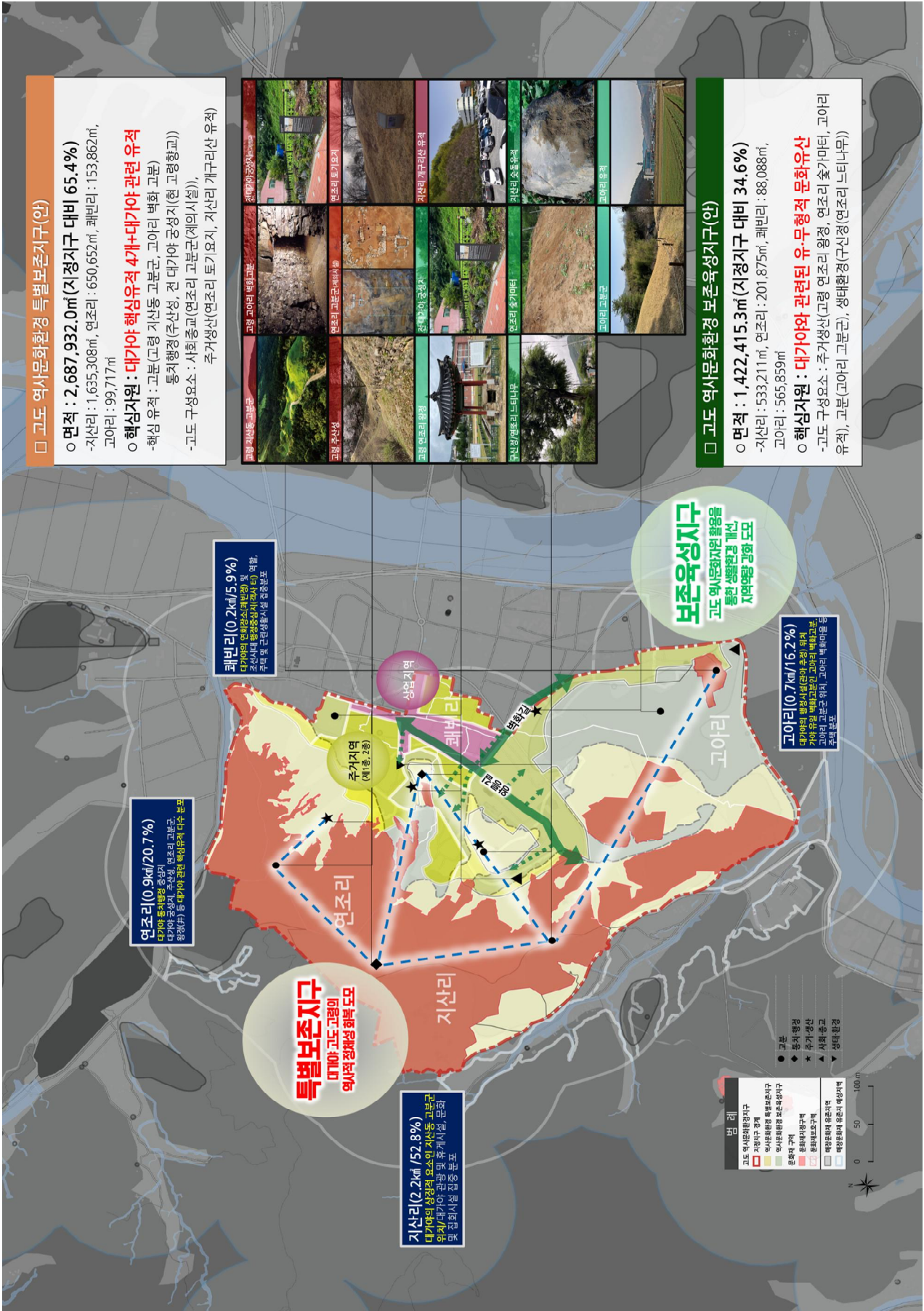


구분	고령	경주	부여	공주	익산
고도지구 지정면적 (전체 대비 행정구역 면적)	4,110,347.3㎡ (1.1%)	3,606,665.0㎡ (0.3%)	2,803,169.0㎡ (0.4%)	4,238,869.6㎡ (0.5%)	3,084,735.0㎡ (0.6%)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2,687,932.0㎡ (65.4%)	2,553,367.0㎡ (70.8%)	1,550,440.0㎡ (55.3%)	2,675,499.6㎡ (63.1%)	1,795,589.0㎡ (58.2%)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1,422,415.3㎡ (34.6%)	1,053,298.0㎡ (29.2%)	1,252,729.0㎡ (44.7%)	1,563,370.0㎡ (36.9%)	1,289,146.0㎡ (41.8%)
지구 지정형태	집중	집중	집중	분산, 집중	분산
지구 지정공간	도심	도심	도심	도심	외곽
고도지구 내 핵심자원	4개(대가야)	15개(신라)	13개(백제)	6개(백제)	8개(백제)
지정문화재	25개 (국가10/시도15)	79개 (국가71/시도8)	15개 (국가7/시도8)	35개 (국가22/시도13)	13개 (국가9/시도4)
세계유산	가야고분군(1)	경주역사 유적지구(24)	백제역사 유적지구(5)	백제역사 유적지구(2)	백제역사 유적지구(2)
도시특성					
면적	384.1km <sup>2</sup>	1,324.53km <sup>2</sup>	624.50km <sup>2</sup>	864.29km <sup>2</sup>	507.06km <sup>2</sup>
인구	3만 여명	26만 7천여명	6만 6천여명	10만 6천여명	28만 7천여명
재정자립도/자주도	10.7%/54.3%	28.2%/65.6%	9.2%/52.0%	13.9%/61.6%	14.5%/55.1%



▲4개 고도의 고도 역사문화환경 지구 모습(좌로부터 경주, 공주, 부여, 익산)





## Ⅲ. 고령의 고도지정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 1. 주민 설명회 개최(100여명 참석, 공감대 확인)

#### 1.1 주민설명회 개요

- 과업 명칭 : 고령 대가야 고도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 행사 목적 : 과업 취지와 제도(고도육성법)에 대한 이해 도모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청취
- 일시/장소 : 2023.07.14.(금) 14:00~15:30 / 대가야문화누리 가야금홀
- 참석 대상 : 고령군민 및 관계자 등 100여명
- 주요 내용 :
  - 과업의 추진목적 및 일정계획 소개(고령 대가야 고도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 고도보존육성제도 및 고도 관련 정책사업유형 소개(고도보존육성사업, 주민지원사업)
  - 기 지정된 고도(경주/부여/공주/익산)의 주요 사업추진 사례 및 성과 소개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과업 진행내용 설명(도시환경분석, 기본방향 등)
  - 고도 지정 추진 및 방향 등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등 의견수렴

#### ▼「고령 대가야 고도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주민설명회 주요 식순(2023.07.14.)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	◦ 개회 안내	고령군 문화유산과 문화재보존팀장
14:05~14:10	◦ 인사말	고령군수
14:40~14:40	◦ 고도 지정 추진 설명 - 고도 설명 및 사례 - 고도 지정 추진 방향 설명 등	(재)역사문화환경정책연구원 원장
14:40~15:10	◦ 주민의견 청취 등 질의 응답	

## 1.2 주민설명회 개최 및 운영결과

### □ 운영결과

- 참여자 : 고령군민 및 관계자 등 100여 명
  - 고령군민(90명), 방명록 기준(89명)
  - 고령군청(6명) : 이남철 고령군수, 조백섭 문화유산과 과장, 박재현 문화재보존팀장, 박일찬 담당, 강병수 주무관, 송치운 주무관
  - 연구기관(4명) : (재)역사문화환경정책연구원 조홍석 원장, 최지수 선임연구원, 하유정 연구원, 이지현 연구원
- 주민설명회 홍보 및 답례품 등 준비
  - 강당 출입구 배너 설치 및 강당 내 현수막 배치
  - 접수처에 답례품 배치
- 고령 대가야 고도 사업 추진 안내
- 고도보존육성제도 및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주요 성과 소개
- 과업의 주요 추진 경과 소개
- 고령 고도 추진 관련 질의응답

### □ 세부 설명내용

- 과업개요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과업의 범위, 과업의 주요 일정 등 소개
  - 추진배경 : 「고도육성법」 개정(2022.08.23.), 고도 지정기준 완화에 따른 지정 기회 확대
  - 추진목적 : 「고령 대가야 고도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대가야의 도읍지였던 고령의 역사문화자원을 종합적으로 점검, 고도로서의 역사적 정체성 규명 및 고도 지정의 당위성 검토
- 고령의 역사적 골격 및 가치규명 기회의 확대(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지역 침체에 따른 전환점 마련 시급, 고령의 역사적 정체성에 기초한 고도의 지정을 통해 고령의 지역활성화 계기 마련의 필요성 대두
- 고도보존육성제도의 이해 : 고도보존육성제도의 목적, 고도보존육성제도의 변화 과정, 고도보존육성제도의 주요 내용 소개
  - 고도보존육성제도의 목적 : 고도에 대한 용어 정의, 제도의 목적
  - 고도보존육성제도의 변화과정 :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취지 및 목적 변화 등
  - 고도보존육성제도의 주요 내용 : 고도 역사문화환경 지정지구(특별보존지구/보존육성지구) 내 행위규제 및 지원 사항 등



- 고도보존육성제도의 주요 성과 : 고도(경주/부여/공주/익산) 지정현황,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현황, 고도보존육성사업 주요 사례, 사업별 주요 성과 및 시사점 소개
  - 고도 지정현황 : 고도별 문화재 및 지정지구 면적 현황
  -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현황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주요 내용(목표/전략/예산/사업), 고도별 국가재정 지원현황(연도별 재원지원 규모),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의 추진현황 및 주민지원 사업부분 강화(주거환경개선/가로경관개선),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의 지원현황
  - 고도보존육성사업 주요 사례 :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의 주요 성과(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등)
  - 사업별 주요 성과 : 고도지정을 통한 지역적 파급효과(관광/지가/주민만족도)
  - 주요 시사점 도출 :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성과 및 한계 진단, 기반, 고령의 고도 지정 추진을 위해 반영이 필요한 주요 사항 도출
  
- 과업의 주요 진행경과 : 과업추진 기본방향, 고도 고령의 역사적 정체성의 규명, 고도 지정지구 설정을 위한 대안검토 소개
  - 과업추진 기본방향 : 과업의 비전 및 목표, 고령 대가야의 고도 역사문화환경의 단계별 관리 목표 및 고령 보존·육성사업 추진 로드맵(안)
  - 고도 고령 역사적 정체성 규명 : 문헌조사(고지도/문헌기록/문서), 도시변화과정 고찰, 고령군의 역사적·학술적 중요성 고찰, 고령 역사문화자원 분포 현황
  - 고도 역사문화환경 지정지구(안) : 지정원칙 및 방향 검토
  
- 제도 추진일정 : 고령군 내 고도보존육성사업 전개를 위한 추진일정 소개

□ 주요 질의 및 응답사항

- 질의1. 고도의 지정기준은?
  - 응답1. 「고도육성법 시행령」 제12조(고도의 지정기준)의 개정('22.08) 사항 소개, '특정시기 수도'의 개념에서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범위 확대 및 유연성 강화, 기 지정된 4개 고도 이외 추가적으로 고도 지정 가능성 개선됨.
  
- 질의2. 고도 추가 지정 수량의 제한여부는?
  - 응답2. 고도 추가 지정대상에 특별히 수량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다수 도시가 고도 지정 노력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유력 기회요인)
  
- 질의3. 고도 지정이 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변화가 있는지?
  - 응답3. 「문화재보호법」 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고도 지정에 따른 「고도육성법」 상의 '역사문화환경지구'는 근거법이 달라 직접적 관련성 없음.

○ 질의4.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지정지구가 대가야읍 전체를 포괄하는지?

- 응답4. 우선,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구의 범위는 대가야읍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않음. 또한, 최종안은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 절차를 거쳐 도출예정임. 아울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지정지구는 크게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로 구분되는데, 특별보존지구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핵심유적을 중심으로 비지정문화재 등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존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고, 보존육성지구는 특별보존지구 주변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음.

○ 질의5. 고도로 지정된 이후에 추가적인 규제사항이 있는지?

- 응답5. 고도로 지정되면 「고도육성법」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규제가 불가피함. 단, 기존 문화재보호법 상의 규제와 상충을 예방하는 한편, 고도이미지찾기사업 등의 적극적 추진으로 도시 인프라 개선 및 정주환경의 쾌적성 확보함으로써 지역활력의 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질의6. 고도보존육성사업을 신청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 응답6. 기본적으로 고도지정 신청과 지정여부 심사, 그리고 지정 후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등의 기간을 고려할 때 약 3~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조속한 고도지정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적극적 주민참여와 협조 필요)

○ 기타질의. 문화재 주변 지역 규제완화 방안?

- 기타응답.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 보호를 위해 주변 지역에 대해 일정부분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문화재 및 입지특성을 고려해서 경미한 행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완화된 절차에 따라 처리도 가능하니, 지자체 관련부서와 상의하여 가능여부를 점검한 후 추진하는 방안 소개

□ 주요 성과

○ 고도보존육성제도의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 증진

- 고도육성법 목적(정체성 회복, 주민생활개선) 및 경과(법령 제·개정 등)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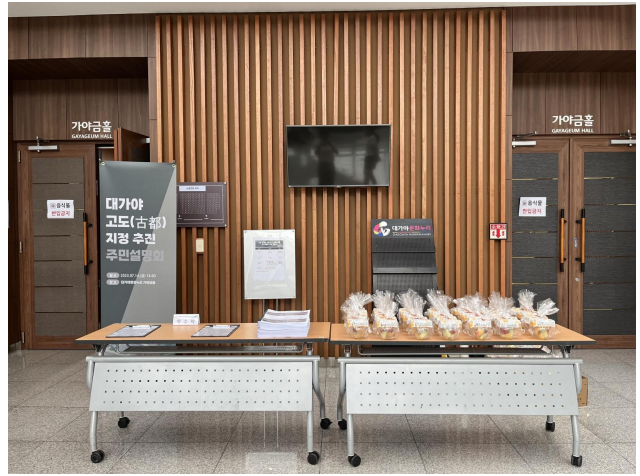
○ 대가야 고령의 고도 지정 사업추진의 공감대 확대

- 기회요인(세계유산 등재) 및 취약요인(지역침체) 설명, 사업추진의 필요성(국비지원 근거 마련) 및 시급성(지역활성화)에 대한 군민 이해 도모

○ 주요 고도의 사업추진성과 소개에 따른 기대심리 확대

- 4개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의 기 추진 사업(보존육성, 주민지원 등)의 성과 및 한계 소개, 규제 수용 필요성 및 기대효과(활력증진) 공감 기반 마련

□ 현장사진(2023.07.14.)



▲고령 대가야 고도 지정 추진 주민설명회(2023.07.14.) 주요 모습



□ 고령 대가야 고도 지정 추진 주민설명회 방명록

**고령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 추진 주민설명회 방명록**

2023. 1. 14(월) 14:30-18:30

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서명
1	정 성태	010-9876-1234	고령시	[서명]
2	김 영준	010-1234-5678	-	[서명]
3	홍 대성	010-9876-5432	-	[서명]
4	박 지민	010-1234-9876	고령시	[서명]
5	최철민	010-9876-1234	고령시	[서명]
6	최지민	010-1234-5678	고령시	[서명]
7	홍지훈	010-9876-5432	고령시	[서명]
8	이우진	010-1234-9876	고령시	[서명]
9	김민준	010-9876-1234	고령시	[서명]
10	신민준	010-1234-5678	고령시	[서명]
11	김민준	010-9876-1234	고령시	[서명]
12	신민준	010-1234-5678	고령시	[서명]
13	홍민준	010-9876-5432	고령시	[서명]
14	최민준	010-1234-9876	고령시	[서명]
15	김민준	010-9876-1234	고령시	[서명]

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서명
16	이민준	010-1234-5678	고령시	[서명]
17	김민준	010-9876-1234	고령시	[서명]
18	신민준	010-1234-5678	고령시	[서명]
19	홍민준	010-9876-5432	고령시	[서명]
20	김민준	010-1234-9876	고령시	[서명]
21	김민준	010-9876-1234	고령시	[서명]
22	김민준	010-1234-5678	고령시	[서명]
23	신민준	010-9876-5432	고령시	[서명]
24	김민준	010-1234-9876	고령시	[서명]
25	김민준	010-9876-1234	고령시	[서명]
26	신민준	010-1234-5678	고령시	[서명]
27	김민준	010-9876-5432	고령시	[서명]
28	홍민준	010-1234-9876	고령시	[서명]
29	김민준	010-9876-1234	고령시	[서명]
30	이민준	010-1234-5678	고령시	[서명]

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서명
31	김민준	010-9876-1234	고령시	[서명]
32	신민준	010-1234-5678	고령시	[서명]
33	김민준	010-9876-5432	고령시	[서명]
34	이민준	010-1234-9876	고령시	[서명]
35	김민준	010-9876-1234	고령시	[서명]
36	신민준	010-1234-5678	고령시	[서명]
37	홍민준	010-9876-5432	고령시	[서명]
38	김민준	010-1234-9876	고령시	[서명]
39	김민준	010-9876-1234	고령시	[서명]
40	신민준	010-1234-5678	고령시	[서명]
41	홍민준	010-9876-5432	고령시	[서명]
42	김민준	010-1234-9876	고령시	[서명]
43	신민준	010-9876-1234	고령시	[서명]
44	홍민준	010-1234-5678	고령시	[서명]
45	김민준	010-9876-5432	고령시	[서명]

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서명
46	김민준	010-9876-1234	고령시	[서명]
47	홍민준	010-1234-5678	고령시	[서명]
48	김민준	010-9876-5432	고령시	[서명]
49	김민준	010-1234-9876	고령시	[서명]
50	김민준	010-9876-1234	고령시	[서명]
51	홍민준	010-1234-5678	고령시	[서명]
52	김민준	010-9876-5432	고령시	[서명]
53	김민준	010-1234-9876	고령시	[서명]
54	홍민준	010-9876-1234	고령시	[서명]
55				
56				
57				
58				
59				
60				

**고령 대가야 고도(古堡) 지정 추진 주민설명회 병명록**

2023. 1. 14(화) 14:00~19:00

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서명
1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2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3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4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5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6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7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8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9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10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11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12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13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14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15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서명
16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17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18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19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20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21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22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23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24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25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26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27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28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29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30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서명
31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32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33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34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35	김영환	010-9876-1234	고령시 대가야동 123번지	김영환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2. 적극적 참여 및 추진 의사 확인

### 2.1 2024년 고령 대가야 축제 고도지정 추진 홍보부스 운영 개요

- 행사 명칭 : 고령군 백년지대계! 고도(古都)를 아시나요?
- 행사 목적 : 제도(고도육성법)에 대한 이해 도모 및 고령 대가야 고도 지정추진 참여의사 확인
- 일시/장소 : 2024.03.29.(금)~03.31.(일), 10:00~22:00 /대가야박물관 앞
- 참여 대상 : 고령군민 및 주변 지역 주민 등 1,400여명
- 주요 내용 :
  - 고도보존육성제도 및 고도 관련 정책사업유형 소개(고도보존육성사업, 주민지원사업)
  - 기 지정된 고도(경주/부여/공주/익산)의 주요 사업추진 사례 및 성과 소개(고도이미지찾기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고령 대가야 고도 지정 추진에 대한 의사 확인



▲고령 대가야 축제 고도지정 추진 홍보부스 운영(2024.03.29.~03.31.) 주요 모습



## 2.2 주민설명회 개최 및 운영결과

### □ 운영결과

- 참여자 : 고령군민 및 주변 지역 주민 등 1,400여 명(방명록 기준 1,365명)
- 홍보부스 운영 및 답례품 등 준비
  - 부스 출입구 배너 설치
  - 부스 내부 고도보존육성제도 소개 및 사업 추진현황 관련 배너 배치
  - 접수처에 답례품 배치

▲고령 대가야 고도 지정 추진 홍보부스 방명록

### □ 세부 설명내용

- 고도보존육성제도의 소개(취지와 목적)
- 「고도육성법」 상 주요 관리대상
- 고도보존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의 유성(보존육성/주민지원/고도이미지찾기 사업)
-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 대가야 고령의 고도지정 추진 당위성(지정의 이유)



### 3. 고령군의 역사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

#### 3.1 대가야 고령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 노력(발굴조사 등)

- 2023년, 고령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등재(84ha)
- 2019년, 탐방로 발굴조사(지산동 605호분)로 건국신화가 새겨진 토제방울 출토
- 2018년, 지산동 고분군 604호분 조사(충청문화재연구원)
- 2012년, 지산동 고분군 518분 조사(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2007년, 지산동 고분군 73~75호분 조사(대동문화재연구원)
- 1994년, 지산동 고분군 40호분 조사(영남문화재연구원)
- 1978년, 지산동 고분군 32~35호분 조사(계명대박물관)
- 1977년, 지산동 고분군 44~45호분 조사(경북대박물관)

#### 3.2 대가야 고령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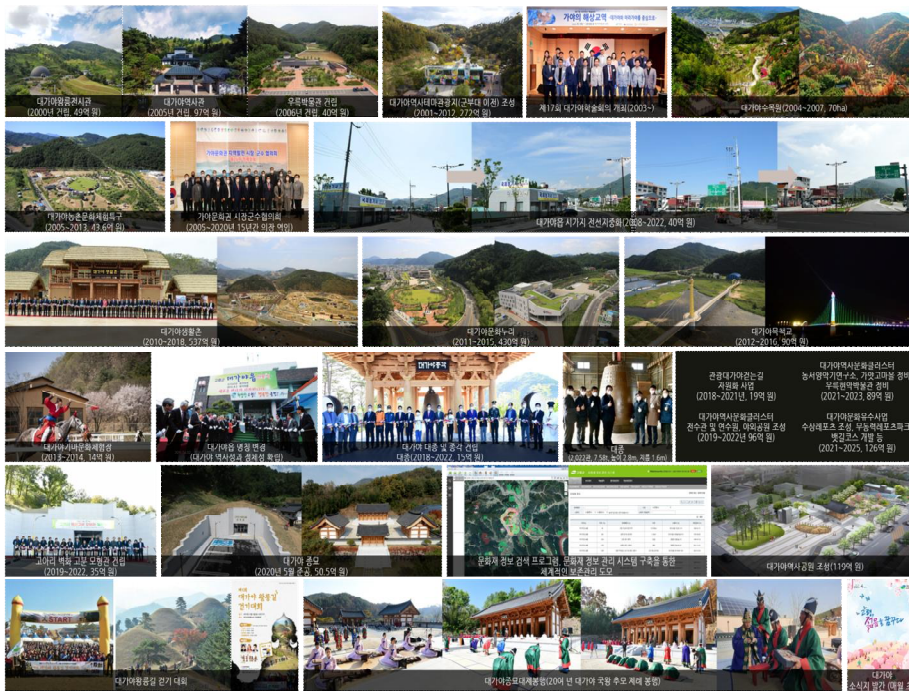
- 2000년, 대가야왕릉전시관 건립
- 2001년~2012년, 군부대 이전 및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조성
- 2003년~, 대가야사 학술회의 개최(17회 개최)
- 2004~2007년, 대가야수목원 조성
- 2005년, 대가야박물관 건립
- 2005년~2020년까지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 의장군 유지
- 2005년~2013년,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조성
- 2006년, 우륵박물관 건립
- 2008년~2022년, 대가야읍 경관개선(전선지중화 등)
- 2010년~2018년, 대가야 생활촌 조성
- 2011년~2015년, 대가야문화누리 건립(체육센터/예술회관/문화원 등)
- 2012년~2016년, 대가야목책교 조성
- 2013년~2014년,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조성
- 2015년, 대가야읍 명칭 변경(고령읍→대가야읍)
- 2018~2022년, 대가야 대종 및 종각 건립
- 2019~2022년, 고아리 벽화 고분 모형관 건립
- 20여년간 대가야 종묘대제 봉행



### 3.3 대가야 고령의 역사적 정체성 회복 노력

- 1973년~, 대가야문화예술제
- 1992년~,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33회 개최)
- 2005년~, 대가야축제(문화관광 축제 선정)
- 2018~2021, 대가야걷는길 관광자원화 사업
- 2019~2022,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 조성(전수관 및 연수원 조성)
- 2021~2025, 대가야문화유수사업(수상레포트 조성, 무동력레포트파크, 뱃길코스 개발 등)

#### >대가야 고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고령군의 노력



#### <대가야 고령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를 위한 발굴 조사경위 및 결과>

- 1977년 경북박물관 제44호본 조사  
계명박물관 제45호본 조사
- 1978년 계명박물관 제32~제35호본 조사
- 1994년 영남문화재연구원 제30호본 조사
- 2007년 대동문화재연구원 제73~제75호본 조사
- 2012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제518호 조사
- 2018년 충청문화재연구원 제604호 조사
- 2019년 탐발로 발굴조사(605호본)로 권국신화개 새 거진 토제방울 출토
- 2023년 고령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지평면적 830,181㎡(84ha) 706기 중, 260기 명 228기(한제 7기, 12기 불굴)

#### >대가야 고령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대가야 관련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전개





## Ⅳ. 보존육성사항의 타당성·효과성·충실성

### 1. 대가야 고령, 고도 지정의 당위성 검토결과

### 역사적 측면

## 고도지정의 필요성

### NECESSITY

- '가야사 인식개선' 적극 추진에 따른 **대가야 역사적 정체성 강화 필요**
  -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 대한 국가기관의 발굴조사는 17기에 불과, 고도 지정을 통해 대가야의 역사성을 도시적 차원에서 정립 필요
  - 지산동 고분군의 **대가야 핵심유적**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제도 마련 필요
- 고령은 가야의 중심지이자 대가야의 500여 년간의 도읍지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요소 다수 보유, **대가야 고령의 품격있는 역사도시로서 안정감 있는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 필요**
  - 가야 최고의 '지산동 고분군' 포함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국내·외적 지명 증가 기대
- **대가야 특성을 고려하여 가야권의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고령의 주요 역할 강조 필요**
  - 경남 김해(금관가야), 함안(아라가야), 천북(전주(후백제)) 등 고도 지정 계획 및 추진(23) 가야의 중심적 역할이자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고령군(대가야)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필요

**고령 지산동 고분군 포함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기회요인 적극 활용 및 사업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고도지정 적극 추진 필요**

#### <대외적 주요 추진사업>

- 2017년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와 정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  
(2017년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 2015년~2019년
  - 역사문화권 범용 계획 (가야, 천북, 함안역사문화권)
  - 가야 문화 (해남문화, 신안문화, 목포문화)
- 2019년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 2020년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400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설정

가야 역사·문화·연구용서 발견  
가야사 1차 고고학 역사 조사와 연구 성과 발표

2023년  
고령 고분군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가야고분군)

#### <대내적 주요 추진사업>

2009년 대가야사태사태관리계획 조성	2015년 고령읍 → 대가야읍 행정구역 개편 변경	2018년 대가야사 연구 복원사업 대가야문화권, 고령역 역사고분 등	2020년 대가야 중요 건립사업 대가야유적지구 추진	2022년 대가야 전입부 관문 관광사업 및 대가야 대중 및 동국 건립사업 추진
-------------------------	-----------------------------------	---	------------------------------------	---

### 도시지역/경제적 측면

## 고도지정의 시급성

### URGENCY

-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고위험 단계**
  - 소멸위험 지수 0.18(소멸 고위험 단계: 0.30 이하)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소멸 고위험지역 해당
  - 연령별 인구 중 생산인구 비중이 경북지역 23개 기초자치단체 중 19위 차지
  - 평균 연령은 54.5세, 65세 이상 인구 35.7%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
- **고령군의 경주여건 및 생활기반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침체**
  - 대가야읍이노후 간혹물 89.1%, 광역교통 네트워크 미흡 (고속버스 1대(4회), 시외버스 4대 운영)
  - 광역교통망 확대에 의한 인구유출 증가, 대구경지권 영향으로 인한 지역 상권 쇠퇴
- **체류형 관광기반시설 미흡 등 외부 요소 확충을 위한 인프라 부족**
  - 숙박업소의 도우화 및 시설개수 미비(14개소, 2010년 이후 신설사례 미확인)
- 대가야핵심유적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시 **고도지구 지정 이후 보존육성사업 시행 난항 우려**

**고령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시급**

#### 소멸위험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19위  
전국 기초자치단체 23위

대가야문화권 내  
시군구 고령위 지수

#### ▲ 경북지역 연령별 인구 비중 (2020년 기준)

지역	19위
포항	19위
경주	19위
구미	19위
안동	19위
영주	19위
영천	19위
상주	19위
문경	19위
경산	19위
군위	19위
의성	19위
청송	19위
영양	19위
영덕	19위
경도	19위
고령	19위
성주	19위
칠곡	19위
예천	19위
봉화	19위
울진	19위
울릉	19위



### 사업적 측면

# 사업추진의 효율성 EFFICIENCY

- 최근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기반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정비사업의 확충노력 본격화, 고령은 그간 각고의 노력 끝에 **2023년 9월 가야고분군(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쾌거**
- 기 지정된 고도의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추진으로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 지역명소와 등 지역발전과 관련된 성과지표의 긍정적 변화 확인, **고령군의 고도지정 이후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가능** (약 138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513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 기반으로 지역 정체성을 가시화하기 위한 자체적 노력 지속,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업 구체화 작업 추진 예정**

- 세계유산 등재와 연계한 고령의 시너지 효과 기대, 고도보존육성사업 진계를 위한 단계별 토대 구축 도모

'가야고분군', 한국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고령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23.09)

**고령 지산동 고분군 포함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기회요인 적극 활용 및 사업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고도지정 적극 추진 필요**








기 지정된 4개 고도의 고도이미지장 사업 사례

### 정책적 측면

#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CONFORMITY

- **면단위 역사문화환경 보호 관리 제도적 노력 본격화 추세** (산악문화경관(의), 역사문화경관(의), 향토도시경관(의), 세계유산(의))
  - 고도육성법 개정에 따른 고도지정 기회 확대, 문화재기본계획 등 지역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계획 추진
- **가야사에 대한 역사적 가치 재평가 및 정체성 규명 노력 본격화** (국경재정비사업(의), 역사문화재조사연구및 정비사업(의))
- 광역자치단체에서 낙동강·가야문화권 광역거점사업 추진, 역사문화재협회가 함께하는 글로벌 관광인프라구축 계획 수립
  - 제5차(2021~2040)국토종합계획, 내 강상북도는 역사, 문화, 체험이 함께하는 글로벌 관광인프라 구축(가야문화권 관광거점 조성, 「경상북도 종합계획」(2021~2040)에서는 한국대표 역사관광도시 조성사업(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낙동강 가야문화국제화 등) 추진
- 고령에서 대가야를 주제로 한 '더 큰 대가야 프로젝트(대가야 고성지 발굴 및 정비 등) 추진 및 고도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고도 지정에 대한 일관되고 적극적인 의사충만, 지역주민공감대 확보**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 2004년 고도육성법 제정
- 2011년 관광문화재단 설립
- 2015년~2019년 역사문화권 법률 제정
- 2019년 신라왕릉법 제정
- 2020년 역사문화권진흥법 제정

**고령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일체적 관리 및 고도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확인 및 노력 지속**

고령 '대가야 고도 지정 주민 관련 보도자료 2회' 게재  
<고령군의 적극적인 의지 확인>



역사문화경관법 제정에 따른 '가야문화권 활용'



경상북도 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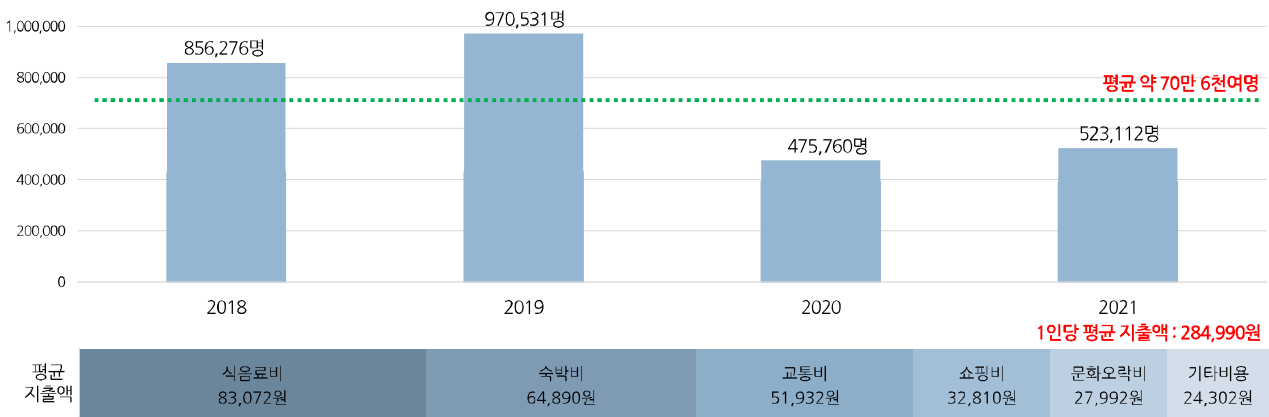




## 2. 대가야 고령, 고도 지정이 주변 지역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 2.1 경제가치 분석

- 고령군의 고도 지정 이후 생기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4개 고도를 대상으로 고도 지정 이후 얻게 된 관광객 수와 방문 시 1인당 평균 지출액에 대한 증가율을 산정함. 19년 기준, 4개 고도의 관광객 수에 대한 증가율은 42.6%이며, 1인당 평균 지출액 증가율은 15.4%로 확인됨.
- 고령군의 최근 4개년 방문자 변화 추이를 보면, 18년부터 21년까지 평균 방문객 수는 약 70만 6천 여명으로 확인됨. 고령군에서 관광객들이 지출한 경비는 1인 평균 약 284,990원으로 식음료비의 지출이 83,072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숙박비가 64,890원, 교통비가 51,932원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sup>57)</sup>



#### ▲고령군 내 방문객 수('18~21) 및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액

-자료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2023), 빅데이터로 본 고령관광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 고령군의 고도 지정 이후, 관광객 수요는 관광객의 증가율 42.6%를 반영하여, 약 1,008천 명/년으로 추정되며, 1인당 지출액은 15.4%의 증가율을 산정하여 약 328,878원/년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관광적 측면에서 고령군의 지역 경제 가치는 연간 약 3,314억 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됨.

고령군의 고도 지정을 통한  
 관광객 수는 약 1,008천명/년이며, 1인당 지출액은 약 328,878원/년으로  
**‘약 3,314억 원의 지역의 경제가치 발생’**

57)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2023), 「빅데이터로 본 고령관광」

## 2.2 정책적·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고�령의 고도 지정 이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고도 지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4개 고도 중 공주의 고도보존육성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기초로 하여 분석함. 공주는 고�령의 고도 역사문화환경 지정지구 특성(면적(약 4.1km<sup>2</sup>), 지정형태(집중), 지정공간(도심))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규모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됨.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이 시행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공주의 평균 국고보조금인 약 51.0억 원을 대상 금액으로 설정함.
- 2021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9 산업연관표<sup>58)</sup>’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산정하고자 함. 고�령군의 고도 지정 및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부문별 유발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함.
-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시행으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부문은 크게 제조업 부문(C, 음식료품, 목재 및 종이·인쇄, 기타 제조업제품)과 건설업 부문(F) 그리고 서비스 부문(도매 및 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 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이 해당됨.

### ▼고령군의 고도 지정 및 고도보존육성사업에 따른 부문별 파급효과

(단위 : 원)

-자료 : 고�령군청, 통계연보 ; 한국은행(2021), 2019 산업연관표

적용 부문(한국산업표준분류)		구성비	대상금액	비고
합계		1.00	5,102,632,600	
C	음식료품	0.07	379,137,254	
	목재 및 종이·인쇄			
	기타 제조업 제품			
F	건설	0.07	336,599,903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0.31	1,597,924,816	
H	운송서비스	0.08	416,126,254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01	36,989,000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01	57,332,951	
L	부동산서비스	0.02	125,762,601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02	77,676,901	
N	사업지원서비스	0.01	59,182,401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1	53,634,051	
P	교육서비스	0.03	160,902,152	
Q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04	199,740,602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18	941,370,059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0.02	123,913,151	
S	기타 서비스	0.11	536,340,505	

58) 한국은행(2019), 2019년 산업연관표

- 각 부문별 사업추진비는 대상 금액인 약 51.0억 원을 현재 고령군의 산업별 사업체수<sup>59)</sup>에 따라 산출한 구성비를 반영하여 설정함. 고령군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가 1,597,924,816원(약 15.9억 원)원으로 사업추진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가 941,370,059원(9.4억 원), 기타서비스가 536,340,505원(5.3억 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고령군의 고도 지정 및 사업추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9,597,045,465원(약 95.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260,462,884원(약 42.6억 원)으로 총 13,857,508,349원(138.5억 원)으로 나타남.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을 때, 고용유발효과는 약 513명으로 분석됨.

▼고령군의 고도 지정 및 고도보존육성사업에 따른 부문별 파급효과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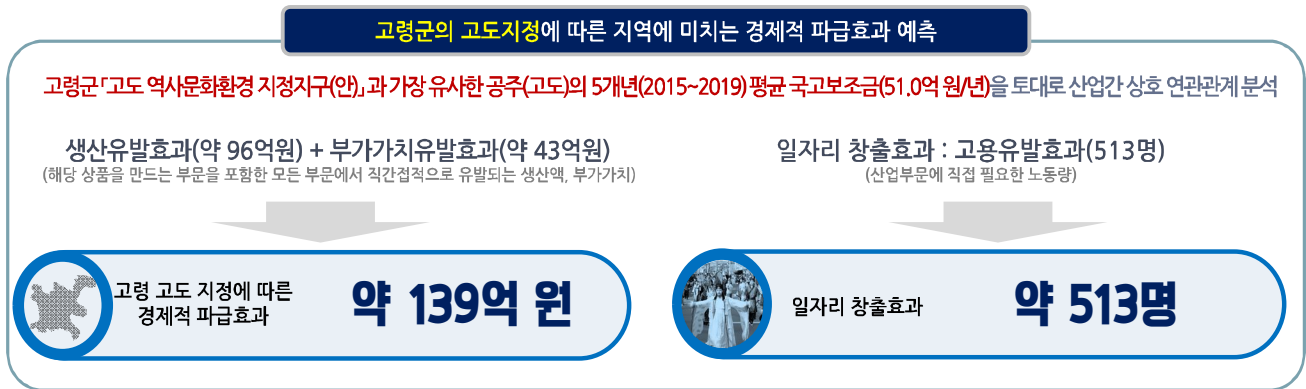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2021), 2019 산업연관표

적용부문 (한국산업표준분류)		생산유발효과(A)		부가가치유발효과(B)		고용유발효과		총 파급효과 (A)+(B)
		생산유발계수	파급효과	부가가치계수	파급효과	고용계수	파급효과 (명/10억)	
합계		-	95.9	-	42.6	-	513.6	138.5
C	음식료품	2.199	8.3	0.757	2.9	5.951	22.6	11.2
	목재 및 종이인쇄							
	기타 제조업 제품							
F	건설	2.000	6.7	0.824	2.8	6.727	29.3	9.5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754	28.0	0.876	14.0	8.470	165.7	42.0
H	운송서비스	1.768	7.4	0.658	2.7	8.707	33.7	10.1
J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1.624	0.6	0.859	0.3	10.369	2.6	0.9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642	0.9	0.923	0.5	8.107	3.6	1.5
L	부동산서비스	1.440	1.8	0.959	1.2	7.018	4.5	3.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1.811	1.4	0.862	0.7	6.237	7.1	2.1
N	사업지원서비스	1.522	0.9	0.916	0.5	3.559	8.0	1.4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64	0.7	0.922	0.5	9.118	4.7	1.2
P	교육서비스	1.500	2.4	0.926	1.5	13.471	18.3	3.9
Q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748	3.5	0.837	1.7	8.686	25.8	5.2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160	20.3	0.824	7.8	11.397	96.1	28.1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767	2.2	0.883	1.1	12.937	11.4	3.3
S	기타 서비스	1.996	10.7	0.831	4.5	10.212	80.2	15.2

59) 고령군청,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통계연보)



- 종합적으로, 고령군의 고도 지정 및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에 미치는 정책적·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9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43억 원으로 총 139억 원의 정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 고용유발효과로는 약 513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고령의 고도 지정 및 사업추진으로 얻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장기간 걸쳐 나타나기보다는 해당 사업비의 투입 기간에만 발생하는 간접효과라고 볼 수 있음.



**고령군 고도 지정 및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추진으로**  
**전체 생산유발효과는 약 9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3억 원으로 '총 139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로 '약 513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고령군 고도지정에 따른 정책적·경제적 파급효과

# 고도지정을 위한 우리의 다짐

고령 지산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유산보호(遺産保護)

Heritage Protection

Наследие и охрана

유산의 가치를 지키는 **고도가 되겠습니다.**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사적)  
대기아 핵심유적



고령 주산생사적  
대기아 핵심유적



고령 장거리 암각해부물  
국보 습격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

동반성장 중심 도시  
**고령**

**대가야 고령**

- 아리가야 할안
- 비화가야
- 소가야
- 금관가야 김해

**동반성장(同伴成長)**  
Synergy Effect/Shared Growth

이웃(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고도가 되겠습니다.**



가이문화권 학술대회



주민역량강화 사업  
고도주민협의회(부여)

가치창출 중심 도시  
**고령**

**가치창출(價値創出)**  
Shared Value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고도가 되겠습니다.**

- 대가야 고령의 자긍심, 세계 속의 가야문화 특별시 조성 박차  
(2017.01.16, 경북092)
- 고도 지정으로 옛 영화 재현...경북 고령군 추진 속도  
(2015.07.31, 한국일보)
- 더 높은 곳, 더 큰 왕의 기쁨...경남 고령 대가야  
(2015.06, 한국일보)
- '세계유산' 도시 고령, 새 역사 관광 등  
대가야속채(2010. 14. 대구) 고령한구 체험
- 대가야프로젝트  
대가야공정직발전회사
- 고령 자산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2023. 9. 17. (18)

고령 자산동 고분군(세계유산)  
한국의 16번째 세계유산 등재



# 대가야 고령, 고도 지정의 이유

자율과 공존의 나라, '가야',  
가야의 중추적인 핵심도시, 대가야 고령



## Why, 왜 가야(加耶)인가?

→ 「가야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및 지역상생발전 기회 확보

- 우리나라 고대사 삼국시대 중심 역사관의 한계, **가야사에 대한 역사적 인식 상대적 부족**, 「고도보존법(04), 제정 시, 신라 및 백제 중심 지정(경주, 부여, 공주, 익산)
- **고대사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 가야사에 대한 역사적 가치 재평가 및 정체성 규명 노력 본격화, 국정과제 상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 포함
- **고도의 지역상생적 측면 고려**, 「고도육성법」으로 패러다임 전환('11, 개정), **다양한 역사적 층위의 수용을 위한 고도 지정기준 유연성 확보**(22.08.23, 개정)  
\*고도육성법 제12조(고도의 지정 기준 등):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의 중심지 등
- **도시적 차원에서의 역사문화환경 관리**를 위한 관계 법령 다수 제정 추세, **권역별 지역 정체성 확립 및 균형발전 기회 확대**  
\*신라왕경법(2019), 역사문화환경비법(2020), 풍납토성법(2020), 세계유산법(2021) 등
- **가야사 재조명에 따른 학술적 성과 결실**, 「**가야고분군(Gaya Tumuli)**」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23.09.17)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 증대

## Why, 왜 대가야 고령(大加耶 高靈)인가?

→ 가야를 대표하는 도시국가로서 「대가야」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

### 가야사의 중추적 국가로서의 대표성

보존적 관점  
(역사적 측면)

### 핵심거점도시로서의 상징성

- **가야제국(諸國)의 최대 전성기(광범위한 영토 및 영향력)**  
> 영남, 호남지역 및 섬진강 수계와 남해안(여수, 순천) 내륙권까지 진출
- **5세기 이후, 삼국과 대등한 관계 유지**  
> 신라와 혼인동맹, 백제의 원군지원
- **대외교류를 통한 정치적 입지 구축, 해상교역국가로 성장**  
> 가야 중 유일하게 남해(중국)와 외교 교섭, 동아시아 진출  
(대가야 하지왕이 보국장군 본국왕이라는 칭호 수여)  
> 일본과 활발한 교역활동, 해상교역국가로 성장  
(대가야 양식의 금공품, 국제적으로 유동)

- **대가야 성장동력 기반 마련**  
> 낙동강변 평야 유리한 농업임지 및 철기생산지, 개포(埽)를 통한 국제교역로도
- **지역특성이 드러나는 독자적 문화구축**  
> 대가야식, '고령양식'이라 칭해지는 토기 및 금속품 등 출토 유물이 경남 서남부, 호남 동부 지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출토
- **고령지역의 원도심에 대가야 왕도 골격 확인**  
> 주산 능선에 200기 넘는 고분군 분포 및 주산성과 왕궁 형성 확인  
> 순장문화 등 지배자 집단의 대형분묘본 조성  
> 전체가야고분군 대비 과반 이상(57.7%) 차지, 가야고분군의 대표성 함의  
> 대가야 왕궁부터 조선시대 관아시설 및 향교 등 주요 읍지 위치, 현재까지 고령 원도심으로 행정 가능 유지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필요

육성적 관점  
(지역적 측면)

### 민관의 적극적 추진의지 충만

-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 지역소멸 고위험단계 해당, 지역발전 신성장 동력 필요**  
> 평균연령 54.5세, 65세 이상 인구 35.7% 차지, 지역의 초고령화 및 지역소멸 위험 증가  
> 유사 동종 지자체 대비 재정자립도 낮음 (재정건정성 취약)  
> 경북 기초자치단체 중 7번째로 높은 소멸 고위험지역 해당(23)
- **고령군의 정주여건 및 생활기반시설 인프라 부족**  
> 체류형 관광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시설개수 미비(147개소), 대가야읍 노후건축물 99.1%  
> 광역교통망 확대에 의한 인구유출(청년층 이탈), 지역간 균형발전 격차심화

- **대가야 역사적 골격 회복 관련 사업 추진**  
> 고령읍 → 대가야읍 명칭 변경 추진('15)  
> 대가야사 연구복원사업('18) 및 대가야 관문 경관사업 추진('22)  
> 대가야를 주제로 한 더 큰 대가야 프로젝트 추진('23)  
(대가야 궁성지 발굴조사 등 발굴경비사업 등)
- **고도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2023.09.11)**  
> 고도 지정 추진에 따른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고령군민 및 관계자 등 약 100여명 참석)  
> 고도 지정 추진의 공감대 확대, 고도 지정에 대한 일관된 적극적 의지충만



